

부천 향토 자료집 제5권

# 부천의 궁시<sub>弓矢</sub>문화

증보판



부천문화원

부천의 궁시 문화는 부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천 궁시의 큰 어른인 활의 명장 고(故) 김장환 선생과 김박영 선생이 부천을 궁시의 명소로 만들었으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국 최고의 국궁장을 갖춘 부천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궁의 일변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증보판이 원전(原典)을 육보이지 않고, 부천의 자랑스러운 궁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증보판은 1장부터 5장 및 6장 부록의 1~2항은 원전을 재수록했으며, 부록 3~7항은 부천문화원이 발행하는 부천문화 편집위원들께서 취재와 원고 작성을 맡아주셨습니다. - 증보판 머리글 중에서

# 부천의 궁시弓矢문화

부천은 조선시대부터 활을 잘 만드는 고장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고 김장환 선생,  
김박영 선생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04년에는  
부천활박물관을 개관하여 명실상부  
궁시의 고장으로서의 이름을 드높였다.  
본문에 앞서 부천활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육군박물관의  
사진 자료를 게재한다.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 주신 기관들과  
촬영에 힘써주신 김창호 사진작가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고 김장환 선생  
의 생전 모습



부천활박물관  
의 고 김장환  
선생 기증 전시  
실



부천활박물관  
의 고 김장환  
선생 흉상





활을 다루며 활  
짝 웃고 있는  
김박영 선생

활을 다루고 있는 김박영 선생







부천활박물관  
외관



부천활박물관  
실내 모습



부천활박물관  
의 한국활 전시



신전전개(信箭筒架).  
왕명을 전달하  
는 의장용 화살  
을 꽂아두는 틀



부천활박물관  
의 신기전



부천활박물관  
의 매직 비전  
(magic vision)  
밀납인형 사이  
에서 입체동영  
상(홀로그램)이  
작동한다.





영집공시박물관  
관 실내 모습



영집공시박물관  
관의 활과 다양한 화살

영집궁시박물관의  
활 재료  
전시



영집궁시박물관의  
귀면방패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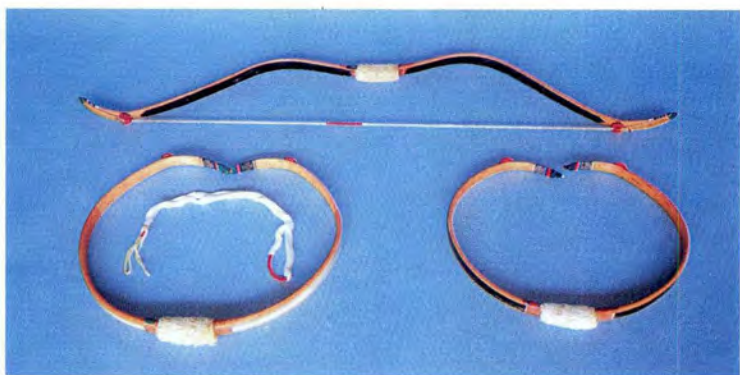


조선후기에 제  
작한 정량궁(正  
兩弓), 고려대  
학교 소장.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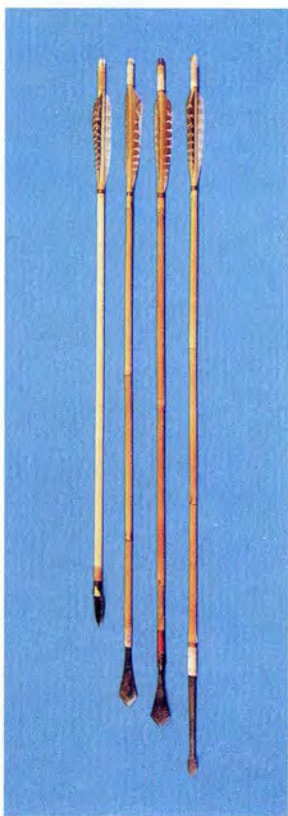


조선시대 화살.  
창덕궁 소재 화  
살의 복원품.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엮은 활과 부린  
활. 김박영 소  
장.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백제 화살. 청  
주 출토품 복  
원.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수노(手弩). 노  
기틀은 유명기  
선생, 노궁은  
김박영 선생이  
제작함.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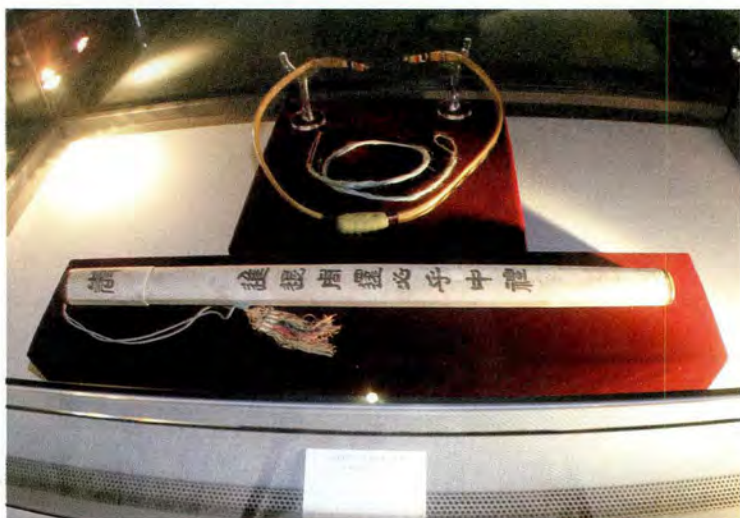
조선후기에 만  
들어진 죽제 십  
장생문 전통(箭  
筒). 위로부터  
육군박물관, 동  
아대학교博物  
관, 청주대학교  
박물관, 육군박  
물관 소장.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왕의 화살과녁  
인 웅후(熊侯).  
육군박물관 소장.



고종황제가 사  
용하던 호미명  
각궁(虎尾銘角  
弓)과 전통(箭  
筒). 육군박물  
관 소장.





북일영도(北一營圖), 18세기 김홍도 작품.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관아 밖 사장에 서 활을 쓰는 관원과 과녁이 보인다.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안악3호분의 궁수 그림. 자료제공: 육군 박물관

부천 향토 자료집 제5권

# 부천의 궁시(弓矢)문화

증보판

2005

부천문화원



부천 향토자료집 제5권

## 부천의 궁시弓矢문화

초 판 발행 | 2000년 12월 1일

증보판 발행 | 2005년 12월 30일

발 행 인 | 이형재

편 집 인 | 박광천

발 행 처 | 부천문화원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87-5

전화 032-651-3739 팩스 032-652-9200

이메일 [chpuchon@hanmail.net](mailto:chpuchon@hanmail.net)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과 부천시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자랑스런 궁시문화(弓矢文化)와 부천



송승영  
(전 부천문화원장)

향토 부천에는 옛 고구려의 활 제작 전통을 그대로 살려온 맥궁(貊弓)이 부천궁방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문화재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으로 보호받게 되어 오늘날까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을 중심으로 5대 160년이 넘게 맥을 이어온 게 바로 국궁(國弓)입니다. 현재는 경기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부천궁방에서 김박영 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활과 나기완 선생이 만든 죽시(竹矢)가 한데 어우러져 전국의 사정(射亭)에서 개최하는 각종 궁도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값이 싼 양궁과 카본 화살이 많이 보급됨으로써 전

통 궁시가 설자리를 차차 잃어 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궁도(弓道)를 지키려는 의식 있는 분들은 아직도 국궁에다 죽시를 당겨 과녁을 향해 마주 서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활쏘기는 고조선시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대비하여 대중화된 무예로 권장해 왔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으뜸으로 갖춰야 할 무예로 발전시켜 온 것이 궁술(弓術)입니다.

궁술은 조선시대 태종 8년(1408)에 무과시험의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어 민중 속에 뿌리깊이 스며들어 활쏘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왜병의 조총에 맞서 싸운 조선 활의 위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여러 역사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갑오경장 이후 신식 무기로 인하여 활쏘기는 쇠퇴기를 맞았고, 일제시대의 우리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하여 사풍(射風)이 사라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시기에도 향토 부천에서 국궁의 제조와 궁술 및 궁도의 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 김장환 선생입니다. 대대로



궁시장으로 맥을 잇도록 하라는 선친의 가풍을 곳곳이 지켜와 오늘 날 향토 부천의 값진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국궁과 부천’을 한데 융화시켰던 김장환 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그 분이 남기신 참 뜻을 깨닫고 후대에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데 더 한층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통문화로 승화시켜 내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 향토자료집 제5권으로 이 작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데 협조해 주신 성무정의 이정우 前사두님, 부천궁방의 김박영 선생님과 나기완 선생님을 비롯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 12

부천문화원장 **송승영**

여 백

## 민족의 얼을 되살리는 궁시문화



이 형 재  
부천문화원장

우리는 중국 대륙, 만주 별판을 호령하였던 기마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 때, 조상의 늙름한 기상이 더욱 더 그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궁은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왔고 국난 극복의 필연적 수단이었습니다. 활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혼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위상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펼쳐야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은 그런 까닭에 지난 2000년 발간한 《부천의 궁시(弓矢) 문화》를 증보(增補)하여 재발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증보판은 1장부터 5장 및 6장 부록의 1~2항은 원전을 재수록했으며, 부록 3~7항은 부천문화원이 발행하는 부천문화 편집위원들께서 취재와 원고 작성을 맡아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증보판이 원전(原典)을 욕보이지 않고, 부천의 자랑스러운 공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천의 공시 문화는 부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천 공시의 큰 어른인 활의 명장 고(故) 김장환 선생과 김박영 선생이 부천을 공시의 명소로 만들었으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국 최고의 국궁장을 갖춘 부천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궁의 일번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애덕행(仁愛德行, 사랑과 덕행으로 본을 보인다), 성실겸손(誠實謙遜,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한다), 자중절조(自重節操, 행실을 신중히 하고 절조를 굳게 지킨다), 예의엄수(禮儀嚴守, 예의범절을 엄격히 지킨다), 엄직과감(廉直果敢, 청렴검직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습사무언(習射無言, 활을 쏠 때는 침묵을 지킨다), 심정기(正心正己, 몸

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불원승자(不怨勝者,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막만타궁(莫彎他弓, 타인의 활을 당기지 않는다)이라는 국궁9계훈(弓道九戒訓)에 우리 민족의 탁월한 기상을 더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깨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책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획을 맡아주신 구자룡 편집주간님과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여러 기관께도 심심(深深)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2

부천문화원장 이 형 재

## 부천의 궁시문화 증보판

---

### ● 차례

#### 1. 한국의 활 • 31

- 가. 활의 역사적 고찰
- 나. 우리 활의 우수함
- 다. 종류와 명칭
- 라. 우리 활의 원형인 고구려 맥궁

#### 2. 활의 제작과 관리 • 63

- 가. 재료준비
- 나. 공구와 용도
- 다. 활의 제작과정
- 라. 활의 관리 방법

#### 3. 궁도(弓道) • 101

- 가. 우리 궁도의 전개과정
- 나. 궁체의 종별
- 다. 초보자의 수련
- 라. 활쏘기의 마음가짐과 예절

#### 4. 활을 만드는 부천 사람들 • 129

- 가. 부천 활의 제작 유래
- 나. 화살처럼 곧게 살다간 활의 명장 김장환
- 다. 불꽃같이 활과 더불어 일생을 보낸 김기원
- 라. 신궁제작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장인 김박영
- 마.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김기홍

#### 5. 부천의 죽시(竹矢)와 사정(射亭) • 163

- 가. 화살의 제작 및 과정
- 나. 부천의 사정(射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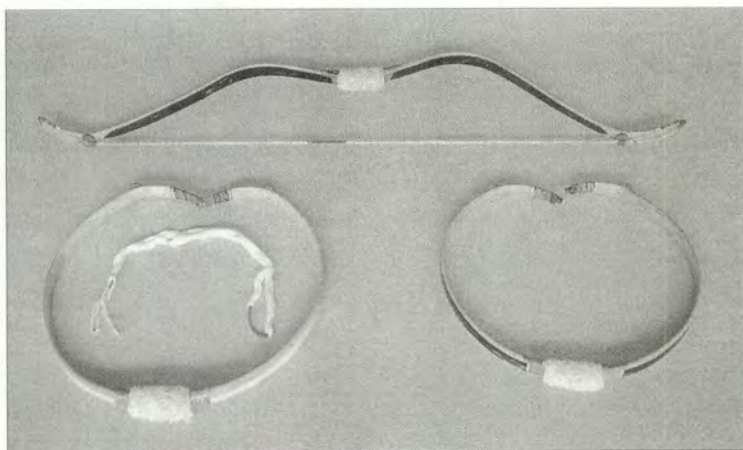
- 초 판 머리글 | 부천문화원장 송승영 • 19
- 증보판 머리글 | 부천문화원장 이형재 • 23

## 6. 부록

1. 궁시 관련 용어 • 187
  - 가. 궁시의 부속품에 관한 용어
  - 나. 활을 쏘 때 사용하는 용어
  - 다. 사정(射亭)에서 사용하는 용어
2. 성무정에 세워진 비문 음기(碑文 陰記) • 199
  - 가. 김장환 선생 기념비
  - 나. 최상헌 사두 기념비
3. 궁시장 김박영 • 205
  - 가. 활 맹그는 사람
  - 나. 자신과의 싸움
  - 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 라.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김박영
4. 부천활박물관 • 223
  - 가. 부천활박물관의 특징
  - 나. 전시된 활과 화살
  - 다. 글을 마치며
5. 육군박물관 • 241
  - 가. 기록의 산실 육군박물관
  - 나. 전시되어 있는 궁시류
  - 나. 가장 소중한 전시품
  - 라. 마치면서
6. 영집궁시박물관 • 257
  - 가. 역사를 보존하는 영집궁시박물관
  - 나. 영집궁시박물관의 전시품
  - 다. 활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집궁시박물관
7. 전국 국궁장 소개 • 279



여 백



## 1. 한국의 활(弓)

- ㉠ 활의 역사적 고찰
- ㉡ 우리 활의 우수함
- ㉢ 종류와 명칭
- ㉣ 우리 활의 원형인 고구려 맥궁

여 백

# 1. 한국의 활

## 가. 활의 역사적 고찰

옛날 우리 인간들은 의, 식, 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천에서 수렵의 수단으로 자연물과 자기의 지혜와 용맹을 이용하고 개발하여 점차 무기를 생활수단으로 발명하게 되었다. 무기 중에 바로 얻기에 가장 쉬운 것이 돌칼(石刀)과 마제석촉이었으며, 멀리 뛰는 짐승을 쉽사리 잡기 위해 나무로 만든 것이 창과 활이다.

야생동물을 수렵하여 생활 수단으로 삼았던 시절의 고대인에게는 궁시(弓矢)가 가장 중요한 무기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문화가 차츰 발달되고 생존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한 부족이 타 부족을 침략하고 하나의 국가가 타국과의 전쟁행위에 있어 궁시는 무기로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분명히 인류의 역사에 있어 문화적 향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불의 발견이나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인





무용총 수렵도 (4~5세기). 고구려 무사가 말을 타고 호랑이, 사슴을 활로 쏘는 용맹성이 잘 드러난 벽화로써 활은 다섯마디로 된 복합만궁이며 화살은 명적이다. (자료제공:육군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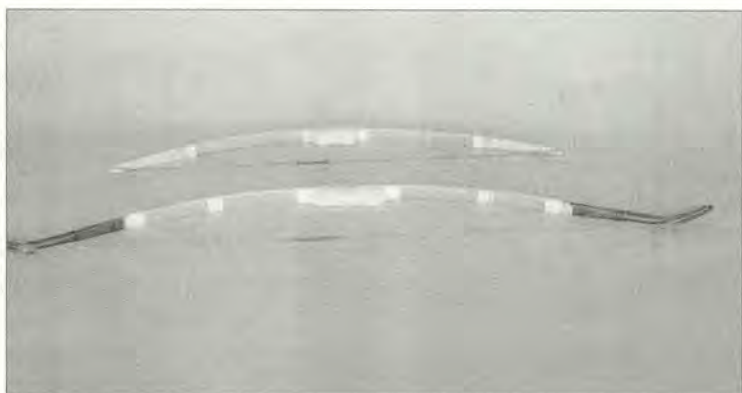
류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수많은 외침이 의해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국민의 심신단련(心身鍛鍊) 및 호국정신(護國精神)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의 사용과 발달을 꾀하여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래된 것은 오직 각궁(角弓) 뿐이다.

문헌 및 유적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궁시(弓矢)를 사용했으며 이는 한국 전역에 걸쳐 출토된 타제(打製) 및 마제석촉(磨製石鏃)으로 보아 분명하다.

궁시에 대한 문헌과 그 유품에 의하면 북으로는 함경북도의 경흥, 성률, 회령 등지에서 발견된 타제철촉과 남으로는 경상북도

조선후기 서민들이 대나무로 만든 활(竹弓)로서 일명 '범테기 활'이라고 부른다. (유영기 작품, 육군박물관 제공)



경주 등지에서 출토된 몇 개의 동종품(同種品)만 보아도 북은 함경북도로부터 남은 경상남도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마제석촉 등으로 미루어 보아 궁시가 대단히 중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대 우리 국토의 일부였던 만주 각지에서 발견된 석촉이 그 모양이나 재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것과 동일함은 그 문화의 근원이 똑같은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부에 있어서는 고조선과 대립하였던 삼한에서도 궁시를 사용하였다 한다. 맥(貊)의 단궁은 낙랑단궁(樂浪檀弓)이라고 하며 그 재료는 문자 그대로 박달나무로써 길이가 3척(尺)5촌(寸)의 활을 만들었다 한다. 고시(古矢)도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로서 길이는 1척(尺)8촌(寸)이며 고조선으로부터 사군시대(낙랑, 진번, 임둔, 현수(樂浪, 眞蕃, 臨屯, 玄菟))에 이르기까지 단궁(檀弓)과 고시의 전용시대였으며 조선 목공의 원시이며 각궁의 사용 후에도 이를 병용하였다 한

다.

기록시대에 들어서면서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국가인 부여(附與), 옥저(沃沮), 맥(濊), 마한(馬韓), 진한(辰韓) 등지에서 궁시(弓矢)의 사용이 활발하였다 한다.

고구려에는 호궁(好弓), 맥궁(貉弓)은 각궁(角弓)이었으며 고구려 상산왕 26년(서기 220년) 전부터 이 맥궁(貉弓)을 사용하였다 한다.

따라서 신라에서도 진흥왕 19년에 나마신득(奈麻身得)이란 사람이 포궁(咆弓·砲弩)을 제작하여 성 위에 구축하였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도 있다. 또한 백제에서도 이 기술을 받아 드려 더욱 발전시켰으며 삼국의 활 만드는 기술도 점차로 발달하였고 화살도 또한 다양하였다 한다.

이들 삼국이 사용한 재료는 고구려는 고시(목전:木箭), 신라와 백제는 죽시(竹矢)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기후와 산물이 같지 않은 관계상 신라와 백제 남부의 따뜻한 곳에서 대나무가 생산되었으므로 천연의 혜택을 입어 죽전(竹箭)이 매우 발달하였다 한다.

한편 신라 경명왕 2년(서기 918년에는 후백제와 견훤(甄萱)이 고려 태조가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홍작선(弘雀扇)과 죽전(竹箭)을 헌납하였다하니 이는 곧 신라와 백제가 다같이 죽전(竹箭)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궁(檀弓)은 고시와 함께 우리나라 궁시(弓矢)의 근원이 되었으며 목궁(木弓)의 원시가 되는 단궁의 재료에 있어서 변환이 있는 외에 목궁(角弓)과 고시와 죽전(竹箭), 이 세 가지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



화에 따라 모양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의하면 부여에 관하여 “부여는 궁시와 도(刀)와 모(矛)로써 병기를 삼으니”(以弓矢刀矛爲兵)라 하여 궁시(弓矢)가 병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지진한전(魏志辰韓傳)에는 “진한(辰韓)은 국명(國名)을 방(邦)이라 하고 궁(弓)을 호(弧)라 한다.” “보전(步戰)에 능숙하며 병장(兵仗: 무기)이 마한(馬韓)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삼한(三韓)에 활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진한(辰韓)에서 철(鐵)이 생산되었으므로 철제의 시촉(矢鏃)을 사용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조선부(朝鮮賦)에 “조선(朝鮮)이 숭상하는 바는 화피(樺皮)의 궁(弓)이니 활의 제조방법이 오묘함에 비하여 극히 짧으나 그 성능은 아주 우수하다” 하였다. 여기서 화피(樺皮)의 궁(弓)은 조선(朝鮮)의 각궁(角弓)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길이는 중국(中國)의 활보다 짧으나 활의 힘은 어느 나라 활보다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편전(片箭)과 같은 화살은 날아가는 거리가 아주 멀고 적중률이 뛰어나 만주의 호인(胡人)들이 무척 두려워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과 선진국의 신무기의 발달로 조선 중엽 이후로는 궁시(弓矢)가 전쟁무기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한낱 향간의 향사(鄉射)로서 또한 지금은 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로 전락하게 되었으므로 궁시제작(弓矢製作)에도 변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도 곳곳의 향사(鄕射)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고 계속 제작하여 온 때문이다.

옛날에 국가에서 무기로 생산할 때와는 달리 개인의 경영 하에 제작하므로 써 그 재료구입도 애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는 자연산 재료들의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제작한 활과는 재료의 질적 차이는 약간 있어도 제작 공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성능에 있어서도 과거의 활에 비하여 손색이 없어 스포츠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우리 활의 우수함

### (1) 훌륭한 재료와 기술

우리 활의 명성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예부터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여기에는 우선 재료의 우수함에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활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뿔은 우리의 재래 궁이 최고로 취급 받아왔다.

초기의 활은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나무로 만든 목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무의 소재도 점차 활에 적합한 박달나무·산뽕나무·대나무 등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소재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고 활의 탄력을 키우기 위해 잘 다듬고 소뿔줄이나 삼베끈 등으로 묶던가, 뿔 조각을 부치는 등의 보강책이 나오게 되

[조선 후기의 각  
궁(角弓). 활쏘기  
의 연습용으로  
쓰던 활이며, 줄  
통에 땀이 차지  
않도록 모를 썩  
어 짠 삼베가 씌  
워져 있다]



었다고 하겠다.

고조선시대에 사용되었다는 단궁의 재료는 박달나무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박달보다는 탄력이 강한 목재인 산뿔나무와 산비마자(山毘摩子)로 그 재료가 개량되었다.

각궁이 역사기록에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이고 보면 인류가 활을 발명한 후 수천년 동안 목궁을 사용하며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수많은 과정을 밟아 왔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목궁을 꺾고 다듬고 뿔과 소힘줄로 보강을 하던 끝에 각궁이라는 좋은 활을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궁은 자연 속에서 생산해 낸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최상의 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뿔과 대나무와 산뽕나무, 쇠심줄과 화피와 부레풀 등의 소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위대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제궁기술은 본시 독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선사시대 문화가 중국과는 유형을 달리하는 스키타이 문화에 접근하고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북방 기마민족(騎馬民族)의 우수한 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남양의 물소뿔이 보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뿔이나 양각(羊角)을 이용한다면 능히 유연한 각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남해상인들이 직접 왕래하면서 남양 특산의 서각(犀角:물소뿔)과 상아(象牙)를 상당히 무역하였다. 따라서 물소뿔은 중국을 통한 수입품이라 하여 당각(唐角)이라 하고, 한국 재래종의 소뿔은 향각(鄉角)이라 대칭 하였으며 당각의 활을 당각궁(唐角弓), 소뿔의 활을 향각궁(鄉角弓)이라 일컬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세조는 등극하자 곧 각도의 절도사에게 다음과 같이 활에 관한 유시를 내렸다. “내가 항상 쓰고 있는 향각궁은 매우 좋아서 구태여 당각궁을 쓸 필요가 없다.”(세조실록 3년 10월 24일)

이 글은 그동안 일반적인 통념이 당각궁만을 양궁(良弓)으로 여겨 왔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향각궁도 견실하게 만드니까 당각궁에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는 자급자족(自給自足)의 권고가 지시돼 있다.

소뿔은 황해도의 황소를 제일로 꼽았다. 소가 비교적 커서 궁재(弓材)의 백각(白角)으로 쓸 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세조 12년에는 수입재인 물소뿔(水牛角)은 물론 한국산의 소뿔(牛角)마저 활을 만드는 이외에는 함부로 낭비하지 말도록 금령(禁令)을 내렸다.(세조 12년 4월 18일條)

한국산의 백각궁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상당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병자호란 직후까지 청나라의 강제 징수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중 접경지대를 맡은 중국 측 병관(兵官)이 중국을 왕래하는 한국 정부의 사절에게 의례 활을 청한 사례가 종종 엿보인다.

강궁(强弓)과 약궁(弱弓)을 각각 청한다느니 흑궁은 금물이므로 향각궁이나 보내도록 하자는 등 조정에서 설왕설래한 대목이 왕조실록에 자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소뿔을 활용하던 한국인의 지혜가 갑작스런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소뿔은 물소뿔보다 짧기 때문에 장궁을 실하게 만들려는 데는 물소뿔이 적합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흑각궁(黑角弓)을 으뜸으로 여기는 전통이 지속돼 오는 것이라 해석된다.

## (2) 외국의 활과 비교

한국의 각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활의 여러 가지 유형과 외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을 대별하면 앞서 열거했듯이 직궁(直弓)이란 글자 그대로 곧은 목죽(木竹)의 활짚이다. 이 활에 시위를 엮을 때 활짚 전체가 거의 같은 곡율(曲率)로 휘어져 반달 모양의 호(弧)를 이루게 된다. 이런 활은 숨을 펼 때 쓰는 무명 활이나 창애와 활비비 등의 활이 바로 그런 형상이다.

임란(壬亂) 때 의병의 기록에 의하면 급한 대로 대나무를 쪼개 어 활을 변통해 들고 나아갔다고 하였는데 역시 단조한 직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폴리네시아의 미개 민족들이 사용하는 것도 직궁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환목궁(丸木弓)이라 일컫는다. 일본에서의 환목궁 유물은 2천 수 백년 전의 승문(繩文)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으며, 8세기 초에 해당하는 나라(奈良) 후기에 대륙계의 만궁(彎弓)이 전래될 때까지 오로지 개오동나무(자, 梓), 느티나무(규, 楮), 박달나무(단, 檀) 등의 목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활들은 전장 120cm부터 160cm에 달하는 것도 있는데 때때로 옷칠이나 주칠(朱漆)을 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에 비교할 만한 출토품이 없어서 당시 한국의 직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직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본 활은 직궁이 들어있는 줍통(부, 拵: 활짚의 허리)이 중앙에서 조금 아래쪽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간(下幹)이 짧고 상간(上幹)이 긴 편인데, 이러한 양식은 한국의 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활에서는 시위 코

를 거는 양단의 고자(소, 弮)에 뿔이나 금속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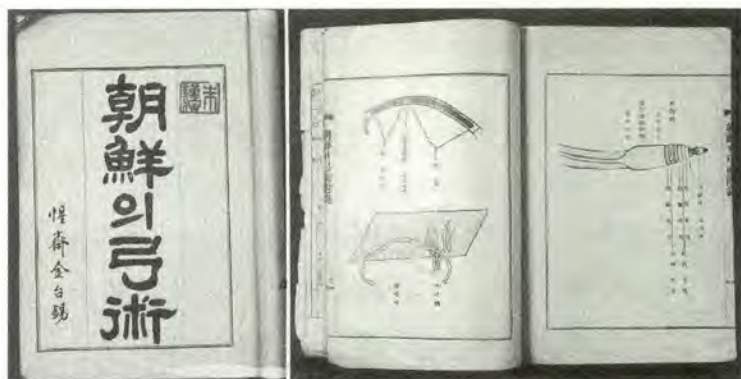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전래의 고유 양식이라 할 현행의 각궁에는 일본 활의 외형적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 역사학자는 고마사(高魔史)의 단편적인 기록을 인용해 “무신집권 시절의 최씨 사병(마별초(馬別抄))들은 몽고풍을 본따서 의복·말안장·궁시에 사치를 극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저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멋거니 생각할 뿐 상고할 길이 없다.

한국은 일찍부터 각궁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륙계의 만궁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만궁에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궁자(弓字) 모양의 반궁형(半弓形) 궁과 우리나라 각궁과 같은 반곡궁(反曲弓)이 그것이다. 반궁형의 활이란 시위를 엮든, 부리든 활 모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로 요즘 운동경기에서 쓰는 양궁(洋弓)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방짜쇠나 강철로 단조한 철궁 등이 반궁형 궁이다.

이에 비하여 반곡 하는 활이란 시위를 벗기었을 때 활짚이 활 짝 뒤집혀 양끝 고자가 코를 맞대고 둥글게 휘어짐을 말한다.

반곡궁의 가장 탄력을 갖는 부분은 오금이다. 오금은 뗏가지와 물소뿔을 각각 얇팍하게 깎아 부치고 다시 안쪽에 쇠심줄을 부레풀로 이겨 부침으로써 겹겹 합재(合材)된 부분이다. 활시위를 엮었을 적에는 대나무(竹材)가 적심을 이루고 각재(角材)가 안쪽을 바치며 쇠심과 부레풀이 활동에 긴장력을 더한다. 그런데 부레풀



일제 강점기에 민족사상의 고취를 위해 이중화, 성문영 등이 펴낸 《조선의 궁술》.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활에 대한 기록을 모아 저술했다(1922년). (자료제공:육군박물관)

로 평소 끈적거리는 풀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잇장 같은 화피(樺皮)로 감싸 발라 표면을 풀기 없이 반드럽게 치장한다.

활시위를 거는 부분, 즉 활짚의 양단에는 아생의 굳이 뿔나무를 깎아댄다. 양단에 각각 1자4치씩이나 길게 대는 이 뿔나무 고자는 원시적 직궁의 잔재로 해석된다. 굳이 뿔나무는 질기고 야무져서 본시는 그것만 가지고 활을 만들어 썼을 것이다.

궁간목(弓幹木)·궁간상(弓幹桑)이란 말이 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土産條)에까지 등재돼 있는 것을 보면 혹 이 때까지도 자목직궁(柞木直弓)이 잔존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역시 목질(木質)이 뿔과 대나무를 합한 재료만큼 탄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각궁이 발달함에 따라 고자 부분으로 일러나 흔적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활짚 중앙의 줍통에는 참나무를 깎아댄다. 줍통은 탄탄한 손잡이 역할로서 족할 따름이므로 유연할 필요가 없다. 줍통의 손아



귀가 집히는 자리만큼은 무명실로 여러 겹 감아두거나, 굴피나무 껍질을 씌워 촉감이 부드럽게도 한다.

이같이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드는 것이 바로 각궁의 특징이다.

《조선의 궁술》에서는 6재(材)의 각궁과 7재의 각궁이 있다고 구분하였다. 전쟁과 수렵용에는 뽕·뽕나무·쇠심·부레풀·칠·실의 6가지가 든다고 하였고, 사예(射藝)와 운동용에는 각·죽·상(桑)·상(像:참나무)·쇠심·부레풀·화피의 7가지로 조성된다고 하였으니 현재의 각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이 구분에 의하면 병사용 병기로서의 활은 뽕과 뽕나무와 소힘줄을 간단한 조법(造法)으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귀족과 사대부의 사예를 위한 활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재료를 부합해서 화사하게 꾸민다는 설명이 된다. 그 활이 강궁이 되고 연궁(軟弓)이 되는 것은 재료의 다소 때문은 아니다. 각재·죽재·쇠심 등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강궁·실궁(實弓)·실중력(實中力)·중력(中力)·연상(軟上)·연하(軟下) 등의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각궁을 후궁(弓侯弓)이라고 일컫는 것은 사예용의 7재궁에서 연유한 명칭이다. 후(弓侯)는 뽕나무를 댄 고자 부분을 가릴 뽕판 듯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궁은 대개 5자 길이의 장궁이 일반적이는데 옛날 무인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는 5자5치의 정량궁(正兩弓:큰 활)으로 조련하였다.

가장 큰 활은 길이 6자의 예궁(禮弓)이다. 이는 궁중연사(宮中燕射)와 향음주례(鄉飲酒禮)와 같은 특별한 용도의 각궁으로, 옛



조선 후기 무과 시험을 볼 때 사용하던 활로 큰 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정량궁(正兩弓). 겉모습이 화피단장이 잘 되어 있었다.(고려대 박물관 소장)

궁중 유물로 보이는 이 같은 대궁에는 화피 위에 극채의 팔선도(八仙圖)를 그려 넣고 또 고갯잎으로 호피문을 화각(華角)하였다.

## 다. 활의 종류와 명칭

### (1) 활의 종류

#### (가) 정량궁(正兩弓)

옛날부터 대궁(大弓)이라 전하여 왔으며 길이가 약 5척(尺)5촌(寸)(167cm)이며, 줌의 중심으로부터 도고지까지가 2척(尺)2분(分)(60.2cm), 줌아귀의 넓이 1촌(寸)5분(分)(4.6cm) 창밑(목소) 넓이 1촌(寸)3분(分)(4cm), 도고지에서 양양고지까지의 길이가 1촌



(寸)(3.1cm)이며 모양이나 제작 방법이 현재의 각궁(角弓)과 동일하며 궁력(弓力)이 대단히 강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전시(戰時)와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사용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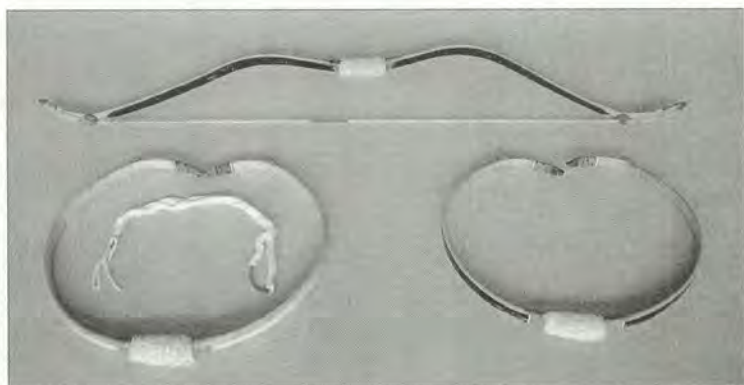
#### (나) 예궁(禮弓)

본명은 대궁(大弓)으로 불려졌으며 길이가 6척(182cm)으로서 모형이나 제작방법이 각궁(角弓)과 같으며, 여섯 가지의 재료로 제작되었고, 옛날에 궁중(宮中)에서 연사(燕射)와 양궁대사례(洋宮大射禮) 또는 향음주례(鄉飲酒禮)에 사용하였으므로 예궁(禮弓)이라 불렸다.

#### (다) 목궁(木弓)

이것은 호(弧)라고도 하여 공간목(弓幹木)과 공간상(弓幹桑)으로 만드니 제작법이 극히 단순하여 전시와 수렵에 공용하였다.

김박영선생이 제작한 엷은 활(張弓)과 부린 활(拵弓)의 모습이며, 흰 물소뿔로 만든 백각궁(白角弓)과 말을 탄 채 수렵하던 동개활(甕弓)이 옛고구려 기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자료제공:육군박물관)



(라) 철궁(鐵弓)

순 철재로 제작된 활로서 전쟁시에만 사용하였다 한다.

(마) 동개활(弓古弓)

활과 화살을 가죽주머니에 넣어서 등에 메고 말(馬)을 타고 다니면서 쏘았던 것으로, 형태는 각궁과 동일하며 여섯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아주 작은 활로서 전쟁시에만 사용하였다 한다. 활 중에서 가장 작은 활이다.

(바) 철태궁(鐵胎弓)

모양은 각궁(角弓)과 흡사하며 다만 몸체를 철로 만들었으며 전시와 수렵에 사용하였다.

(사) 포궁(砲弓)

막강한 활로서 신라 진흥왕 19년에 나마신득(奈麻身得)이란 사람이 발명한 것으로서, 성 위에다 장치하여 적의 침공을 막기도 하고 수레(車)에 장치하여 끌고 다니며 화살을 쏘기도 하고 돌(石)덩어리를 쏘기도 하였다.

(아) 당궁(檀弓(樂浪檀弓))

박달나무로서 만든 것으로 길이가 107cm~110cm로서 수렵에 사용되었으며 조선목궁(朝鮮木弓)의 원시(原始)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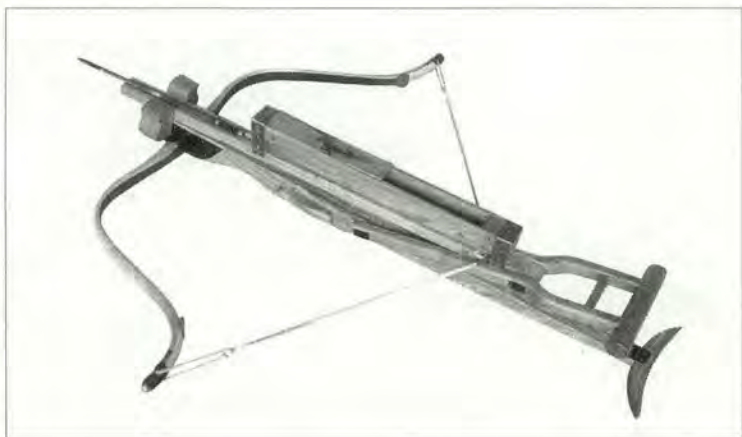
### (자) 구궁노(九宮弩 혹은 千鈞弩)

순 전쟁용으로 일시에 많은 화살을 발사하여 천보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서 목과 철(木, 鐵)로 된 것이 있었으며 목으로 된 것은 일반병이 사용하고 철(鐵)로 된 것은 강하여 장군들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삼국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되었으며 현재 기관총과 흡사한 것이라 하겠다.

### (차) 각궁(角弓)

일명 맥궁(貉弓)이라고 하였으며 전시와 수렵용 그리고 연악(燕樂)과 습사용(習射用)의 2개종이 있었으며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형(形)과 질(質)이 옛날의 각궁(角弓)과 현재의 각궁(角弓)은 별로 변한 바 없으며 옛날부터 각국에서는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우수한 활이었으며 쏘는 사람

‘한국신제기계도설’을 참고해 만든 수노(手弩). 노기들은 유명기씨가, 노궁은 김박영시가 만든 것을 합쳐 완성품을 이루었다.(자료제공:육군박물관)





의 기력에 따라 강(強), 연(軟)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 산상왕 26년(서기 197~220년)(代)부터 제작되었다 하며, 현재 부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궁(角弓)이 바로 이 활인 것이다.

## (2) 활에 대한 부분 명칭

(가) 활고지 : 도고지로부터 양양고의 끝까지



- (나) 고지등 : 고지위의 중앙에서 오뚝한 부분
- (다) 양양고 : 심고가 걸리는 자리의 뽕족한 부분
- (라) 무력심 : 심고 걸리는 자리에 심줄 감은 것
- (마) 무력피(서피) : 무력심을 덮는 가죽
- (바) 도고지(돈고자) : 뿔 끝에 활시위의 심고 마디가 닿은 자리에 붙은 원형의 가죽
- (사) 고지바닥 : 활고지의 뒷심부분
- (아) 정탈목(먹우리집) : 도고지 밑에 굽은 심뒤
- (자) 뿔끝 : 도고지의 밑의 뿔끝
- (차) 앞(前) : 전면(前面)에서 각(角)을 말함
- (카) 뒤(後) : 후면(後面)에 뒷심을 칭함
- (타) 전심 : 각(角)과 대소의 옆에 붙은 심
- (파) 목소 : 뿔나무 부분으로 도고지에서 삼삼이 까지
- (하) 삼삼이 : 대나무와 뿔나무의 연결 부분
- (거) 화피단장 : 활 전체를 벗을 입히고 아름답고 수려하게 모양을 낸 것.
- (너) 먼오금 : 오금이 멀리 난 것(한오금에서 삼삼이 쪽으로 나간 오금)
- (더) 한오금 : 한 가운데 제일 많이 꾸부러지는 오금
- (러) 발은 오금 : 한오금에서 대림끝 부분으로 가까이 꾸부러지는 오금
- (머) 대림끝 : 쯤통의 참나무 양쪽 끝
- (버) 목전피 : 쯤피 양끝에 벚꽃나무 껍질로 싼 것



- (서) 줌아귀 : 줌피의 상하(上下)편의 끝 부분
- (어) 줌통(줌통) : 참나무가 들어있는 부분(손잡는 부분)
- (저) 동각머리 : 줌통의 양쪽 뿔끝
- (처) 동각 : 동각 머리의 가운데 끼운 뿔
- (커) 출전피 : 화살 나가는 자리에 붙인 가죽
- (티) 줌피(줍피) : 줌통에 손잡이를 붙인 것
- (퍼) 골격 : 뒤심의 목소 중간에 오뚝한 선
- (허) 심동 : 줌통과 양편 목소
- (고) 골쪽 : 각의 한가운데 흰줄이 있는 것
- (노) 인자각(人字角) : 뿔의 인자(人字)형의 무늬가 있는 것
- (도) 흙자 : 아주 새까만 뿔(무늬가 전혀 없는 것)
- (로) 면뿔 : 도고지 앞에 부분을 화피로 덮은 것
- (모) 용뿔 : 화피를 입히지 않고 전체를 화피로 감은 것
- (보) 장각궁 : 뿔이 길게 도고지 밑까지 나간 활
- (소) 휘궁 : 짧은 뿔로 만든 활이며 뿔끝이 목소 중간에서 끝인 것
- (오) 심고 : 활시위 끝에 잡아맨 고리
- (조) 절피 : 활시위에 무늬를 끼우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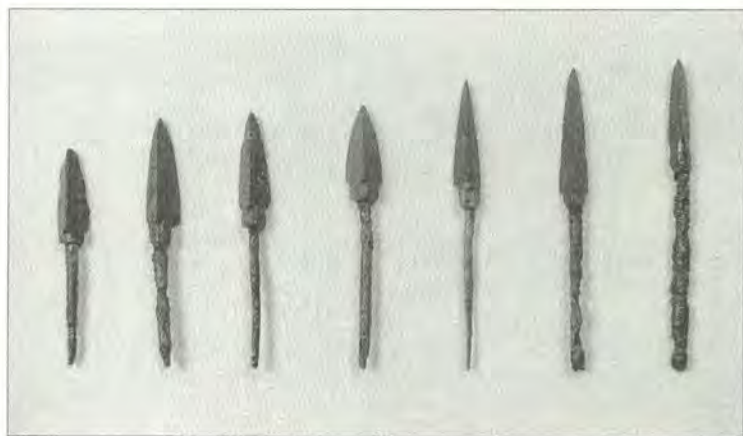
이상의 서른일곱 가지의 명칭이 있으며 그 외에 연궁·중힘·강궁·막막강궁·동힘·어련·장궁·단궁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뼈로 만든 화살  
촉이며 3세기 유  
물이 출토된 김  
해 웅천 패총에  
서 발견되었  
다.(고려대학교  
박물관)



## 라. 우리 활의 원형인 고구려 맥궁

우리 활의 원형은 고구려 활에서부터 기원한다. 부천에서 제작되는 활도 그 재료나 방법·성능 등에서 특별한 차이 없이 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활이 있었지만 현존하는 유물로는 평양구역 내에서 출토된 골제(骨製)의 활 2개체분이 유일하다. 이 두 개의 활을 만드는 데 사용된 뼈는 소의 갈비뼈로서 1개의 활을 만드는 데 3개씩 도합 6개가 출토되었다. 이중 공간(弓幹)이 4개이고 줍피부가 2개이다. 한 개의 활은 두 개의 공간과 한 개의 줍피로 구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공간은 전장이 평균 37cm 정도로 바깥 쪽 단(端)을 넓고 또한 둥근 기미로 처리했으며, 그 반대쪽은 안쪽단을 향하면서 조금씩 폭을 좁혀 나갔다. 안쪽단도 약간 둥근 기미로 마무리하였다.



청동기시대에 쓰인 청동화살촉으로 아래 부분에 피홈이 있다. (자료제공:육국박물관)

전체적으로 보아 만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쪽 면을 둥글게 홈을 파서 목간(木幹)을 덧대기 쉽게 하였다. 활고자의 안쪽 부분은 요(凹)상으로 깎아 활시위를 걸게끔 고안되어 있다. 줍피는 길이 약 20cm 정도로서 양단의 폭이 비슷하며, 모두 둥근 기미로 처리하였고 단면은 편평한 편이다.

이 활은 소위 각궁으로 문헌상에 보이는 고구려의 활인 맥궁(貊弓) 혹은 각궁(角弓)으로 기마용(騎馬用)의 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육전무고령(唐六典武庫令)〉의 “궁지제유사 일일장궁(弓之制有四 一日長弓)” “이상자 보병용지 이일각궁 이근각 기병용지(以桑柘步兵用之 二日角弓 二筋角 騎兵用之)”의 기록으로도 각궁이 기마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벽화에 수없이 표현된 활들의 실물 자료가 아닌가 판단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조선시대의 각궁제작법을 예로 삼아 볼 때 빠로 만

고령 지산동 32호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시대에 쓰인 철호살촉. 촉의 뒷부분이 뾰족하게 뒤로 돌출되어 있다. (계명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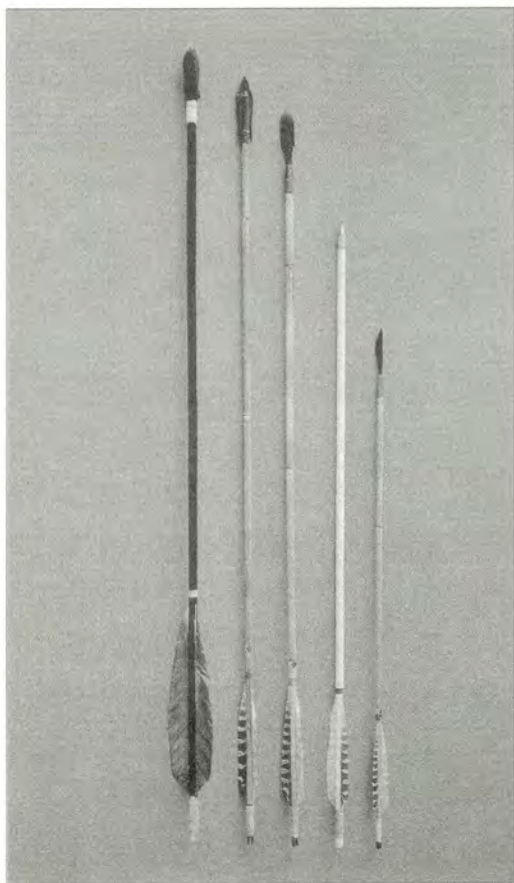
든 공간과 줍피 뒤에 탄력성이 좋은 나무를 덧대어 붙인 후 그것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제조되었을 경우 활의 전체길이는 90cm 전후의 단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탄력성을 지닌 좋은 활이었을 것이다.

벽화 속에 보이는 활들 중에서 시위가 당겨져 만곡된 상태가 아닌 사용하지 않을 때의 활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실성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각저총벽화 속의 활을 들 수 있겠다.

이 활은 무덤 주인공이 앉아 있는 의자 뒤의 네발 달린 탁자 위에 화살과 함께 놓여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칭하고 있는 공간과 그것을 연결하는 줍피로 구성되어 있고 활시위는 공간의 양단으로부터 약간 안으로 들어온 위이에 힘을 파서 걸리도록 고안되어 있음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공간과 줍피가 만나는 부위는 따로 강하게 묶은 듯이 구별되게 표현되어져 있으며 공간에도 그 중간에 묶은 흔적이 표





가야화살. 유명기씨가  
부산 노포동 고분에서  
출토된 것을 복원한  
것으로 형태가 다양하  
다.(자료제공:육군박물  
관)

현되어 있다. 이는 궁간을 2개의 만곡한 궁간부재(弓幹部材)를  
맞붙여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활의 정확한 크기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화살 뒤에 놓여 있는 화살의 축두의 크  
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크기를 상정해 보면 활의 크기가 축두의  
약 10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수는 전술한 평양구역 내 출토 활의 복원치수 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고, 수렵도 중에 묘사된 시위가 당겨진 상태의 활의 길이와도 대략 일치된다. 뿐만 아니라 진서(晉書)나 후한서(後漢書)를 보면 숙신의 활이 3자(尺) 5치(寸)이고 읍루(邑婁)의 것이 4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미터로 환산되면 후한의 1자는 23.5cm, 진대의 1자는 24.5cm이니 그것들은 80~90cm라는 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 한편 이 활을 당겼을 때 만곡하는 정도는 화살의 크기를 가지고서 검토해 볼 때 약 45cm 정도까지 뒤로 당겨지게 된다.

활을 당겼을 때 활의 모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용총(舞踊塚) 현실서벽의 수렵도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활은 단궁류의 각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림에 표현된 마디의 숫자로 보아 5개의 골재(骨材)를 연결시켜 만든 화살로 추정된다. 이 그림에서 활을 최대로 당겼을 때 활의 양쪽 가장자리 간의 폭이 화살의 크기정도로 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살대의 길이가 약 65cm 전후로 계산되므로 활이 최대로 만곡되었을 때 활 양단의 폭이 약 60cm 정도로 좁혀진다. 이런 단궁은 고대 북방의 유목민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고구려의 단궁이 역시 그 계통에 속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정도의 탄력성을 지닌 고구려의 활은 그 위력이 대단하여 넓적한 철촉을 부착한 화살로 짐승을 쏘면 짐승의 두개골을 뚫고 나올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벽화 무덤의 수렵도에 그려져 있다. 이는 후술한 문헌기록과 함께 고구려의 활이 지닌 위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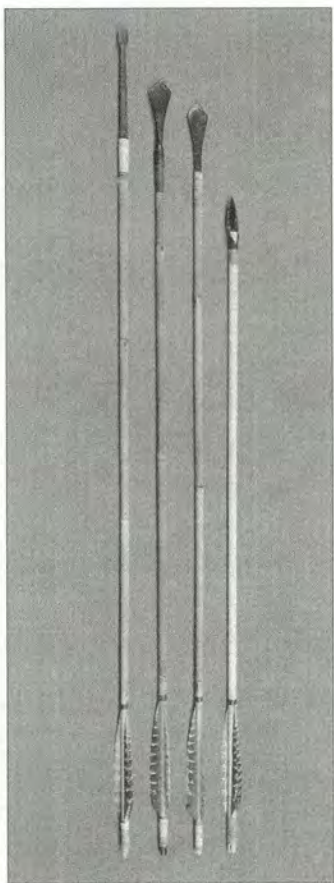
정도를 사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의 고구려 철적(轍迹)의 존재를 보아도 고구려 활이 쇠로 만든 표적을 꿰뚫을 만큼 강력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활의 휴대는 안악 3호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을 넣기 위한 궁대(弓袋)에 넣어서 휴대하는 경우와 어깨에 매거나 몸에 걸고 다니기도 하였던 것 같다.

이런 형태와 탄력성을 지닌 고구려 활의 유효사거리는 기록이나 벽화내용을 통해 알 길이 없고 또 고구려 활을 복원하여 시험해 본 예도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만, 국내성과 대성산성의 치와 이 사이의 거리를 통하여 그 유효사거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고구려가 통구평원으로 천도하면서 축성된 국내성은 42개나 되는 치를 가지고 있는데 치와 치사이의 거리가 50~80m로 활의 명중유효 사거리를 잘 타산하여 설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 대성산성의 성벽에도 65개의 치가 평균 109m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출해 낸 수치이기는 하나 고구려 초기의 활의 유효사거리는 대충 50~80m 정도였던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점차 탄력성이 좋은 활이 개발되어 평양천도 무렵에는 벌써 유효사거리 100m 정도의 활이 개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궁술》에 나타난 근대의 각궁의 위력이 대략 100보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유효사거리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백제화살. 청주 신봉동 널무덤에서 출토된 것을 유영기씨가 복원한 것으로 축의 끝이 삼각형이며 넓고 네모난 것과 축의 길이가 긴 것도 보인다. (자료제공:육군박물관)



고구려의 활은 호궁(好弓), 각궁(角弓), 맥궁(貉弓)으로 불렸으며 활의 생명인 탄력성이 우수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활은 공물(貢物)이나 선물로 사용되어 국가간의 선린을 도모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활을 가진 고구려인은 활쏘기에도 능하여 주몽과 평강



왕과 같은 선사자(善射者) 등이 기록에 전하며 더욱 이 중국사료에는 고구려가 궁시에 능하다고 기록할 정도이다. 아직까지 화살대가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화살대의 원상을 실물자료로서 추정·복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벽화 속에 화살대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표현된 예는 각저총의 그림에서 구할 수 있다. 주인공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 탁자 위에 활과 함께 두 개의 화살이 놓여 있다. 화살대의 윗부분에는 착두형철촉이 꼽혀 있으며 뒤편에는 추진을 돕고 목표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깃을 달았다. 깃은 새털로 3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된 듯하다. 벽화의 내용 중에 흰 것과 흑백의 두 종류가 보인다. 깃 아래로 화살대가 계속 뻗어있고 그 말단이 췌기모양으로 처리되어 있어 활시위를 거는 오늬구멍으로 보인다.

화살의 전체 길이는 착두형철촉의 평균 길이로 추정해서 비교해 볼 때 65cm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산의 결과는 옛 기록과 벽화내용 중의 사람의 신체와의 비교에서 나온 계산 결과와도 일치된다. 문헌에는 숙신과 읍루의 화살대가 한자 여덟치라고 쓰여 있으며, 고구려벽화 고분의 활 쏘는 장면을 보면 줍피를 쥔 쪽의 팔을 쭉 펴고 시위(현, 弦)에 건 화살대의 깃을 잡은 손은 그 손쪽에 있는 귀아래까지 닿겨져 있는 상태로 보아 화살대의 길이가 60~70cm라는 계산이 도출되어 있다. 화살대는 선명치는 않으나 그림 속에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옷칠을 한 것이

안악3호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궁수(弓手). 활을 목에 걸고 화살을 담은 화살통이 우리 활과 화살의 역사성을 잘 말해 준다.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유적에서의 출토된 수가 단 1점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의 활은 실물자료와 벽화 문헌을 통해 볼 때 탄력성이 매우 뛰어난 활로서 각궁이 그 대표적인 활이었음이 틀림없다. 활의 전체길이는 대략 90~100cm 정도였을 것으로 계산되며, 활에 쏘는 화살의 길이는 대략 65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과 화살의 길이를 계산하여 볼 때 활을 당겼을 때 만곡되는 길이는 45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활의 유효사거리는

고구려 초·중기에는 약 50~80m 정도였고, 고구려 후기에는 더 탄력성이 나아져 약 100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인은 활쏘기에 매우 능하였음이 기록 속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장려하여 인재등용시 등용기준이 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화살은 길이가 대략 55~60cm 정도로 그 간(幹)은 호시(?矢)로서 간의 위쪽에는 화살촉을 꼽고 아랫부분에는 등간격을 가진 3개의 새깃을 붙였으며 그 조금 아래 말단부분에는 오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활의 제작과 관리

- 가 재료준비
- 나 공구와 용도
- 다 활의 제작과정
- 라 활의 관리방법



여 백

## 2. 활의 제작과 관리

### 가. 재료준비

조선시대 말엽까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활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각궁(角弓) 뿐이다. 부천을 비롯한 경북 예천 등지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

먼저 이 각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살펴보자.

#### (1) 물소뿔

물소뿔은 각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활의 전면에 대는 것으로 탄력성이 강하고 강도가 지속되며 버티어주는 힘이 우수하다. 또한 열을 가하면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므로 작업도 용이하며 쏘는 사람에 따라 강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각궁의 특징을 이루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김박영 선생이  
전수자였던 김기  
원씨와 같이 물  
소뿔을 자르는  
모습. 김기원씨는  
1998년 교통사고  
로 명구제조기법  
을 손에서 놓았  
다.

과거에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태국·대만 등지에서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

표면에 나타난 무늬에 따라 활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데 검은 바탕에 V자형 무늬가 크고 세밀하며 뚜렷이 나타난 것을 상품(上品)으로 삼고 V자형 무늬가 작고 거칠며 흐릿한 것과 흑색만으로 된 것, 무늬가 없는 것들을 하품(下品)으로 삼는다.

## (2) 민어 부레 풀

접착성이 대단히 좋고 어떠한 충격에도 잘 견디어 내며 활을 제작하는 데에는 어느 부분이든 민어부레로 접착을 한다. 관리는 건조하게 보관하면 대단한 강도가 생기고 수용성(水用性)이므로 작업하기도 편리한 이점이 있다.

민어의 허파로 수산시장이나 어촌에서 직접 구입하기도 한다. 일단 구입한 민어는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 부레의 지방질만을 제거하여 끓여서 사용한다.

### (3) 쇠심줄

소 척추 근육과 같이 붙어 있는 등뼈부분에서 뽑아 낸 힘줄로 활의 뒷면에 붙이는 것이다. 신축성이 좋고 대단히 질기고 건조를 하면 탄력이 아주 좋아진다. 특히 살몰이를 하는데 전체재료의 약 50%를 차지하고 점화 처리를 할 경우 원위치에 돌아가는 행동반경이 대단히 크게 되어 탄력이 놓아져 화살을 멀리 보내는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

국내의 각 지방 도살장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

### (4) 대나무

물소뿔과 쇠심줄의 중심부에 사용한다. 통대나무를 쪼개 원형으로 가장자리를 다듬고 안쪽에 X자형으로 칼질을 한다. 탄력성이 우수하며 다른 나무보다 성능이 좋으며 꾸부러졌다가 원위치에 돌아갈 때에도 민첩한 동작을 하여준다.

전남지방에서 생산되며 그중에서도 맹죽(孟竹)이 가장 강하므로 훌륭한 재료로 사용된다.

### (5) 참나무

활의 손잡이인 줌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깊은 산중에 굴참나무



(떡갈나무)가 좋다. 나무가 단단하고 질긴 것이 특징이며 자유롭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도 잘 쪼개어지지 않는다. 활의 중심부에 당기는 힘을 전부 버텨주고 있어 대림목이라 부른다.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 물에 삶거나 불에 구워 알맞게 휘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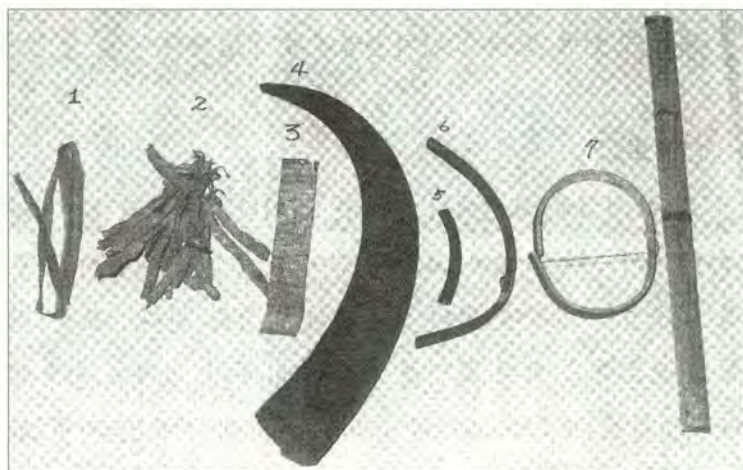
#### (6) 뽕나무

활의 양편 자로 사용하면 다른 나무보다 강유를 겸하고 있고 대단히 질긴 것이 특징이다. 적당한 크기로 납작하게 다듬어진



쇠심을 활 본체에 붙이기 전에 고르게 펴서 다음 작업이 쉽도록 준비해 둔다.

활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를.  
순서대로 쇠심줄,  
민어부레, 화피,  
물소뿔, 참나무,  
대나무.



것을 물에 삶아 알맞게 구부리며 좌우 2개가 필요하다.

재료는 전국일대의 산악지방에서 구입한다.

## (7) 화피

활의 소힘줄 표면에다 붙이는 것이다. 종이와 같이 얇게 벗겨서 사용하는데 고무와 같이 신축성이 대단히 좋으며 내수성이 강하여 활의 방수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뒷심을 보호하고 활의 표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맹물에 삶으면 노란색이 되고 잿물에 삶으면 자색(紫色)이 되며 3개월 이상 햇볕에 말리면 백생이 되므로 제작자나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색을 선택한다.

화피는 함경도 지방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여름철에 함경도 산곡(山谷)에서 장마로 인해 동해에 떠내려 오는 것을 구입하며 간혹 어망(그물)에 매어 있는 것도

있어서 구입한다.

#### (8) 가죽

무력심을 덮는 가죽으로 서피라고도 하며 출전피(쭈피 옆으로 화살 닿는 곳에 붙인 가죽)도 붙인다. 특히 궁현(弓弦)의 심고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는 것이며 도고지(시위에 심고를 맨 부분이 닿는 곳에 붙힌 원형의 가죽)로도 사용한다.

#### (9) 밀(密)

심고와 시위에 칠하면 합사(合糸)가 잘되고 질긴 것이 특징이다.

### 나. 공구와 용도

활을 만드는 공구는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 습도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과학적인 기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공구는 특별한 변화 없이 전통적인 것을 사용한다.

#### (1) 톱

목틀 톱으로써 톱날은 실날 같은 가는 톱으로 끝이 날카로워 물소뿔을 켜는데 아주 좋으며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 등을 켜는데 사용한다. 톱날의 폭이 좁아서 좌우로 마음대로 회전을 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 (2) 환

물소뿔,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 뒤심 등을 깎는 도구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구이다. 특히 각을 다듬는 데는 가장 우수한 공구이다.

## (3) 창칼

모든 재료를 깎고 절단하는 데 사용하며 고지를 깎을 때 많이 사용한다.

## (4) 대나무칼(竹刀)

소심줄과 민어부레를 배합할 때 필요 이상의 풀을 밀어내는 데 사용한다.

## (5) 곱돌도가니

민어부레를 끓이는 데 사용하며 특히 돌로 된 것이어서 열을 가하면 그 열이 장시간 지속되어 응고되지 않는다.

## (6) 궁창

활을 만드는 재료를 둥글게 휘거나 똑바로 펴고 뿔을 재단할 때(즉, 켜 때)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완제된 활을 해궁(解弓)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바 이것은 직선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 (7) 못탕망치

굵은 나무토막으로 되어 있으며 소심줄과 민어부레를 두드려서 보들보들하게 하고 재료를 깎고 다듬을 때 사용한다.

### (8) 뒤집

뿔과 대나무접착(付角)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 또는 철로 되어 있다. 그 형태는 반달형이고 활의 둥근 형태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 (9) 밧줄

부각(付角) 할 때에 사용하며 접착이 잘되도록 단단히 감아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다듬공정 작업을 계속한다.

### (10) 덧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부각(付角) 할



활 제작도구(좌로  
부터 정, 심, 빗  
3점, 심풀빔, 사  
련칼, 창칼, 파끼)

때에 뿔이 갈라지지 않고 접착이 잘되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

### (11) 풀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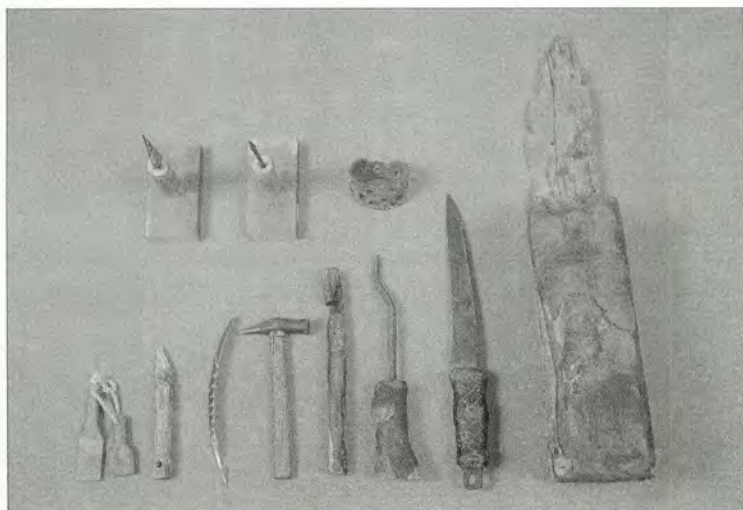
접착제(민어부레)를 칠할 때 사용한다.

### (12) 밀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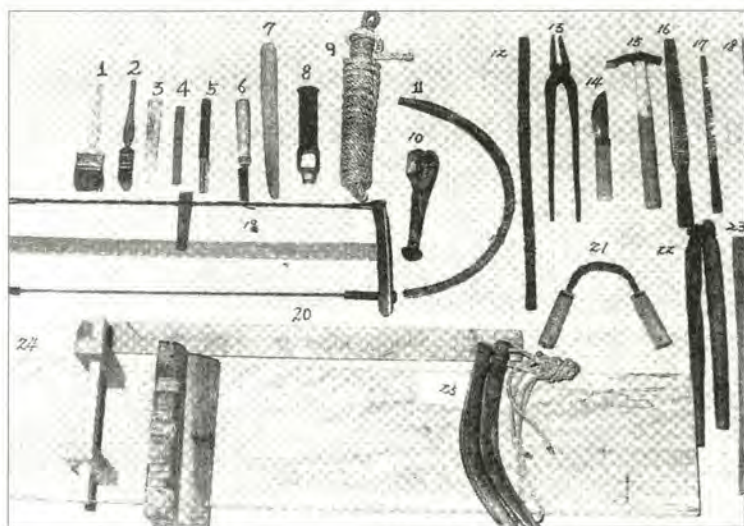
마지막 심을 놓고 뒷심이 건조되었을 때 심판을 곱게 하기 위하여 문지르고 골격을 내는 데 사용한다.

### (13) 심풀 빗

소심줄을 민어부레와 배합하는 데 사용하며 소심줄을 날줄이 되도록 가늘게 찢을 때에도 사용한다.



화살 제작도구.  
오늬칼, 조이개  
(위). 아래 오늬  
환, 망치, 줄대,  
인두, 창칼, 살  
겉치개. (자료제공:  
육군박물관)



활을 제작할 때  
쓰이는 도구들.

#### (14) 심놓이 빗

소심줄(심풀 먹인 것)을 활에다 접착시킬 때 접착이 잘되고 심줄이 똑바르게 펴지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

#### (15) 피끼

활을 만드는 재료를 깎고 다듬는 데 사용하며 고자(도고지로부터 양양고자 끝까지 전체부분을 말함)를 깎을 때 사용한다.

#### (16) 도지개 버침대

완성된 활을 해궁(解弓, 활을 만든 후 양편의 균형을 살피며 빼놓아진 부분을 바로 잡은 다음 시위를 걸고 불에 쪼여 가며 다시 바로 잡은 다음 시위를 풀고 2~3일간 점화 후에 바른가를 확인

하는 작업)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활을 엮을 때 쓰는 보조기구이다.

(17) 화로 · 불집게 · 다리쇠

숯불을 피우고 심농이(付角)를 할 때와 해궁할 때에 사용한다.

(18) 쇠집개, 나무집개

부각(付角)할 때와 각을 바로잡을 때 사용한다.

(19) 사련칼, 사련툼

뿔 대나무, 뿔나무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접착시에 필요 이상의 풀을 밀어 내게 하기 위하여 홈(곡(谷))을 파내는 기구이다.

(20) 사포

활을 완성한 후에 곱게 다듬고 광을 내는 데 사용한다.

(21) 정

각을 다듬는 데에 사용되는 활의 날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일명 뽕찌)

(22) 대패

뿔나무를 다듬을 때와 대나무를 다듬을 때에 사용한다.



### (23) 재(尺)

대나무, 뽕나무, 대림목 등을 재단할 때에 사용한다.

### (24) 전판(심판)

소힘줄과 민어부레를 배합할 때 올리는 판으로 화피(벗나무 껍질)를 할 때에 사용한다.

### (25) 조막손이

소리목이라고도 하며 부각(付角)할 때 밧줄을 감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 다. 활의 제작과정

### (1) 제작에 적절한 시기

활의 제작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이 많으므로 계절이 대단히 중요시 된다.

일년 중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초순까지가 제일 적합한 계절이다.

그 원인은 제궁(製弓)을 하는 데에는 전부 민어부레를 접착제로 사용하고 재료가 모두 동식물성으로 부합되는 것이므로 기온

이 높고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심농이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조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관계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궁(角弓)은 항상 점화 관리를 잘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월~3월 사이에 제작된 활이라야 훌륭한 성능을 가진 활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외 계절에 제작된 제품은 적기에 제작된 것만큼 좋을 수는 없다.

## (2) 재료의 처리 방법

### (가) 물소뿔

- 1) 본래의 뿔을 끝에서부터 가운데(등편과 안쪽)를 중심 길이대로 켜낸다. 이때에 약 3/4이 안쪽(음각)이 되고 1/4이 등쪽이 된다.
- 2) 절반을 갈라놓은 다음 음각은 사용치 않고 등쪽을 활의 넓이에 알맞도록 좌우측을 켜낸다.
- 3) 켜낸 불 중에서(등쪽) 공간이 있는 불필요한 부분(오목한 부분)을 다시 켜낸다.
- 4) 켜낸 뿔을 파끼와 환으로 곱게 다듬는다.
- 5) 다듬어진 뿔은 두께가(중심) 약 1cm, 끝은 0.7cm정도로 맞추어 켜낸다.
- 6) 켜낸 뿔을 톱날 자리를 환으로 곱게 다듬은 다음에 불에 쪼여서 궁창이나 나무집게로 똑바르게 잡는다. 이때에 각(角)

이 뿔에 조금이라도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열을 가하거나 타면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뿔은 불에 쪼이면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쳤다 할 수 있다.

- 7) 똑바르게 편 다음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힌다. 이와 같이 한 다음 냉수에 약 2일쯤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재차 규격에 맞도록 환으로 곱게 다듬는다.
- 8) 다듬어진 뿔은 다시 물에 적시어 똑같은 무늬와 재질을 선별하여 두 개를 1조로 짝을 맞추어 놓는다.
- 9) 사련칼을 사용하여 접착시킬 부분에 흠(谷)을 파내어야 하며 이때에 뿔은 궁창에 끼워놓고 작을 한다. 그리고 완전히 사련을 친후에 깨끗하게 보관한다.

#### (나) 대나무

- 1) 대나무의 중간 매듭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 매듭까지 35~38cm의 길이로 절단한다.
- 2) 대나무의 넓이를 4cm 정도로 쪼개어 낸다.
- 3) 쪼개어낸 대나무의 겉면의 푸른색 껍질(靑皮)을 칼로 긁어낸다.
- 4) 껍질을 벗어낸 다음 자(尺)를 대고 선을 그어 알맞은 폭으로 깎아 낸다.
- 5) 대나무 안쪽은 뽀족하고 날카로운 칼끝으로 심줄을 끊는다. 이때에 X자형으로 전부 금을 그어 놓아야 한다.

물소뿔을 곱게 갈아낸 면을 살 펴보는 김박영 선생. 물소뿔은 활이 탄력을 갖는 데 좋은 재료이다.



- 6) 불에다 구어서 골고루 열을 가한 다음 꾸부렸다 폈다 하여 완전하게 대나무를 풀어야 되며 그 다음 둥글게 원형으로 구부러서 끈으로 퍼지지 않게 잡아 매어둔다.
- 7) 대나무를 불에 쪼일 때 열이 과하여 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나무 안쪽에 X자형으로 심줄을 꿰는 것은 대나무를 둥글게 꾸부릴 때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와 같이 된 대나무를 태양에 1개월 정도 건조하여야 한다.

#### (다) 뿔나무

- 1) 뿔나무를 알맞은 규격대로 잘라서 톱으로 켜내거나 쪼개어 파끼로 다듬고 양면을 대패로 곱게 밀어낸다.(길이 40~45cm, 넓이 3.5cm, 두께 1.5cm 정도)



- 2) 다듬어진 뿔나무를 물에 삶아서 궁창에 넣어서 꾸부린 다음 퍼지지 않게 끈으로 동여맨 후에 태양에 1개월 정도 건조한다.
- 3) 똑바르게 휘어지지 않은 것을 다시 불에 쪼여서 바르게 잡은 다음 자(尺)를 대고 규격대로 선을 그어서 파끼와 환으로 다듬고 연소(대나무와 뿔나무를 연결한 것을 말함)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나무의 색과 무늬에 따라 동질끼리 두 개를 1조로 짝을 지어 둔다.

#### (라) 참나무

- 1) 직경 6cm 정도의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파끼로 곱게 다듬는다.(길이 1m 정도)
- 2) 물에 삶거나 불에 구어서 반월형으로 꾸부린 다음 퍼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1개월 정도 태양에 건조한다.
- 3) 참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규격에 맞게 절단한 다음에 파끼로 다듬는다.(길이 15cm, 넓이 3cm, 두께 2.5~3cm)
- 4) 접착시킬 부분은 환으로 반듯하게 다듬는다. 이때에 대림목이 똑바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완제품이 된 후에도 줌통이 S자 모양으로 되기 쉬우니 주의하여야 한다.
- 5) 참나무는 웅이가 없는 것을 선정해야 하며 되도록 똑바른 것이라야 그 후에 사련칼로 홈을 파내어야 한다.

#### (마) 민어 부레

- 1) 물에 깨끗이 닦은 다음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만약 태양에 건조시키면 자체기름에 절여서 좋은 재료가 되지 못한다.
- 2) 걸음풀은 그대로 보관하고 심농이 풀은 못탕에다 부드럽게 두드려서 보관하다.

#### (바) 소힘줄

- 1) 소힘줄은 기름이 많으므로 기름을 떼어내야 하며 그늘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2) 못탕에 넣고 아주 보들보들하게 될 정도까지 두드린다.
- 3) 두드린 심은 대강 굵게 쪼개서 칼로 껍질과 기름 등을 훑어 내야 한다.
- 4) 손으로 머리카락과 같이 가늘게 쪼갬다.
- 5) 길고 짧은 것을 선별하여 심매(한번 놓는 양)를 지어둔다.

### (3) 제작과정의 부분 명칭

#### (가) 대소풀이

대나무를 쪼개어 다듬은 다음 불에 구어서 구부린 후에 연소를 하도록 준비한 것.

#### (나) 축고지

대나무와 뽕나무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



대나무에 불길을  
가하면서 활의  
본체와 같이 휘  
어지도록 조정하  
는 장면.

아낸 것.

#### (다) 연소

대나무와 뿔나무를 완전히 접착하여서 사련을 치도록 준비한  
것.

#### (라) 상목휘기

통나무를 다듬어서 구부리는 것.

#### (마) 사련친다

뿔, 대나무, 뿔나무, 참나무 등이 접착이 잘되도록 흠을 파내는  
것.

(바) 풀 거른다

접착을 하기 위하여 민어부레를 끓여서 풀물이 나오게 한 다음  
고운체 또는 삼베로 걸러 내는 것.

(사) 부각(付角)

완성된 영소에다 뿔을 접착하는 과정

(아) 뒤깍기

부각(付角)이 끝난 제품을 심놓이를 하기 위하여 뿔, 대나무,  
뽕나무, 대림목 등을 알맞은 두께로 깎아내는 것.

(자) 풀걸음

부각(付角)이나 심놓이를 하기 위하여 풀을 바르는 것.

(차) 심플 먹인다

심놓이를 하기 위하여 소심줄에 민어부레를 배합하는 작업.

(카) 심놓이

소심줄과 민어부레를 완전히 배합한 것을 활에다 접착시키는  
것.

(타) 밀쇠질

최종 심을 놓고 건조한 다음 반질반질하게 하기 위하여 밀쇠로





참나무를 파기로  
다듬어가는 모습.

문지르는 작업.

#### (파) 골격낸다

밀쇠질을 계속하며 활의 목소 뒷심에 가느다란 선을 밀어서 만드는데 작업 과정

#### (하) 점화

심놓이가 끝난 다음 건조시키기 위하여 오래도록 더운 곳에다 보관하고 일정한 열을 가하는 것

#### (거) 고지깎기

점화가 끝난 다음 해궁을 하기 위하여 줄을 걸 수 있도록 활고

지를 깎는 것.

(너) 도지개 친다

해공을 하기 위하여 도지개를 활에 대고 동여매는 것을 말함.

(더) 해궁

활을 시위를 걸어서 양편의 균형이 잘못도록 다듬고 똑바르게 조정하는 것.

(러) 궁창질

활이 똑바르지 않은 곳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궁창에 넣고 바르게 조정하는 것.

(머) 무력심

고지끝(양양고)에 소심줄을 감아서 튼튼하게 하는 것.

(버) 화피단장

완성된 활을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벗을 입히고 미려하게 하는 것.

#### (4) 제작과정

##### (가) 좋은 활의 제작과정에서 유의점

각궁(角弓)의 제작과정을 통해 완성되는데 집중적인 작업기간은 약 4개월이다. 물론 재료를 구하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일년 간의 제작기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작기간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음공정을 진행하므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한계가 있어 아무리 인력과 재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1회 이상 활 제작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도의 집중된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활 제작 기간이 4개월 동안에 약 3천 7백여 회를 상회하는 손실을 거쳐야 하는 대단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때에 소요되는 물을 양으로 생각하면 증발되는 것만으로 20ℓ가 사용되어야 비로소 활이 완성된다. 그런데 우수한 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 재료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정확한 농도의 민어부레 풀로 잘 접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작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양질의 재료 선택과 올바른 재단 및 처리
- 2) 접착제 사용법의 정확성과 부각(付角)할 때 접착에 필요한 풀 이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
- 3) 두깍기의 작업을 세밀하게 해야 하며, 심농이를 할 때에 심

풀 배합이 잘되어야 하고 풀의 농도를 정확히 할 것.

4) 해궁(解弓)을 정확히 할 것.

이상의 몇 가지를 잘 처리함으로써 명궁(名弓)을 만들 수 있다.

## (나) 단계별 공정과정

### 1) 활의 몸체 완성단계

먼저 궁창 위에서 이미 손질된 대나무조각, 뽕나무조각, 물소뿔 등을 붙인 다음 다듬거나 구부리는 연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때 대나무 조각의 한쪽 끝을 V자형으로 도려내고 뽕나무 조각은 한 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풀칠하여 끼우는데 대나무의 V자형을 ‘노루발’ 또는 ‘제비부피’ 라고 부른다.

대나무와 뽕나무의 축고지를 완전하게 정확히 다듬은 다음 풀결음을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에 축고지를 불에다 따끈하게 쪼여서 풀이 누글누글하도록 쪼여야 되며 열기가 식기 전에 물풀을 칠하여 대나무와 뽕나무 축을 맞춘 다음에 끈으로 단단하게 잡아매야 한다. 이 때 옆으로 비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맞추어야 된다.

완전한 연소(대나무와 뽕나무를 연결한 것)가 된 다음에 2~3일간 건조한 다음 대림목을 접착시킬 부분인 대나무 중심 웅이의 안쪽을 파끼로 깎아내고 환으로 반듯하게 다듬는다.

이 때의 대림목 접착부분의 길이는 대림목보다 약간 길게(2cm 정도) 깎아낸 다음 대소의 동편(부각(付角)할 자리)은 환으로 대나무결과 같이 길게 다듬어서 대림자리와 함께 사련을 친다.



이와 같이 하여서 사련을 끝낸 각(角)과 대소, 대림목 등을 풀  
걸음을 시작하는데 풀걸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상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어부레를 깨끗이 닦은 다음 뜨거운 물에다 3~4회 씻은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어서 끓이는 동안에 민어부레는 자연히 풀  
물이 올라나게 된다. 또한 끓는 동안 거품과 기름기 등의 은 전부  
위로 떠오른다. 그러면 이러한 불순물을 전부 건어내면서 끓인  
다. 완전히 끓인 다음 삼베보자기 또는 구멍이 아주 작은 체 등을  
이용하여 풀물을 걸러낸 다음 풀걸음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 풀  
을 끓일 때에 절대로 풀물이 도가니에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풀물이 타버리는 경우 접착력이 아주 약해지므로 절대로  
주의하여야 하며 풀걸음하는 장소는 먼지가 없이 깨끗하고 실내  
(작업장) 기온이 25도~30도 정도의 온도에서 뽕, 대나무, 상목  
(桑木), 대림목 등이 따뜻한 열기가 올랐을 때 풀걸음을 한다. 처  
음에는 물풀(농도가 아주 얇게 냉수와 같이)을 바르는데 1회 때에  
는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업장 내의 온도가  
낮으면 풀이 건조되기 전에 응고가 되어서 불량품이 되기 쉬우므  
로 실내 온도에 주의를 하여야 좋다. 특히 풀걸음을 할 때에는 깨  
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이 때에 기  
름(油)기는 금물이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 풀물이나 또는 재료인 나무에 기름기가 묻으면 접착력이  
양화되므로 특히 주의할 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묶게 바르기 시작하여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풀물의 농도가 짙어진다. 이 때에 한번 바른 다음 완전히 건조된 후에 다시 발라야 한다. 풀결음 하는 회수는 20~25회 정도로 사런 자리가 풀물에 덮여서 보이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다. 풀결음이 끝나면 작업장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굳도록 한다.

## 2) 물소뿔 붙이기

뒤집을 연소 뒤에 대고 시침 노끈으로 꼭 잡아 묶은 다음 대림 자리에 반질반질한 종이를 댈다. 이 종이는 부각(付角)할 때에 대림자리가 뒤집에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뿔을 불에 쪼여서 완전히 열을 받은 다음 둥글게 꾸부린 후 연소와 뿔에 풀물을 골고루 잘 바른 다음에 노끈으로 뒤집과 연소와 뿔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동여매야 한다.

이와 같이 묶은 것을 다시 불에 쪼인 다음 (부각(付角)을 할 때 뿔을 불에 쪼일 경우 열이 과하여 풀이 부풀으면 불량품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죄집계로 골고루 2~3회 집어 준다. 이것은 뿔, 연소, 뒤집 특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접착이 잘되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다. 그 다음 대소와 뿔 사이에 풀물을 다시 한번 발라준 다음 조막손으로 빗줄을 감는데 압력을 가하면서 감아야 한다. 부각(付角)을 하는 도중 뿔에 열기가 식으면 접착이 잘 안되므로 빗줄을 감는 도중 2회 정도 불에 쪼여서 감아야 한다. 이 때에 덧피를 뿔 위에도 길이대로 얹어대고 빗줄을 감는다. 덧피를 사용하는 것은 각(角)의 잔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접착

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한편을 먼저 접착한 다음 5~6시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접착이 된다. 이 때 접착할 때 온도는 18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 다음 밧줄을 풀어내고 다른 한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착을 한다.

다음에 대림목을 접착하는데 이것도 불에 쪼여서 접착하는데 뿔을 접착하는 방법과 동일하나 뒤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각(付角)이나 대림목을 접착할 때 양 편에 풀결음 한 것이 옆으로 약간씩(수수알 크기정도) 밀려 나오도록 밧줄을 감아야 한다. 그 다음 양 쪽 뿔끝 사이에 뿔(角)을 꼭 맞게 잘라서 불에 구어서 풀물을 칠하여 끼우고 집게로 꼭 집어서 끼워야 된다. 이것을 동작 넣는다고 한다. 제작과정에서 부각(付角)을 끝내면 전체의 50%의 작업이 끝난 셈이다.

### 3) 뒤깎기 하기

부각(付角)한 반제품을 다듬는 것이 뒤깎기인데 먼저 피끼로 전 심자리를 깎고 안쪽에 뿔나무, 대나무, 참나무 등을 얇게 알맞은 두께로 깎아내고 환으로 고르게 다듬고 양편 고지를 마주 대고 철사나 노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사련 톱날로 뒤깎은 부분에(角을 제외한 부분) 사련을 친다.

그 다음 뒤 풀결음을 하는데 이 때에 고지 등편만 남기고 전부 풀결음을 하는데 그 방법은 부각(付角) 풀결음과 동일하며 그 횟수는 15~20회 정도이고, 풀결음시 뿔(角) 등쪽에 풀을 바르는 것은 심놓이를 끝내고 해궁(解弓)을 하기 위하여 점화를 넣으면 뒷



심이 건조되면서 조여들기 때문에 뿔(角)에 선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풀을 바르는 것이다.

#### 4) 심놓이

심놓이는 소힘줄을 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뒤깎기 작업이 끝난 다음 양쪽 고자를 철줄로 잡아매어 고정시킨 다음 4회에 걸쳐 심놓이를 시작한다.

##### 가) 심놓이의 종류

- a. 초벌심 : 고지 끝에서 대림목 중간까지 지나가는 심을 말함.
- b. 두벌심 · 세벌심 : 정탈목에서 대림목 중간까지 가는 심
- c. 줌통심 : 줌통에서 양편 오금까지 가는 심
- d. 막심 : 고지 끈에서 줌통 중간을 약간 지나가는 심

##### 나) 심놓이 순서

줌가리쇠 → 초벌 → 줌가리 → 두벌 → 세벌 → 바침심(고임심) → 막심

##### 다) 심풀만들기

이미 보들보들하게 두드려 놓은 민어 부레를 5도쯤 되는 냉수에 2~3일쯤 담가 두면 부레가 부풀어져 백색(白色)에 가까운 정도로 희게 된다.

완전히 불은 부레를 건져서 3~4회 정도 깨끗하게 빨아낸 후에 도가니에 넣고 끓인다. 그런 다음 방망이로 곱게 절구질을 한 후 풀이 곱게 되었나 확인하고 완전히 냉각되면 3~4cm 정도로 잘라서 건조되지 않게 물수건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이 때에 풀이 냉각되어 응고되면 도토리묵과 같이 된다.



#### 라) 심농이

이미 마려된 심가리를 따뜻한 물에(30~35도) 4~5회 깨끗하게 빨아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에 물을 꼭 짜야 하며 심풀을 배합하기 위해서 심 오라기가 빠지지 않도록 심줄의 중간을 단단하게 감아서 물수건으로 덮어 둔다.

심풀을 도가니에 넣고 화롯불 위에다 올려놓고 따끈따끈하게 열을 가하면 풀은 다시 녹아서 사용하기 좋게 된다.

마려된 심줄을 전판(심판) 위에 얹어 놓고 풀을 배합하는데 이때 작업장의 온도가 25~30도 쯤 유지되어야 작업이 용이하다. 심줄에 풀을 얹어서 심풀빔으로 썰새없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비벼댄다. 이 때에 풀이 식으면 응고되어 배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불에 쪼여 가면서 작업을 계속한다.

심한 가리를 배합하는데 기간은 약 25~30분이 소요되며 심줄에 풀이 잘 배합이 된 다음빔으로 빔겨서 심줄 오라기가 엉켜진 것을 똑바르게 펴놓고 대칼로 풀을 밀어 낸다. 이와 같이 대칼질을 5~10여회 하여서 필요 이상의 풀을 전부 밀어낸다. 이것을 10도 정도의 기온에서 20~30분이 경과하면 뻣뻣하게 응고가 된다. 그 후에 손잡았던 부분(단단히 감아 놓은 부분)은 앞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

양편이 완전히 배합된 심가리를 활에다 점착시켜야 하는 바 점착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상세히 표기하여 본다. 밀폐된 작업장이어야 하며 작업장 내의 온도는 30~35도 쯤 유지되어야 하며 심농기를 하기 위하여 활의 대소를 풀이 부풀지 않을 정도로 따

활을 부리기 전  
완전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심  
한 감각이 필요  
하다. 김박영 선  
생이 활의 모양  
새를 살펴보는  
모습.



끈따끈하게 불에 쪼인 다음 이미 마려된 심가리를 붙이고 손가락에 더운물을 적시어 심줄을 골고루 문지르면 심가리가 녹아서 접착이 어느 정도 되어간다. 이 때에 다시 불에다 따뜻하게 쪼여서 심가리가 완전히 누굴누굴 하여지면 심빚으로 빚질을 하되 배합된 심줄에 공기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심오라기가 엉키거나 한편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때 사용되는 풀은 부각(付角)의 결음풀이 부레를 끓여서 물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심농이 풀은 부레를 즙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심농이를 하는데 작업장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마지막 심을 놓고서 어느 정도 건조되면 도토리묵과 같은 색으로 변화된다. 이 때에 밀쇠를 사용하여 뒷심을 곱게 밀



활의 시위를 엮으며 균형을 잡는 김박영 선생. 눈짐작이지만 김박영 선생의 균형 감각이 자로 잰 듯 정확하다.

어 대고 골격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심농이가 끝나면 20일 쯤 지난 후에 마주 잡아 맨 고지를 풀어서 25~30도 이내에서 약 20일간 건조시킨다. 이것을 점화(点火)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때에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점화(点火)과정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5) 해궁(解弓)단계

이상으로 활의 몸체가 완성되면 해궁을 하는데, 이는 수요자의 체력에 알맞게 강하고 연하게 조절하고 활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점화(点火)가 완전히 끝난 다음 고지를 깎는데 고지 바닥과 고지 등을 반듯하게 깎아야 하여 만약 고지가 잘못 깎아지면 활의



형태가 바르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해궁방법은 활을 받침대에 끼워놓고 뿔 등을 고르게 잘 다듬은 다음 도지개를 잡아매고 궁현(弓弦)을 건 후(起弓) 도지개를 풀어 내고 활의 틀어진 곳과 삼동을 불에 쪼여서 바르게 잡는다.

완전히 활이 틀어진 곳이 없도록 되었는가 확인한 다음 양편의 균형이 잘 맞도록 오금을 낸다. 이와 같이 해궁(解弓)을 3~4차 거듭한 다음 뿔부분을 줄로 고르게 다듬고 줄자리를 없애기 위하여 칼로 뿔을 긁어낸 다음 사포로 곱게 다듬고 닦아낸다.

그런 다음 고지를 깨끗하게 사포로 닦아 내고 무력심을 감는다. 무력심이 건조되면 서피를 싸고 도고지를 붙이고 화피단장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쯔피를 붙이고 현을 만들면 모든 제작 과정이 끝나게 된다.

## 라. 활의 관리방법

### (1) 각궁의 점화(点火) 관리방법

각궁(角弓)은 재료 자체가 전부 동식물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항상 습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인 점화가 꼭 필요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대기권 내에 습기가 많으므로 접착부분이 떨어져 활의 탄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





전통 명궁을 만  
들기 위해 열을  
가하면서 활의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

는 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재료 자체가 기온과 습기에 그 성질의 변화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잘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활의 수명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각궁은 점화가 필요하며 점화(点火)란 습기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을 따뜻하고 건조한 곳, 즉 점화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항상 밀폐된 점화장 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점화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가을에는 4시간~7시간, 여름철에는 7시간~10시간, 겨울철에는 2시간~3시간(단,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계속)을 두는 것이 좋는데 이 때 온도는 27~34도가 적당하다. 이 때 점화장의 온도는 약하게 오래도록 두는 것이 더욱 좋으며 강하게 짧게 두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잠깐씩 꺼내어 냉각 시켰다가 다시 넣는 것도 좋은 관리 방법이다.

점화장의 장치는 온돌방에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케 하여 점화 관리도 할 수 있으며, 합판이나 송판으로 장사를 만들어 전구를 비치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케 하는 것도 이상적이다. 여기서 점화장의 크기는 활의 수에 따라서 상자의 크기를 정하면 된다.

연료 사용 중 가스가 분출되거나 약간의 습기가 내포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각궁을 일으킬 때 주의할 점

각궁을 일으킨다는 것은 활을 사용할 때는 시위를 걸어서 사용하지만 평소에 보관을 할 경우 시위를 걸지 않고 둥근 모양의 본체만으로 두게 된다. 여기서 활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활 몸체에 시위를 거는 것을 말한다. 활을 일으킬 때는 우선 보관 중인 활을 점화장에서 꺼내 완전히 식혀야 한다.

활을 일으킬 때 모래, 흙, 등의 물질이 활궁 뒷심부에 닿지 않도록 방석이나 궁대 등을 깔아야 한다.

활을 일으킬 때에는 양편 고지를 꼭 잡고 일으킬 것이며 놓치거나 옆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편 오금이 더 휘거나 덜 휘거나 하지 않게 똑같이 구부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시위를 얹은 다음 양편 목소의 삼삼이 부분을 단

단히 잡고, 줌통과 양편 목소가 올라서지 않도록 평평하게 낮추어야 하는데, 이때에 낮출 부분을 37도 정도의 온도로 따뜻하게 불에 쪼인 다음 낮추어야 된다.

일으킨 활이 똑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부분에 열을 가하여 바르게 조정해야 하며, 똑바르다고 생각되면 궁대를 감아서 어느 한편으로 물리지 않도록 한다. 일으킨 활이 완전히 식은 다음 궁대를 풀어서 2~3회 당겨 보아서 똑바로 상하 고지가 바르게 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활을 일으키기 전에는 활의 뿔이나 뒤의 힘줄 부분을 불에 쪼이지 말 것이며, 이것은 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가) 활이 뒤집히는 경우

- 1) 상(上), 하(下) 장이 바르지 않고 좌우로 틀어졌을 때
- 2) 상(上), 하(下)로 물렸을 때
- 3) 줌통이 좌우로 나가거나 들어갔을 때, 또는 점화 부족일 때
- 4) 삼동(줌통과 양쪽 목소 부분)이 많이 올라섰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상의 등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단히 표현하여 활이 태평궁(太平弓: 활을 엮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물리지 않고 활의 전반적인 균형이 잘 잡힌 활)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 (3) 묵은 활에 대한 부천 제궁가(製弓家)의 의견

일반적으로 흔히 활은 오래 묵어야 좋고 삼동의 올라와야 좋은 활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라고 생각하며 제궁가(製弓家)로서, 한편으로 활을 쏘는 사람으로서 심중히 연구하고 실습을 거듭한 결과 이 모든 것이 제작상 기능의 차이점인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장장 4개월여를 거쳐 제작된 활인데 활은 원칙적으로 제작이 끝나면 점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고지를 깔고 다듬은 다음에 해궁(解弓)을 하게 되는 것이며, 물활이란 용어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활에 습기만 있어도 활시위를 엮지 못한다는 것은 활을 쏘는 사원(射員)이면 모두 아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하거늘 어떻게 해궁(解弓)을 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건조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며 6~7개월, 1년, 나아가서는 그 이상을 묵혀 두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활이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활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점화 관계상 건·습하므로 이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이 모든 허황된 설은 예부터 제작상 기능의 차이점을 두고 현대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될 뿐 절대로 활은 오래 묵히면 기온과 건습의 악영향으로 절대 유익하지 못함을 밝힌다.

오래 묵은 활일수록 살물이를 잘하고 수명이 길다고 하는 등등의 비과학적인 상식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부 제작상의 미비한 부실로 인한 기능의 차이점에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각궁(角弓)을 사용하는 데에는 활살의 길이가 2尺 6寸 5分이 제일 적합하고 그 이상의 길이는 무리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상의 길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 자체의 길이가 다소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궁도(弓道)

- 가 우리 궁도의 전개과정
  - 나 궁체의 종별
  - 다 초보자의 수련
- 라 활쏘기의 마음가짐과 예절

여 백

### 3. 궁도(弓道)

#### 가. 우리 궁도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부터 활쏘기를 대중화된 무예로서 권장해 왔고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왕조가 국방무예로 발전시켜 왔다.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면 궁도(弓道)는 국민의 필수적인 교육과목으로, 혹은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으로, 또는 국민을 훈련시키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어 활을 쏘는 풍속은 국가적으로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백제의 “비류왕(比流王) 17년(320년) 가을에 궁의 서쪽에 사대(射臺)를 세우고 매월 삭망(朔望: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의 신당서(新唐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당에서도 “경(經)을 읽고 활쏘기 연습을 하게 했다”고 한다. 물론 신라에서도 예외



없이 관리등용에 활쏘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고려에서도 왕이 친히 나와 병사들의 활쏘기를 구경하면서 장려하였다.

사서(史書)에 의하면 조선 개국 이래 태조 6년(1397년)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사인소(舍人所)를 두고 여기에 경학(經學)과 병학(兵學)·율학(律學)·수학(數學) 그리고 의(醫)와 사(射)의 육학교도관(六學敎導官)을 설치, 인재양성을 꾀하였다. 이 때 6학에 대해 각각 호(號)를 정하였는데, 의는 제생(濟生)이라고 했고 사, 즉 활쏘기는 관덕(觀德)이라고 했다.

그 후 태종 8년(1408년)에 와서는 과거 시험에 무과도 치르게 되어 육예(六藝)의 하나로 '군자필사호(君子必射乎)'라 하여 활쏘는 솜씨를 겨루게 되었다.

이래서 활쏘기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고 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 전통이 전수되어 내려왔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병의 조총에 맞서 조선 활의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오경장(1894년)으로 활이 군대의 무기에서 제외되자 활쏘기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1899년에 이르러 황학정(黃鶴亭)이 경희궁 안에 설립됨으로써 폐쇄됐던 전국의 사정(射亭)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지만 그 세력은 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그러나 1908년에는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활쏘기의 대중화가 다시 시도되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무관학교장이던 이희두

(李熙斗)와 학무국장인 윤치오(尹致昨)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일반국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종기계체육부(武從機械體育部)'라는 것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서 활쏘기를 한 것이 근대 스포츠 활동으로서는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로서는 다음해인 1909년 7월 동대문 밖 자지동(紫芝洞: 지금의 창신동)에서 이상필(李相弼)과 이용문(李容紋) 등 여러 사람이 '사궁회'를 조직하고 많은 동호인을 모아 활쏘기를 즐겼었다.

당시 이들이 목적인 활쏘기는 보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쏘기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맞지 아니하고 맞지 않으면 자신을 책하게 되므로 군자지도”라 하여 심적 정신적 수양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궁도인들이 집궁 원칙으로 ‘발이부중(發而不中)·반구제기(反求諸己)’를 강조하고 있고, 또 공자님의 말씀인 “활쏘기는 인(仁)을 닦는 길이니 활을 쏘는 것은 자신에게서 바른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진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쏘기를 근대 스포츠 활동으로 보급하려던 당시의 노력은 대중화에는 실패하게 되어 사정(射亭) 중심의 활쏘기만이 그 후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민족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식민지 탄압과 당시의 경제 사정으로는 부유층이 아니면 활을 쏠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장애였다.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정신과 전통을 말살하기에 혈안이 된

일제 식민지 정책의 암울한 시기에도 우리 민족전통의 사풍(射風)을 계승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 궁도인들은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었다.

1922년 7월 우리 황학정이 중심이 되어 '조선궁술연구회'가 조직되어 서울과 지방 각지의 궁도인들을 규합, 우리 활의 보급과 사풍 전수에 전력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조선궁술연구회'가 1929년에 발간한 《조선의 궁술》은 우리 활에 대한 최초의 종합서적으로서 전통사풍을 후대인들에게 전해준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의 궁도가 크게 활기를 되찾게 되고 국궁의 터전을 바탕으로 보급된 양궁이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활쏘기 문화를 끈질기게 유지 발전시키고자 애써온 궁도인들의 정신과 혼이 이룩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 나. 궁체(弓體)의 종별(種別)

사람에 따라 활을 왼손과 오른 손으로 각각 따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왼손으로 활을 잡는 것을 우궁(右弓)이라 하고, 오른 손으로 잡는 것을 좌궁(左弓)이라 하여 좌·우궁을 구별한다.

먼저 신체의 각 부분이 활을 쏘는데 어떤 자세와 요령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자.

### (1) 몸(身體)

몸은 곧은 자세로 과녁과 정면으로 향하여 선다. 속담에 “과녁이 이마 바로 선다”함은 이를 이르는 말이다.

### (2) 발(足)

발은 정자(丁字)도 팔자(八字)도 아닌 모양으로 벌려 서되 과녁의 좌우 아래 끝을 바로 향하여 서고, 발끝이 항상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몸 전체의 중량이 앞과 뒤의 두발에 고루 실리도록 하면서 서야 한다.

### (3) 불거름(방광:膀胱)

불거름은 될 수 있는 대로 팽팽하게 해야 한다. 만일 팽팽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엉덩이가 뒤로 빠져 균형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면 불거름은 자연히 팽팽해진다.

### (4) 가슴통(흉격:胸膈)

가슴통은 다 비어 허(虛)해야 하며 배거나(實: 배다는 말은 가슴이 튀어 나온 것을 말함) 버스러지면(버스러진다는 말은 가슴이 틀어지는 것을 말함) 안 된다. 만일 선천적인 체형으로 인하여 가슴이 나와 쌍현(雙弦: 쌍현이 진다는 말은 활을 끌 때 시위가 가슴에 닿는 것을 말함)이 지는 때에는 활의 고자를 줄이든지 시위를 팽팽히 하면 되지만(고자를 줄이거나 시위통을 줄이면 살이



떨 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離箭)할 때 즉, 각지손을 시위에  
서 놓을 때 기운과 숨을 마시면서 방사(放射)하면 자연적으로 가  
슴이 비게 마련이니 쌍현지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든지 이전(離箭)할 때에 숨을 마시면서 방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다.

#### (5) 턱끝(함:함)

턱끝은 되도록 죽머리(활 잡은 손의 어깨) 가까이 묻되 혹시 들  
리거나 돌리거나 하면 옷동(옷동아리: 몸통의 허리 윗부분으로  
주로 어깨사이)이 흐트러져 버리고 화실이 바로 빠지지 못하니  
이러한 폐단(弊端)을 고치는 법은 되도록 힘이 미치는 데까지 목  
덜미를 들이면서 턱을 묻으면 저절로 죽머리에 가까이 묻어진다.

#### (6) 목덜미(정:頂)

목덜미는 항상 팽팽하게 늘일 것이요 오므리거나 구부러서는  
안 된다.

#### (7) 줍손(파수:弮手)

활을 잡은 손을 줍손이라 하는데 줍손을 하삼지(下三指: 엄지  
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을 말하는데 강궁(強弓)을 쏘  
는 경우 흘러서 잡을 수가 없으므로 활은 항상 자기 힘에 맞는 무  
른 활을 쏘아야 한다)를 흘러서 쥐고 반바닥(엄지손가락이 박힌  
뿌리)과 등힘(활 잡은 손목으로부터 어깨까지 손등과 팔등의 힘

이 균일하게 뻗는 것)으로 같이 밀며 범아귀(쭈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는 다물고 복전(식지절근(食指節根): 식지의 첫째와 가운데 마디)은 높고 엄지손가락은 낮아야 한다. 만일 삼지(三指)가 풀리고 옷아귀(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뿌리가 닿는 곳)를 아래로 내리면 살이 덜 간다.

쭈을 들어 제켜 쥐고 등힘이 꺾인 것을 일러 ‘흙받기 쭈’이라 하는데(주로 활이 강할 경우 생기는 현상) 이러한 쭈은 항상 들맞게 되어(활이 들맞는다는 것은 우궁의 경우 시위를 당겼다 놓으면 시위가 도고지 중앙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도고지 왼편쪽을 치는 것을 말하며 오른편쪽을 치는 것을 다맞는다고 한다) 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는 쭈을 다시 고쳐 쥐어야 하는데 고치는 법은 첫째 활을 무르게 하여 가지고 앞으로 빼면서 바로 쥐도록 할 것이요, 둘째는 장지손가락 솟은 뼈를 과녁을 향하여 밀고 쏘는 법이 곧 그것이다.

#### (8) 각지손

각지(角指)를 끼고 시위를 끄는 손을 각지손이라 하는데 각지손은 다섯 손가락 전체로 쥐거나 세 손가락(엄지, 검지, 장지)으로 쥐어 중구미(활을 잡은 손의 팔꿈치)와 등힘으로 당기면서 방전(放箭: 화살을 내보냄)을 힘차게 해야 한다. 만일 외가락(엄지와 검지)으로 쥐게 되면 뒤가 부실해진다. 또 팔꿈치를 흠쳐 끼고 팔회목(팔목의 잘록한 부분)으로만 당기는 것을 ‘채찍뒤’라 하는데 이런 경우 중구미를 들어서 구미로 끌되 각지손의 등힘으로

당겨야 한다.

각지손을 뒤로 내지 못하고 버리기만 하는 것을 ‘봉뒤’라 하며, ‘봉뒤’로 버리고 살이 빠진 뒤에 다시 내는 것을 ‘두벌뒤’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만족하게 끌어 각지손이 저절로 벗겨지도록 당기는 것이 좋다.

#### (9) 죽머리(견박:肩膊)

죽머리는 바짝 붙여서 턱과 가까운 것이 좋다. 멀리 붙게 되면 죽이 헛 걸리게 되어 흔들거리거나 죽이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죽에는 앞을 반반히 밀어두고 뒤를 연하게 내어야 한다. 바짝 붙은 죽에 중구미가 업히기는 하여도 늘어진 경우에는 각지손을 되도록 높이 끌어 만족하게 잡아 당겨야 적합하다.

#### (10) 중구미(주, 비절:肘, 臂節)

중구미는 필히 업히어야(중구미가 업힌다는 말은 줌손의 팔이 모로 세워지고 팔의 오금 방향이 (우궁의 경우) 우측 측면보다 약간 아래로 향한 경우) 하는데 중구미가 젖혀진 죽을 ‘봉어죽’이라 하고, 젖혀지지 않고 업시지도 않은 죽을 ‘얹은 죽’이라 한다. 이러한 죽은 모두 이상적인 죽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죽은 되도록 무르게 쏘아야 할 것이며 줌통을 평평하게 하여 연하게 뒤를 내어야 한다.

중구미가 업히는 때에는 각지손을 힘 있게 내어야 한다. 즉, 앞이 둥글고 죽머리가 턱에 바짝 붙었으며 중머리가 업힌 경우에는

각지손을 턱 밑으로 바짝 짜서 뒤를 충분히 당겨야 한다. 만약 중구미는 둥글지만 죽이 멀리 붙거나 구미가 업히지 않은 경우에는 뒤를 바짝 끌어 연하게 내어야 한다.

#### (11) 등힘(파수배력, 자박지원지력: 弮手背力, 自膊至腕之力)

등힘은 줌손 외부에서 생기는 힘이니 되도록 팽팽하게 일직선으로 밀어야 한다. 그러므로 줌손이 꺾이면 팽팽한 일직선의 힘을 낼 수 없다.

### 다. 초보자(신사: 新射)의 수련

#### (1) 활쏘기 자세

좌·우궁을 막론하고 과녁 아래 끝을 정면으로 향하여 두발을 비정비팔(非丁非八)로 벌려 선다. 이 때 얼굴과 이마도 과녁과 정면으로 향한다. 줌을 이마와 일직선으로 들고 각지손의 중구미를 추켜들어 각지손을 높이 끌면서 만족하게 당기되 뒤를 힘차게 낼 것이다. 눈으로 과녁을 겨냥하되 활 아래 양냥고자와 수평선이 되게 볼 것이다. 양냥고자와 수평선이 되게 보라는 말은 활을 선택할 때 되도록 무른 활을 선택하여 양냥고자와 일직선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만족하게 끌어당기라는 의미이다. 턱을 줌 팔 저드랑이 아래까지 끌어 들일 정도로 묻어야 한다. 그리고 활



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춤에 힘이 들어가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기 어렵다. 이것은 활을 거들 때 앞 춤에 힘이 들어가면 만작(滿作: 시위를 완전히 끌어당김)하여 방사(放射)할 때 춤의 힘이 다하여 불리거나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활을 거들 때에는 필히 앞춤을 풀어 두고 가볍게 끌어 당겨 만작(滿作)될 때 힘을 주어야 춤손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활을 쏠 때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 된다.

화살이 한배(화살이 제 턱에 가는 것, 즉 좌우측의 편차와는 관계없이 과녁이 서 있는 곳까지 화살이 가는 것)를 얻어야 과녁에 적중을 많이 한다. 한배를 얻으려면 각지손을 높이 끄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각지손이 낮으면 비록 살고(화살이 떠가는 높이)가 낮게 뜬다 하여도 영축(零縮: 화살이 더 가고 덜 가는 것, 영축이 많다는 것은 화살의 가는 거리가 일정치 않음을 말함)이 많아서 적중시키기가 어렵다.

## (2) 활을 거들 때 자세

활을 거들 때 춤손을 우궁은 오른편 눈과, 좌궁은 외편 눈 정면 높이까지 바로 들어 끄는 것이 앞죽을 싸서 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니 않으면 춤손이 빠지거나 쪽활(춤손이 바깥쪽, 즉 춤 뒤로 나가는 것)이 되기 쉽다.

화살이 나갈 때는 반드시 가슴통이 벌어지면서 방사(放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줌손과 각지손의 두 끝으로 방사(放射)가 되어 좋지 않다.

방사(放射)한 후에는 웃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줌손과 활장을 불거름의 위치로 서서히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줌손을 등힘으로 밀어야 그렇게 된다. 또한 이렇게 해야 살이 줌뒤로 써서 들어와 맞게 되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살이 만작(滿作)되어 방사(放射)할 순간에는 조금씩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방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작하여 잔뜩 멈추었다가 방사하게 되면 각지손이 팔려 들어가면서 방사되기가 쉬우므로 좋지 않다.

활을 거들 때는 앞과 뒤를 높이 치켜드는 것이 좋다. 만일 앞줄을 내려 밀고 뒤를 낮추어 당기면 살줄이 낮아지고 영축이 많이 나서 과녁에 적중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년(老年)에 이르러 활을 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 (3) 방사(放射)하는 자세

(가) 방사(放射)할 때 화살깃(전우: 箭羽)이 줌손 엄지손가락을 훑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방사(放射)할 때에 줌손을 훑어 쥐거나, 낮게 끌거나, 셋째 시위에 절피를 낮게 감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첫째 줌손을 주의하여 활을 무르게 쏘되 하삼지(下三指)를 거들쳐 쥐고 방사(放射)한 후에라도 앞을 들어 주는 것이

훔쳐 쥐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요, 둘째 각지손을 높여 끄는 것이 묘방(妙方)이요, 셋째는 절피를 살피 낮게 감겼으면 높게 감는 것이 훔고 나가는 것을 고치는 묘법(妙法)이다.

(나) 이때에 시위가 줍팔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줍손을 제켜 쥐거나, 둘째 뒤(각지손)는 무르고 앞(줍손)을 세게 밀거나, 셋째 시위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는 방법은 첫째 줍손을 빼서 질 것이요, 둘째 앞을 버티면서 뒤를 힘 있게 당겨 저절로 벗어지도록 할 것이요, 셋째는 시위를 알맞게 줄이는 것이다.

(다) 방사(放射)할 때에 시위가 뺨을 치거나 귀를 치는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는 턱을 줍머리 가까이 묻으면 된다.

(라) 활은 되도록 힘에 무른 듯한 것으로 쏘아야 한다. 왜냐하면 힘에 부치는 활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마) 활의 대림이 너무 구부러져 올라와 알춤(대림)이 딱 받치면 쏘기에 불편하며 아귀가 부실해도 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귀는 되도록 적당히 구부러져 방사(放射)할 때 편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바) 활의 고자를 주의하되 너무 휘어져 있으면 활을 당길 때

헛힘이 들어 쏘기가 어렵고 고자가 뻗어 있으면 철썩거린다. 그러므로 정탈목은 굽은 듯하고 고자앞은 뻗은 듯해야 쏘는데 편리하다.

(사) 시위는 활의 힘에 따라서 적당히 맞추어야 하는데 앞이 둥글고 뒤를 바짝 당기는 경우는 시위가 팽팽한 듯해야 한다. 앞이 늘어진 줌에 뒤를 많이 당길 때에는 시위가 느슨한 듯해야 적당하다. 팔이 길고 활을 많이 당길 경우 시위가 팽팽하면 활이 뻑뻑해지고 앞이 둥글거나 뒤를 바짝 끄는 경우에 시위가 길면 철렁거린다.

(아) 활이 후궁(弓侯弓: 삼삼이로부터 도고지까지 뿔나무를 써서 만든 활)이면 화살이 영축(零縮)이 덜하고, 장궁(長弓: 각궁(角弓)을 한가지로 도고지 밑까지 뿔을 댄)이면 영축(零縮)이 많은데 이것은 후궁(弓侯弓)은 방사(放射)할 때에 당기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고 장궁(長弓)은 균일치 못한 폐가 있기 때문이다.

(자) 쏘는 활의 힘에 비하여 화살이 굵으면 줌 앞으로 가고 늘면 줌 뒤로 간다. 줌 앞가는 화살은 쏘는 법에 이롭지 못한 즉 이로 인해 줌 앞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쪽으로 줌을 빼면서 끌기도 하고 줌손 엄지손가락을 들어 밀기도 하며 덜 잡아당기는 폐단이 생긴다. 줌 뒤로 가는 화살은 줌 앞으로 가는 화살에 비해 다소 이로운 편이나 이는 화살이 줌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감싸 저들기도 하고 줌손을 등힘으로 밀기도 하며 뒤를 만족하게 끌어당기기도 하므로 좋은 습관이 길러진다.

(차) 방사(放射)하기 전에 낙전(落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줄에 힘이 들어가거나 앞이 빠지거나 각지손을 꺾서 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첫째 앞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둘째 줌손과 각지손을 등힘으로 밀어 짜서 끌며, 셋째 각지손으로 화살의 오늬를 꺾서 쥐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없어진다.

(카) 정순(正巡)을 쏘 때 매번 상기(上氣)되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 방사(放射)할 때 만족하게 끌어당기지 못한다. 때문에 되도록 흥분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만족하게 끌어당기도록 한다.

(타) 화살은 5개 중 가벼운 것으로 1자대를 정해야 한다. 이는 정순(正巡)을 쏘 때 장시간 쉬었다 쏘기 때문에 몸이 풀리지 않아 만족하게 당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살이 덜 가기 쉬우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4) 전래 궁술 교범

이상에서 우리는 전래된 궁술(弓術)의 교범(敎範)에 대해 대략

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좀더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다음에서 말하는 여러 원칙들이니 활을 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체득해야 할 것이다.

(가) 선찰지형(先察地形), 후관풍세(後觀風勢): 먼저 지형을 관찰하고, 후에 풍세를 살핀다.

(나) 비정비팔(非丁非八), 흉허복실(胸虛腹實): 발의 위치는 정(丁)자도 팔(八)자도 아니며 가슴은 비게 하고 배에 힘을 준다.

(다) 전추태산(前推泰山), 후악호미(後握虎尾): 줍손은 태산을 밀 듯 앞으로 밀며, 각지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듯이 뒤로 당긴다. 즉 줍손의 미는 힘과 각지손의 당기는 힘의 균형을 맞추어 밀고 당긴다는 말이다.

(라) 발이부중(發而不中), 반구제기(反求諸己): 쏘아서 맞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살핀다.

## 라. 활쏘기의 마음가짐과 예절

### (1) 사풍(射風)

활터에서는 사원(射員)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규율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았는데, 이를 사풍이라 한다. 사원은 모름지기 스승을 존대하고 선배를 존경하며 동지에게 겸양하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활터에는 활터를 대표하는 장이 있는데, 그를 사두(射頭)라 하며 사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

또 사두의 명령에 따라 일반사원을 통할하는 행수(行首)가 있다. 이들 사두와 선생 및 행수는 일반사원에 대하여 견책(譴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직권을 가지고 있다.

사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에는 견책 이외에 계급·신입사(新入射)·취격벌(取格罰)·연전·영접(迎接)·등정(登亭) 및 초순(初巡)·연전떠내기·줄내기·고풍(古風)·팔지동(완상하서; 腕上下序)·순차례(사순서; 射巡序)·대우별선(待遇別選)·처음입사(초입사; 初入射)·사계·편사(便射)·이접(移接) 등이 있었다.

### (2) 편사(便射)

#### (가) 종류

편사에는 두 편(邊)의 사원을 각각 15명씩 뽑아 삼순(三巡)의 시수

(矢數)를 계산하여 그 승부를 결정한다. 편사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종류가 있었다.

- 1) 터편사(정편사; 亭便射): 활터와 활터 사이의 편사를 말한다.
  - 2) 골편사: 남촌과 북촌이 각기 그 골 안의 활터를 연합하여 기예를 겨루는 것을 말한다.
  - 3) 장안편사: 도성 안의 몇 개 활터가 한편이 되어 다른 한 구역의 활터와 기예를 겨루는 시합을 말한다.
  - 4) 사랑편사(斜廊便射): 활터의 관할을 떠나 사랑과 사랑의 교유하는 무사들이 편을 짜서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계편사: 역시 활터의 관할과 무관하게 사계 상호간의 편시합을 말한다.
  - 6) 한량편사: 활터의 한량(閑良)에 한하여 편을 짜서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 7) 한출편사(閑出便射): 각기 한 활터의 한량과 출신이 연합하여 편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량출신이란 무과합격자를 뜻한다.
  - 8) 삼동편사(三同便射): 당(堂) 한 사람, 무과출신 한 사람, 그리고 한량 한 사람이 편을 짜서 활터끼리 겨루는 시합이다.
  - 9) 남북촌편사: 고종 17년(1880년)에 개최된 편사로 종로 이북과 이남을 갈라서 편을 짜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아동편사: 동네 아동들끼리의 시합으로, 궁술 장려를 위한 편사이다
- 위의 10종 가운데 1~3은 갑종즉정식(甲種卽正式)의 시합이며,



4~9는 을종즉정식(乙種卽正式)의 편사라 할 수 있고, 마지막 아  
동편사는 병종즉격외(丙種卽格外)의 편사라 할 수 있다.

#### (나) 절차

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거행한다. 먼저 편사를 받기  
하는 활터에서 선단(宣單)을 작성하여 사두·선생·행수가 서명  
한 다음 두 사람이 다른 활터에 가지고 간다. 두 사람이 선단을  
가지고 활터에 이르면 “아무 활터에서 단자(單子) 가지고 왔습니  
다.”라고 인사한다. 인사를 받은 활터에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선  
단을 받고 두 사람에게 “쉬어 가십시오.”라고 권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손히 사양하고 돌아가야 한다. 선단을 받은 활터에서  
만일 사정이 있어 편사에 응할 수 없으면 3일 안에 저절하는 방  
단(防單)을 써서 상대 활터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편사에  
응할 때에는 먼저 사원 가운데서 수때를 정하여 편사에 나아갈  
사원을 실제 습사로 우열을 가려 뽑고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 활  
터에 응단(應單)을 보낸다. 그 절차는 선단 보낼 때와 같이 정중  
하게 한다.

응단을 받은 활터에서는 3일 이내에 편사의 날짜를 적어 답장  
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답장을 지일단자(指日單子)라 한다. 지일단  
자를 받은 활터에서는 수때를 비롯한 15명의 선수를 최종 선발하  
며 수때가 선수들에게 주의사항을 훈시한다. “편사 당일에 술을  
마시지 말 것, 활터에서는 몸을 단정히 하고 웃거나 잡담하지 말  
것이며, 좌우를 돌아보지 말 것이다. 또 활을 쏠 때에는 기운을

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조금도 조급하지 말 것이며, 집궁(執弓)·방전(放箭)과 궁체법식(弓體法式)을 심분 명심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른다.

편사 전날 출정에 앞서서 선수들은 자기 활터에서 고사(告祀)를 지낸다. 제물은 청주·삼색과일·찹쌀 시루떡·쇠머리 또는 돼지머리이며 낮이라도 초 두 자루에 불을 켜서 백지 열여섯장을 태운다. 그 첫 장은 부정소지(不淨燒紙)로 태우며, 나머지 열다섯 장은 수패를 비롯한 출정선수들을 위한 소지로 태운다. 고사가 끝나면 모두 음복(飮福)하고 초를 열다섯 조각으로 갈라 나누어 가진다.

편사를 청한 활터에서는 시합당일 도청(都廳)을 차려 놓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응사(應射)할 활터로부터는 군막(軍幕)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시지(試紙)와 붓·벼루·먹 등을 준비하는 한편, 군막 앞에 사정기(射亭旗)를 꽂아 세운다. 만일 응사하는 활터가 여럿이면 각기 군막을 세워 깃발을 나부끼게 되는 것이다.

각 정 대표가 나와 활쏘기 시합을 하게 되면 이를 정순(定巡)이라 하며, 시합성적을 정시지(正試紙)에 적되 적는 이를 척관(척관)이라 한다. 과녁(貫革)에 화살이 명중하면 이를 관중(貫中)이라 하는데, 정시지에는 이를 ‘변(邊)’ 또는 ‘중(中)’이라고 적는다. 맞지 않으면 ‘실(失)’이라 기록한다.

화살이 과녁을 맞혔을 때 거기한량(擧旗閑良)이 기를 들과 혼들어 보이며, 장족한량(獐足閑良)이 과녁 앞에 가서 화살이 맞은

곳을 두들기며 명중사실을 확인한다. 또 기생이 있을 때에는 “아무 서방님 일시(一矢)에 관중이오.”라 소리치면서 <지화자>를 부른다. 본래는 5중(中)하였을 때만 부르던 것을 뒷날에 1중에도 부르게 되었으니 일종의 파격(破格)이라 할 수 있다.

<지화자>에 이어 풍악을 울리게 되는데, 1·2중에는 장영산(長靈山) 곡조를, 3중에는 염불곡을, 4·5중에는 타령조를 울린다. 주최측인 선단활터와 초청받은 응단활터가 동점인 경우에는 주최측이 진 것으로 간주된다. 응단활터 상호간에 동점을 얻었을 때는 다시 15명이 나와 일순(一巡)한 뒤 시수(矢數)를 따져 승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우수한 활터가 결정되면 그 군막에 기생과 풍악을 보내어 축하하며, 기생은 <태평곡>이나 <길군악>을 불러 전승의 기쁨을 뽐내었다. 만일 다시 편사를 원할 때에는 진 쪽이 이긴 편에 대하여 청하게 되어 있었다. 그 인사말은 “폐정으로 일차 왕립 하오소, 오늘 미진한 정을 창서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

이 청을 받은 활터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청한 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합 날짜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지고 청하는 편사(부후편청편사(負後便請便射))’라 한다. ‘지고 청하는 편사’의 경우에는 편사당일의 일체비용을 청한 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응사하는 활터에서는 활과 화살만 들고 오면 되었다. 군막은 물론 점심까지 대접하게 되어 있었다. 점심 차림은 흰밥·잡탕·나물·김치·깍두기·진찬합·주발 그리고 수저 열다섯벌이고, 술은 제외되었다. 점심을 각 군막에 보낼 때에도 사원 2명이 가서



“왔습니다.”라고 먼저 인사하면 군막에서 “오시오.”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 “점심 가져왔습니다. 찬수가 없사오니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간 뒤, 점심을 마친 군막에서는 “점심을 보내주셔서 잘 들고 감사하오이다.”라고 인사한다.

시합이 늦어 해가 지면 촛불과 사동을 군막에 보내어 돌아갈 때 거화(炬火)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편사는 참가 활터가 돌아가며 한 번 지고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나 두 번지고 청하는 편사(연부재청편사(連負再請便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선수명단을 바꾸어 시합하게 되어 있다.

### (3) 판정규정

화살이 과녁에 맞고 맞지 않는 경우를 판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 1) 화살이 과녁에 맞고 나무조각을 때었으나 화살이 과녁에 꽂히지 않은 경우, 나온 나무조각을 저울에 달아서 서돈중(3錢)이 되면 맞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2) 과녁에 틈이 있어 화살이 그 틈을 지나가면 맞은 것으로 한다.
- 3) 화살이 과녁의 턱을 치고 나가면 맞지 않은 것으로 한다.
- 4) 화살이 과녁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서 과녁에 맞는 경우 점심살이라 하는데, 그 화살이 과녁에 꽂



혔을 때에만 맞은 것으로 간주한다.

- 5) 살이 과녁에 맞았으나 축만 박히고 살대가 땅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맞은 것으로 한다.

#### (4) 정간(正間)

보통 사정(射亭)에 올라가면 정자의 한 가운데 [정간]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정간배례(正間拜禮)란 사정에 올라가서 혹은 사대(射臺)에 서서 초순(初巡)을 쓰기 전에 [정간]을 향하여 절을 하는, 현재 사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를 말한다.

정간에 대한 해의(解義: 뜻을 풀어 밝힘) 및 정간배례에 대한 기원은 확실치 않고 각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전해오고 있지만 3가지 설로 압축될 수 있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그리고 서울지역의 설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서울지역에 전해오는 설을 살펴보자.

본래 정간은 정자 한 가운데 있는 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무과를 치를 때 전관(銓官: 시험감독관), 혹은 민간사정(民間射亭)에서 사두(射頭)가 앉는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간배례는 무과를 치르기 전이나 평소 사두 앞에서 활을 쓰기 전에 응시자 혹은 일반사원들이 전관이나 사두에게 절하던 것이 오늘날과 같이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간이 사정의 중앙

에 있는 간을 칭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무과를 치를 때 혹은 민간사정에서 과연 그러한 예식이 행하여졌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간배례라는 이름으로 현재와 같이 정간에 대하여 절을 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간배례라는 말은 고제(古制)인 향사례(鄉射禮), 대사례(大射禮) 등의 의식을 기술한 중국의 예기; 조선시대의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등의 고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1920년대 당시 궁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조선의 궁술》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정에 속하는 서울 황학정이나 전주 천양정 등에 정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정간은 찾아볼 수 없고 황학정에서는 고종황제의 영정(景幀)에, 천양정(穿楊亭)에서는 선생안(先生案)이 모셔져 있는 사정의 중앙을 향하여 절을 한다(일설에는 해방이후 전북 남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고 함).

그렇다면 현재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굳어버린 정간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정간은 사정의 가장 중심부인 가운데 간을 지칭하며 이 자리에 과거 사정에서 가장 높은 계급, 즉 사두가 앉았음은 분명하다. 또한 정간의 뒤쪽 벽에 그 사정 출신의 유명한 무인·선비 또는 역대 사두의 영정을 걸고 그 곳에 예를 드렸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옛날처럼 철저한 계급사회가 아닌 현재

에는 사정의 한 가운데에 [정간]이라 써 붙이고 절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본 의미는 분명 새로이 조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간배례는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후진들에게 올바른 궁도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앞서 가신 궁도인, 그리고 한량(閑良)들에게 사표(師表)가 되었던 선생(先生) 및 궁도 발전을 위해 몸을 바치신 여러분들에 대한 경배(敬拜)로 파악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조상들이 남긴 건전한 사풍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궁도 9계훈(弓道九戒訓)

예부터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궁시(弓矢)를 주요 무기로 사용해 왔으며 궁시의 제작과 그것의 사용기술에 있어서 발달은 주위 여러 나라를 압도하였다. 그러한 우수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활을 제작하는 기술의 계승 발전과 함께 궁술(弓術)에 대한 묘기(妙技)가 보완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래 철전(鐵箭)은 철전에 따른 묘법(妙法)이, 편전(片箭)은 편전에 따른 기술(奇術)이 각각 따로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내려 오면서 사용되고 있는 유엽전(柳葉箭) 쏘는 법의 개요만이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고래(古來)로부터 군율에 준하는 사풍(射風)이 있었다. 그 규례(規禮)의 엄격함은 오늘날 우리 궁도인이 본받을 만하다.

본래 궁도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한 상태에서 활



을 쏠 때 비로소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므로 다른 운동에 비해 유난히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궁도는 신체단련에 앞서 궁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즉 정신수양을 통한 참다운 인격 형성을 요구하는 바 이 점은 궁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궁도 9계훈(弓道九戒訓)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정에 올라 정간(正間)에 행하는 예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궁도 9계훈(弓道九戒訓)

- 인애덕행(仁愛德行) ... 사랑과 덕행으로 본을 보인다.
- 성실겸손(誠實謙遜) ...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한다.
- 자중절조(自重節操) ... 행실을 신중히 하고 절조를 굳게 지킨다.
- 예의엄수(禮儀嚴守) ... 예의범절을 엄격히 지킨다.
- 엄직과감(廉直果敢) ... 청렴검직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 습사무언(習射無言) ... 활을 쏠 때는 침묵을 지킨다.
- 정심정기(正心正己) ...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 불원승자(不怨勝者) ...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 막만타궁(莫彎他弓) ... 타인의 활을 당기지 않는다.

궁도9계훈 이외에도 사정(射亭)에서는 준수해야 할 많은 수칙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궁도인 스스로가 우리의 전통 무예를 새로운 시대에 알맞도록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신념과 각오라 하겠다.



여 백



## 4. 활을 만드는 부천사람들

가 부천 활의 제작 유래

나 화살처럼 곧게 살다간 공장 김장환

다 불꽃같은 활인생을 살다간 김기원

라 신궁제작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장인 김박영

마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김기홍

여 백

## 4. 활을 만드는 부천사람들

### 가. 부천의 활 제작 유래

부천에서 활을 제작한 역사는 5대 150여년이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손 김홍진을 거슬러 기원·장환·동천·원제에 이른다.

오늘날까지 부천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인 각궁을 제작하여 온 부천의 활은 김장환의 조부인 김원제의 남다른 제공에 대한 열의였을 것이다. 그는 당대에 이미 널리 제공기술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아들 동천이 첫 돌 때라고 한다. 손수 만든 아동 각궁을 만들어 돌상에 놓아 주면서 자신의 기술을 이어 주기를 바랐다.

이와 같은 혼을 불어넣은 활 만들기를 끝내 유언으로 남김으로써 자신이 평생 만든 활보다도 더 많은 활이 만들어져 생명을 갖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식들과 철모르는 손



자 장환을 비롯한 가족을 불러 모아 “집안 대대로 한사람씩 반드시 제궁기법을 전수토록 하라”고 한 한마디는 오늘의 부천 활이 있게 했고 또한 김원제 그가 완성하지 못한 신궁의 경지를 후손들에게 양보하였다.

그 후 부천 활의 최전성기는 흥진의 조부 고 김장환에게서 구가되었다. 그는 활을 만드는 장인에 그치지 않고 한량으로써 쏘는 데도 뛰어났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여 그의 일생을 통해 참 궁도인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었다.

활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화살을 멀리 보내는 기능 이전에 4개월여를 집중적으로 매일 방안에 앉아서 깎고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인내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부천 활이 전국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이들이 삶을 대하는 엄숙하고 진지한 인생을 만드는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부천활을 이끌고 있는 김박영은 인격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노모를 극진히 모셔 조카들이 자랑하는 효자이다. 사실 30여년을 넘게 부천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 그의 본래 고향은 활의 명소인 예천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준기능 보유자인 그가 부천을 떠나면 사실 부천활의 명맥도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김박영은 자신에게 활 제작 기술을 가르쳐 준 스승인 김장환에 대한 ‘예우와 도리’가 부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또한 고 김장환의 둘째 아들인 김기홍도 길거리에서도 담배조차 물지 않는다. 선친의 명예에 누가 될까 해서이다.

단기 4289년  
(1956년) 5월 15  
일 김장환 선생  
이 충북 청주에  
서 개최한 전국  
궁도대회에 참가  
해 다른 분이 활  
쓰는 모습을 관  
찰하고 있다.(사  
진 왼쪽)



이처럼 부천의 활은 기술 이상의 혼과 땀과 철학이 흐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나. 화살처럼 곧게 살다간 공장 김장환(1909~1984)

김장환은 경주김씨 동천(東天)과 김해김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일제에 나라를 잃기 한 해 전인 1909년 2월 3일 당시 부평군 서  
면 신대리(1914년부터 1940년까지 부천군 부내면 지역, 현 인천  
광역시 북구 작전동)에서 태어났다.

김장환의 활과 인연을 맺은 것은 활 제작 기술이 능했던 조부  
원제(元濟)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김장환이 직접적으로 각궁제작을 시작한 것은 16세 때였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방안에서 깎고 두들기는 힘든 일과 수입이 볼품없어 활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부와 선친을 이어온 가업은 그를 운명처럼 따라왔다.

각궁은 곧 국기라는 선친의 말은 잠시라도 일손을 놓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허함과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하루 이틀을 인내하게 하였고 그렇게 보낸 그의 활과의 인생이 오늘날 까지 부천활의 큰 줄기를 이뤘다.

선친의 때 묻은 공구는 김장환에게 평생을 살아 숨쉬면서 활을 만들었고, 이제 또 장성한 손자에게 이어졌고 증손까지도 그가 흘린 땀과 인내의 세월을 자랑스럽게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공장 김장환은 단순히 활을 만드는 기술만을 전달해 준 것은 아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인으로 시대적인 문제 앞에는 자신의 판단과 가치를 가지고 결연히 역사 앞에도 시위를 겨누었다.

특히 그는 일제시대의 한복판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민족혼의 불타는 기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혈기왕성한 23세인 1932년에 황해도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일본군사 1명을 사살하고 다른 한명에 중상을 입혔다고 전해진다. 이 때 자신도 중상을 입은 데다가 지명수배가 되어 마침내 만주로 망명을 했다.

여기서 그는 김병기박사의 소개로 만주 명천(明川)지구 특공대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다.



물소불을 곱게  
다듬던 김장환  
선생의 생전 모  
습.



그 후 1940년 함경도로 이주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함경북도 경성군 체육회장을 역임하였다. 2년여를 함경도에 피신하여 살며, 함경궁도협회 궁도대회에 참가하여 1위 입상을 하였으며, 그 해 다시 황해도 연안으로 와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개성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1947년 5월 부천에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국도신문사》 부천지국장을 역임하면서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자 처의 고향인 시흥군 장곡리로 피난해 위기를 모면하고 이어서 육해공군 부천지구 수혈공급과장으로 군수업무에 종사하였다.

1953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휴전이 임박하면서 유한회사인 한일기업 업무과장을 역임하였고, 1957년부터는 주한 미해군 사령관 푸리시 소장 등 외국인 100여명에게 궁술을 강의하





김장환 선생은 전통활을 잘 만들어 명공(名工)으로 통했지만, 그 솜씨에 못지 않게 활쓰기에도 능해 전국적인 선사자(善射者)로 알려졌다.

였다. 또한 궁술잡지 《아취아리》를 통하여 미국 각지 47개소에 통신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58년 조선일보 부천 총국장, 1961년 부천군 신문기자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도 김장환은 대한궁도협회 사범 겸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1960년에는 대한궁술연구원을 개설하여 2,000여명의 후배를 양성하면서 활 제작 이외에도 궁도분야에 다각적인 활동으로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활 제작을 비롯한 공술지도 등과 언론분야 등의 왕성한 활동은 마침내 1964년 경기도 문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경기도 특별위원으로 박탁되어 인권신장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장환의 활에 관한 경지는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활쏘기에도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다.

활 제작에 관한 한 기술과 열정에서 최고라는 자긍심은 활쏘기에도 전국대회에 6백여 회에 걸쳐 참가하여, 4백여 회의 화려한 입상경력이 이를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특히 보는 이들이 부러워한 것은 김장환과 아들 기원이 나란히 18년 동안 전국체전 등의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이들 사이는 활 하나로 만족하는 자부심 뒤에 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자애스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으로 따르는 부자간의 정이 과녁을 하나 둘 맞춰가면서 확인하곤 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김장환이 참가한 권위 있는 궁도대회의 입상경력을만 정리하면 46회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 외 33세 때인 1942년 10월 12일 연길에서 열린 전만선궁도대회(全滿鮮弓道大會)에서 2등으로 입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가 작고하기 전에 출전한 제3회 경기도 궁도협회장기 쟁탈대회에서 2등으로 화려한 궁도인으로서의 생을 마쳤다. 마지막 대회는 그의 나이 75세로 평소 궁도로 수련한 몸과 마음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그의 공식대회의 입상기록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다.

등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입상회수	13회	6회	4회	4회	60회	9회	4회

특히 그의 활쏘기 실력의 전성기는 33세(1942)부터 54세(1963)까지 21년간에 걸쳐 전국대회를 거의 독차지 하다시피 해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47호로 지정되어 그의 활 제작에 대한 전통성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던 김장환은 1984년 더운 7월, 75세의 나이에 불치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뜬 것이다.

생존시 김장환을 “자상하고 인정이 넘치는 인간미를 갖고 있는 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소신에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을 지녔다. 또한 형제지간의 우의가 두터워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고 1957년 이래 그가 타계할 때까지 김장환과 가까이 지내 온 현 부천성무정의 사두인 이정우씨는 회상한다. 이정우씨는 그가 “후진양성과 제궁에 여생을 바치는데 전념하여 비교적 노후에 건강했고 몸이 날렵하고 기운이 천하장사였다.”고 한다.

활 하나로 어떤 불의의 타협도 없이 화살처럼 곧게 살다간 김장환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 마명리에 서능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그의 활 인생 무대이기도 했던



성무정에 세워져 있다. 그가 생존시 남긴 제궁과 궁술의 뜻을 높이 기리기 위해 후진들이 정성을 모아 1985년 4월 29일에 성무정 입구에 세웠던 것이다.

## 다. 불꽃같은 활 인생을 살다간 김기원(1934~1988)

흔히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조상의 신기(神技)를 오늘에 전승·재현하여 그 맥을 이으면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가는 사람들이다.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된 ‘궁·矢(활과 화살)’의 기능보유자인 궁시장(弓矢匠)도 이들 중의 하나.

활과 화살은 서울·부천·광주(廣州)·여주·전주·여수·예천·울산·충무 등지에서 제작되고 있으나 그 중심지는 서울·부천·예천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개 이들의 분파다. 특히 가장 먼저 궁장으로 지정받고(1971년) ‘김장환궁시공예연구소’를 설립·운영한 김장환씨는 현역 궁시장의 대부분을 배출했다.

그러나 궁장 제1호인 김씨는 84년 73세로 타계했고, 나머지 3명의 인간문화재도 제작일선에서는 손을 뺐 채, 다만 전수자 양성에만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궁·시의 계승·제작 과업은 2세 궁·시장으로 넘겨진 셈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능을 인정받으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두주자는 김장환씨의 첫 이수·전수생이며 장남인 김기



원(金基源)씨, 4대째 가업을 이어온 그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시 분야의 유일한 전수강사이자 기능의 준보유자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 1동 662-1, 김씨의 자택에 마련된 '김장환 공시공예연구소'의 5평 남짓한 작업장, 한쪽면의 벽걸이엔 마지막 공정인 '해궁'을 기다리는 활이 빼곡히 걸려 있고, 여기저기 선대의 피와 땀이 진하게 어려 있는 작업도구들이 널려 있다.

겨울은 김씨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다. 새벽 5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잠시 일손을 놓을 틈도 없이 강행군을 계속 해오고 있다. 활이 완성되기까지는 크게 나누어 5단계를 거친다. 재료다듬기·부각·뒤깎기·심놓이·해궁이 그것이다. 이중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는 제2~4단계는 고온다습한 계절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초부터 3월 말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봄은 해궁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면서 재료를 구입하는 시기요, 여름은 재료를 다듬는 시기다.

김씨가 국내 제일의 명궁장(名弓匠)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재료선택에서 해궁에 이르기까지 한땀한땀 정성을 다한다. 하나의 활이 만들어지기까지 4개월, 대충 3천7백여 차례나 손길이 머무는 동안 손질 하나하나에 그는 기도하는 마음을 담는다. 수공(手工)의 집약에 의해서만 활 하나가, 특히 명궁이 비로소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한여름 자신이 흘린 땀의 양으로 명궁이 태어날 확률을 기능한다. 여름은 재료를 다듬는 기간, 그는 먼저 통대나무를 쪼개 전조(햇볕·밀실·참숯불)시킨 다음, 톱과 대패로 다듬어 가

한겨울에 분주한 활 제작 과정. 생전에 김장환 선생을 중심으로 물소뿔을 사려툰으로 자르고 있는 김기원 선생과 김박영 선생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현재 김박영 선생 홀로 제궁기법을 이어가고 있다.



운데는 약간 좁게 하고 반드시 마디가 있게 한다. 이것이 죽편(竹片)이다. 뽕나무는 납작하게 다듬어 물에 삶아서 알맞게 구부리고, 참나무도 역시 알맞게 잘라 다듬어 삶는다. 그런 다음 이것들을 2개월여 동안 음지에서 건조시킨다. 물소뿔은 톱으로 썰어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 불에 구워 바로 편 뒤에 접착할 수 있게 처리해 둔다.

소의 심줄은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살점과 기름을 빼내 실날 같이 되면 대빛으로 곱게 빗어 살이나 기름이 조금도 붙지 않도록 한다. 선대의 비법과 오랜 경험에 의해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민어의 부레로 만드는 풀(접착제)이다. 그는 이때만은 목욕재계하고 풀 제조에 임한다(제작과정에서 지켜야 할 금기가 꼭 하나 있

다. 재료·도구, 그리고 활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김씨는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해 왔다. 활의 재료를 다듬기, 그러니까 헛수로 따져 45년을 해야 한다. 그는 1934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서 김장환씨의 2남 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8·15해방 때까지 이곳에서 자랐다. 그의 부친은 활로 시작해 활로 인생을 마친 사람, 원래 소사(素砂, 현 부천시)에서 가업을 이어받아 활을 만들어 왔으나 일본인들에 저항하는 조선인으로 낙인찍혀 왜경에 쫓겨 다니는 바람에 가족을 연안으로 이주시켜 놓고, 자신은 소사를 본거지로 삼아 연안을 비롯, 함경도·만주 지방으로 떠돌며 활 제작을 계속했다. 총독부는 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국궁(國弓)의 맥을 끊기 위해 궁시장들을 탄압했고, 제12회 전국체전(1931년)부터는 국궁을 경기종목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1949년 제30회 대회 때부터 부활).

김(金)씨의 부친은 끈질기게 활 제작을 이어나갔다. 민족의식에 앞서 선대의 강력한 유언을 외면할 수 없어서이기도 했다.

조부(祖父) 김동천(金東天)씨는 궁장이면서 궁술의 명수였다. 기력이 쇠퇴하여 본 시위를 당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김씨의 뇌리에 선명히 찍혀 있을 정도다.

김씨는 아버지가 왜경에 쫓겨 다닐 때는 어머니를 도와활의 재료를 다듬어야 했다. 해방직후 개성으로 옮겨 만월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가족과 함께 부천으로 돌아와 활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저녁으로는 신문배달도 해야 했다. 30년대에 조선일보 보급소를 운영했던 아버지가 소사지국을



말았기 때문이다.

6·25동란으로 경북 상주에 피난, 중단되었던 활 제작이 재개된 것은 1952년 초, 손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던 아버지가 미군들에게 부탁, 물소뿔 몇 개를 구입한 것이 그 계기였다. 곧이어 조선일보 소사지국이 문을 열자, 김씨는 전쟁전의 업무로 되돌아갔다. 지국운영은 한때 ‘부천군 기자단장’을 지낸 아버지의 신문에 대한 애정 때문이기도 했다. 5·16 직후엔 30년간 모아온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사에 기증, 감사장을 받았고, 1970년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30여년치의 조선일보는 6·25 때 양철지붕을 뜯고 보관했던 소중한 재산이었다. 지국운영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김씨가 79년 활 제작에만 전념하기 위해 그만둘 때까지 계속됐다.

활 제작과 지국 운영, 즉 아버지의 ‘일’이 궤도에 진입하면서 김씨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게 됐다. 나이도 이미 20을 넘어섰겠다, 활을 만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아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기울고 있음을 눈치 챈 그의 아버지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가업은 내가 이어야 한다. 딴 맘먹지 마라.” 죽의나 사나 활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참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기왕 가업을 이어야 한다면… 온몸을 내던져 기술을 습득하리라, 결심하기까지가 괴로웠지, 일단 결정하고 나니 홀가분했다. 그는 아버지를 앞질러 활 제작의 주역이 되기로 작심했다.



재료 다듬기를 마치고 10월로 접어들면 으레 활 제작이 시작되곤 했다. 대나무를 모체로 양 끝에 뿔나무를 연결, 부레풀로 접착하여 불에 쪼이면서 적당히 구부린다. 이 때 조막손이(접착시의 지렛대)를 대놓고 심바(밧줄)을 감아 밀착을 돕는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인 '부각' 기다. 다음 단계는 '뒤깎기', 줄과 칼등을 사용, 정교하게 다듬어 생(生) 활의 모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김씨는 활의 손잡이(검통 혹은 줌통) 부분인 대림목(참나무)을 붙인다. 이것은 활 전체의 힘을 받는 중심역할을 맡는다. 그리고는 네 번째 단계인 '심놓이', 줄·환 등을 써서 얇게 깎아 내는데 세심한 주의와 함께 힘이 무척 든다. 그의 얼굴에서 맺혔던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도 이 때다.

얇게 깎아낸 몸체의 뒷면에 소심줄을 일곱겹으로 올린다.(이를 “놓는다”고 함.) 심줄은 심줄다발을 부레풀에 담갔다가 평판(平板, 혹은 전판) 위에 놓고 쇠빔으로 빓고 대나무칼로 밀어 다듬은 것. 김씨는 여기까지의 공정이 끝나면 상온(섭씨18~22도)에서 20여일간 말린 다음, 작업실에 딸린 점화장(건조실)에 넣어 한달 동안 건조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서서히 온도를 높여줘 섭씨 35도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심놓이'가 끝나면 활의 성능이 70%는 형성된다. 물론 뿔과 심줄에 의해 결정되는 궁력(弓力)은 이 단계에서 완성되지만.

심놓이가 끝난 활은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해궁에 들어갈 수 있다. '해궁'은 활에게 100% 기능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심놓이'까지에서 이

미 명궁이 될 소지는 알아보게 마련이지만, “명궁이냐 아니냐”는 역시 해궁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마치 해산을 앞둔 부모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꽃이깎기에서 다듬은 고자(시위를 거는 고리)에 도지개를 이용하여 시위를 건 뒤, 궁창(거문고 모양의 교궁기)에 넣어 활의 균형을 잡고 탄력을 조절한다.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둔 육감이 고도로 발휘되는 대목이다. 균형이 잡히고 탄력이 조절되면 줄을 풀어 다시 점화장에 넣는다.(2~3일간) 이런 과정을 반복(보통은 3~4회)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접착된 심줄 위에 화피를 붙여 다시 점화장에서 1주일을 지내게 한다. 의장재인 화피를 붙이는 것은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한 것. 화장이라고나 할까, 단장쯤으로나 해석해 둘까, 활에서는 모양새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일관작업을 김씨는, 역시 부친의 제자로 기능이수자인 김박영(金博榮, 56)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그러나 둘이서 1년 내내 작업을 계속해 봐야 생산량은 기껏 1백장 정도에서 머물기 때문에 최근엔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해 찢찢매기 일쑤다. 그런가하면 전국 각지에서 수리를 의뢰해 오는 활을 만지느라 그는 밤샘할 때도 많다. 다 죽었던 활(탄력 잃은 활)도 그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활력을 되찾기에,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고장난 많은 활이 그를 찾아든다.

김씨는 아버지와 다투기도 많이 했고, 꾸중도 수없이 들었다.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꾸중’을 밥 먹듯 했고, 날개가 돌아 자력으로 날 수 있게 되자, 제작공정 도처에서 아버지와 맞부딪쳤

다. “가르쳐 준 대로 하라”와 “전수기법을 토대로 하여 비과학적 방법만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결이 그것이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단점을 보완하여 ‘태평궁’(편하고 안전한 활)을 확립하고 나니, 아버지도 비로소 꾸중과 간섭을 거두었다. 이에서 힘을 얻은 그는 대나무에 뿔나무를 접착하여 만들던 전승기법과는 달리 대나무만으로 몸체를 구성하는 새 기법을 창안하여, 지금은 이것과 전통기법을 반반으로 섞어 활을 제작하고 있다.

김씨는 70년대 중반 한때 양궁제작에 손을 댄 적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을 좀 펴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에 손을 대서야 되겠느냐, 우리 것을 지켜다오” 하며 호남지역의 원로 궁수들이 간청, 착수 2년여 만에 건어치우고 말았다. 그 이후 “국궁을 지키겠다”는 천직의식에 그는 회의를 품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1979년에 접어들면서 국궁제작에만 전념하기 위해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던 조선일보 지국을 친지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앞뒤 살펴볼 겨를도 없이 활을 만드는 일속에만 묻혀 지낸 김씨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한 회의에 빠져들었다. 요즘은 전국에 걸쳐 3백30여 군데의 활터가 있고, 궁수도 3만여 명을 헤아리게 됐지만, 당시는 활터도 많지 않았고, 궁수 또한 특수계층으로 인식돼 지금의 1할에도 미달했다. 활의 수요가 적으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불투명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그가 궁장으로 눌러앉게 된 것은 선대의 유연도 그러려니와 1971년 아버지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공시장 제 1호로 지정받은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활 제작에 전념하는 한편, 첫 이수·전수생 과정(5년)을 밟고는 전수강사로 인정받았고(1979년), 1982년에는 기능 준보유자로 인정받아 ‘인간문화재’의 문턱에 다가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국궁을 스포츠로 즐기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1970년대에는 국궁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연간 겨우 40장이던 활의 생산량도 1백여 장으로 늘어났다. 가계가 안정되니 자연히 그는 작품제작에만 몰두할 수가 있게 됐다.

김씨의 가계(家系)는 증조부로부터 명궁장이면서 또한 궁술도 뛰어나 명궁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궁장을 평생의 업으로 정한 김씨는 일제시대부터 궁술대회를 석권하다시피 해온 아버지를 따라 사대(射臺)에도 오르기 시작했다. 30여년 동안 전국체전을 비롯한 명궁대회에 참석한 횟수만도 3백여회, 지금까지 입상권에서 제외된 기억이 없을 정도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부천(小沙)의 성무정(聖武亭)팀은 전국에서 최강팀으로 소문났고, 소사의 ‘호랑이 부자(父子)’라면 국궁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부자가 거둬들인 상장만으로도 19인치 텔레비전 박스를 넘친다. 상위 입상 아니면 장원, 궁도대회에서 5시(矢) 5중(中)으로 몰기상(沒技賞)을 부자가 함께 받은 경우는 물론, 1등과 2등으로 나란히 입상하여 “부자간에 다해 먹으라”는 싫지 않은 야유를 받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잘 만들고 잘 쏘니 소사(부천)활이 유명해지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비롯, 각계의 유명인사, 그리고 한·미군 고



위장성들,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소사활’은 줄곧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김씨 혹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궁술을 배워갔다. 그가 전국규모의 대회에 나가는 때면 “같이 술 한 잔 하자”는 사람이 많다. “당신이 명궁을 만들어 주어 명궁이 됐으니, 은혜를 어찌 외면할쏘냐”는 것이 그 핑계다. 그럴 때마다 그의 기슴은 벅찰 정도로 뿌듯하다.

해궁이 끝나면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김씨는 직접 활을 들고 활터로 향한다. 전통을 메고 사대에 들어서면 145m 전방의 과녁을 마주보고 선 다음, 상체를 우측으로 약간 튼다. 화살 하나를 빼내어 시위에 오니를 매긴 뒤 심호흡을 하고 나서 활을 들어 천천히 시위를 당긴다. 숨을 고르고 정조준, 일념무상(一念無想)의 경지에서 3초 정도의 침묵이 흐른다.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당겨진 시위, 각지 낀 검지가 오니를 놓는 순간, 시위를 떠난 화살은 공기를 가르면서 40도의 포물선을 그으며 과녁을 향한다. “따악” 하는 소리와 동시에 산허리의 과녁 한복판에 화살은 어김없이 진입한다.

명궁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 긴장됐던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환한 미소, 한 점이라도 잡념이 섞여들면 화살은 관중(貫中)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과 활이 하나가 됐을 때만 과녁은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활 하나에 일순(一巡, 5발) 썩의 시험발사가 계속된다. 활의 수명은 평균 3천순, 한번 활터에 나가면 보통 10순을 쏘게 되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쏜다고 하면, 활 하나로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삶의 도구·전쟁의 무기에서 오늘날엔 ‘멋과 수신(修身)’의 도구가 된 국궁, 전통의 맥을 이어받아 오늘의 풍류로서 새롭게 그 멋을 창조해 가는 김기원씨의 간절한 소망은 대를 이어 신궁(神弓)에 도전하는 일이요,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명궁장으로 기록되는 영광이다. 다행히 1962년에 결혼한 아내(주남연(朱南蓮), 44세)와의 사이에 세 아들(동진(桐鎭)·홍진(弘鎭)·태민(兌玟))을 두었고, 현재는 첫째 동진만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전승공예의 계승자·창조자에게 무슨 유별난 바람이 있겠는가, 죽는 날까지 신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한 걸음 욕심을 부린다면, 국궁이란 아름답게 더 많은 국민이 체력 단련과 정신수양의 수단으로 궁도를 즐겨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바람이 오늘날 제대로 이어져 그의 뜻이 면면히 이어지지만, 아쉬운 것은 1988년 교통사고로 그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다. 완성된 활을 구입처에 전해주고 올라오던 목포-광주 간 도로에서 아버지 김장환의 대를 이어온 올곧은 명궁의 생을 마감한 것이다.

## 라. 신궁제작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장인 김박영

궁시장 김박영은 활의 고장 경북 예천 왕신동에서 태어나 부친 김홍경씨 슬하에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한 것이 활과의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활과 더불어 육십평생을 살아 온 인물이기도 하다.

“활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삼십년쯤 되지요, 물론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만든 것을 보아 왔지만 만들지는 않았습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천은 예로부터 활로 유명한 고장이지요, 왜 예천사람치고 활 못 쓰고, 못 만드는 사람 없단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활이 좋아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것이지요…”

그이 말을 빌면 그의 집안은 경북 예천에서 대대로 활을 만들어 왔었고, 선친 또한 궁시장이었다 한다. 그는 이런 주변의 여건 때문에 활과 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활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가 정작 활 만드는 일에 뛰어든 것은 그의 나이 서른이 다 되어서였다고 한다. 사실 그는 “군대 제대후 메리야스 공장을 손수 경영하는 등 각종 사업으로 전전하였었다.

“처음엔 돈이라도 벌어 볼 양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 때만해도 활을 만들어서 세상 살아가기란 좀체 어려운 일이어서 선뜻 뛰어들 수가 없었지요. 물론 마음에야 늘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을 해보아도 도무지 취미에 맞지 않는 겁



김박영 선생이  
경북 예천에서  
부천으로 올라와  
활 제작방법을  
전수해 준 고(故)  
김장환 선생과  
사제간 정담을  
나누던 모습.



니다. 또 활 만드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해서 그가 처음 활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의 고종 사촌인 이치우(작고)씨로부터였다. 그 무렵 이씨는 경북 예천에서 활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匠人)이었다. 그 후 한동안 그는 이씨의 밑에서 활 만드는 일을 거들어 주며 활과의 인연을 맺었다.

6·25가 터지던 해 아버지를 여의고 피난살이 하면서 메리야스 짜는 일 등 안 해본 일 없이 전전궁궁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역시 활 만드는 일이 제격이었다.

“활 한 장에 소가 몇 마리 먹히는지 알면 아마 놀랄 것이지요. 그러니까 활 양쪽으로 소뿔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니까 벌써 한 마



리 죽지요, 또 안쪽에다가는 소등심줄 두개를 덧대야 하니까 두 마리 죽지요. 해서 도합 세 마리가 죽지 않는가 말ियो.”

조금 잔인한 것이 아니냐는 필자의 말에 허허 하며 너털웃음으로 대신하는 그는 친구의 권유로 1965년 상경했던 지난날의 보따리를 하나 둘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소사에서 쓸 사람을 구한다더라.”

넌지시 건네준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 고종사촌 거드는 일을 그만두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경기궁(京畿弓)의 명인 김장환 선생을 찾아 고향을 뒤로 하고 먼 여행을 떠났던 그 시절, 해마다 봄이 되면 완성된 활을 짊어지고 떠돌던 부친의 생전 모습과 두고 온 노모와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당시 온통 복숭아밭이었던 소사(지금의 부천시)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인 김장환(작고)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나이 서른다섯이 되던 해였다. 평소 그의 재주를 눈여겨보던 고향사람이 그를 추천한 때문이다.

그 당시 김장환선생은 국궁제작으로 꽤 명망 높던 분이었으므로 그의 문하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지간한 재주가 아니고선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의 활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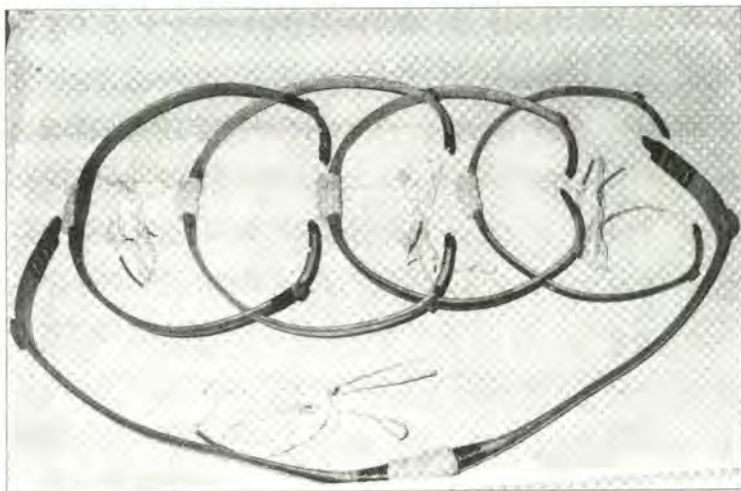
“소 돼지 마냥 때리는 것보다 나직한 말 한마디가 더 무서웠어요. 또 이 활 만드는 일이 원체 까탈스러워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호되게 치도곤을 치시곤 했는데 암튼 그 어른 활 만드는 거 하나는 일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오십대 넘

묵묵히 명궁 제작에 일생을 바쳤던 김기원씨(왼쪽)가 김박영 선생과 활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그가 너무 일찍 손을 놓았기에 좋은 재능을 스승인 김박영 선생이 늘 아쉬워했다.



게 먹은 사람들 중에 예천 왕신동이 고향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활을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활터도 경남이 51군데로 제일 많아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경기궁을 능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큰물에서 놀아보자는 셈치고 경기의 김장환어른을 찾아간 거요.”

“그분은 활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맘에 들게 활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꼭 꼬집어 가르치는 법도 없어서 한 가지 일을 익히려면 수십번을 반복해야 겨우 터득할 수 있었지요. 그땐 그것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박영 선생이 소장한 명궁들. 제일 큰 활이 정랑궁이고 크기가 약간 다른 여러 가지 각궁(角弓)들의 부러놓은 모습이 일품이다.

예천에서 아버지 일 도우며 일했던 5년간은 배움 축에도 못들었다. 유난히 힘이 센 스승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뛰어난 조궁(造弓) 솜씨를 지녔을 뿐 아니라 활 쏘는 실력도 각별했다. 그래서 경기궁 하면 누구나 최고급품으로 쳐 주기가 예사였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1984년 여름 혹독하리만치 엄했던 스승은 영원히 세상과 이별했고 어른 밑에서 한술밥 먹으며 하루하루 보냈던 20년 세월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 때문인지 그는 요즘 그를 찾는 문하생에게는 혹독한 수련을 시킨다고 한다. 그렇게 일을 배워야 무슨 일이고 해낼 수 있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다. 또한 그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훌륭한 궁시장이 될 수 있다는 그의 고집도 상당히 작용했다. 그



러나 이에 못지않게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활 만드는 이의 정신자세이다.

“활 만드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부터 활 만드는 일과 활 쏘는 일의 으뜸이 사람의 정신수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활은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거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시위를 당겨 보면 담박 그 표가 납니다...”

때문에 궁도란 본래 쏘는 사람의 기(技)가 옳고 사용하는 공구가 적합하면 반드시 관중(貫中)된다는 그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예로부터 인애덕행(仁愛德行), 자중절조(自重節操) 등의 궁도 9계훈을 비롯 선찰지형, 비정비팔 등의 집궁 8원칙을 궁도에 임하는 필수요건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즉 내면의 정신과 사상의 정화는 물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까지 수덕(修德)을 쌓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만들어 낸 활은 전국에서 사용되는 국궁의 거반 40%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활로 전국의 궁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술하다고 덧붙인다.

이런 그의 활 만드는 솜씨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이후부터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궁도에 대한 인식이 차츰 바뀌어지면서 그의 활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통공예대전 등에 출품한 작품이 수차례에 걸쳐 입선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커다란 보탬이 됐다.

그러나 그가 정작 바라는 것은 상이나 명성 따위가 아니라 국궁이 우리나라의 국기로 보급되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국궁



의 보급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가 국공 보급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마다하지 않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궁도의 예를 강조한다. 올바른 예를 갖춘 궁도인만이 바르게 활을 다룰 수 있다는 그의 신념에서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47호 활기능보유자였던 김장환선생이 타계한 이후로도 줄곧 그는 예전의 그 집터 비닐장판 깔린 방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활 만드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기마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한 기질을 과시했던 우리 민족은 그만큼 활을 사랑했고 전쟁터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무기로서 적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소총이 생기면서부터 활은 전쟁무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점차 쇠퇴일로로 걷기 시작했고 따라서 자연 활 만드는 일도 별볼일 없게 돼버렸다.

그래도 그나마 옛정을 생각해서 기념하게 된 것이 전국서 열리는 활쏘기 대회. 옛날에는 첫째로 근본이 좋아야만 활을 만지고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어 남녀를 불문하고 취미삼아 즐기는 일종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활 만들기 외길로 이제껏 한 평생을 살아온 김박영씨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기가 없어서 더 나쁠 것도 없다. 고향을 떠나 30년이 넘게 그저 한자리에 뿌리내린 채 활 만들기를 밥먹듯 해왔을 뿐이다. 만약 그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생을 활 만드는 일에 전념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산이 좋은 사람에게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물음이 될 것이다.

그가 만들어 온 활에 생명을 넣듯이 인간 김박영의 정겨운 웃음 속에 숨어든 활 제작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자기수양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그를 조카는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나의 고모부는 무척 효성이 지극하시다. 현재 인간문화재 47호로 지정되어 계시고 성함은 김박영이다. 고모부께서는 기독교인이시지만 한국인의 정신이니 유교사상을 철저히 지키신다. 그 때문에 고모부께서 어머니를 효성으로써 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모부께서는 78세 되신 어머니가 계신다. 꽤 오래 사신 장수 할머니이신데, 고모부의 극진한 효성에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 같다. 지극한 효성은 받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기도 한 것 같다.

고모부의 효성은 지금까지 모친과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신 것부터가 그렇다. 고모부께서는 항상 모친을 생각하신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신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아침에 인사드리는 것은 습관이 되었고, 특히 퇴근을 하셨을 때에도 다른 곳을 먼저 가시는 일은 없으시다. 항상 가시는 곳은 어머니의 방이다. 30분 정도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저녁 시간을 보내신다. 식사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어머니께서 수저를 두신 후에 식사를 하시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어머니께 올린다. 그러다가 보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드

시지 못하시고, 식사도 가장 늦게 하시게 된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결심을 하게 된다. 나는 비록 어리지  
만 지금부터 열심히 효도해야겠다고 말이다.

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애용하는 활도 직접 만  
들어 대한민국 땅에서 경기궁의 최고봉으로 우뚝 선 김박영, 그  
러나 실상 그는 서서 일해 본 적이 없다. 본래 이 활 만드는 일이  
란 것이 여기저기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처음부터 완성되  
기까지 바르게 좌정한 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  
면 금방 쥐가 나기 십상이거나 통증을 느끼기가 보통이다. 그렇  
다면 한번도 쥐가 나거나 다리가 아파 고생해 본 적이 없다며 자  
신 있게 웃어 보이는 그는 천성적인 ‘쟁이’ 기질을 타고 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가 숨쉬는 한 고구려 맥궁의 민  
족적 기개는 면면히 흐를 것임에 분명하다.

영겁의 세월을 뚫고 비상하는 활의 저력, 그것은 아마도 궁시  
장의 터진 손끝에서 완성되어 전통유산으로 계승되는 것이리라.

## 마.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공장 김기홍

우리 한국인이 활 쓰는데 세계정상을 계속하여 지키고 있는 것  
은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갖고 있는 활 만드는 사람 김기홍씨. 그는 증조부, 조부, 부친을  
이어 형과 함께 4대째 활을 만들고 있다.



“형님의 둘째 아들인 홍진이가 하고 있으니까 저야 뭐 4.1대쯤 되는 셈이죠”라고 겸손해 하지만, 1백30여년 전의 선조의 숨결을 지키면서 활을 만들어온 장인 가문임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형 기원씨가 1971년 9월 13일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장보유자로 인정받을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활을 평생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는 증조부 김원제씨가 아들 동천의 첫돌 때 아동 각궁을 만들어 돌상에 놓았고, 임종시에는 “집안 대대로 한 사람씩 활 만드는 기법을 전수하라”는 말을 남길 정도의 가문의 배경이 있었고, 여기에서 무엇을 깎고 붙여 만드는 천부적 ‘끼’를 가지고 있던 그는 어쩔 수 없는 ‘쟁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거부할 수 없는 활과의 인연은 그동안 집안에서 거들던 궁장일을 1982년 ‘전수장학생’으로 정식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맺어지기 시작했는데, 1984년 하늘같이 밟고 배우던 부친이 돌아가셨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뜻을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열심히 깎고 붙여 1986년 이수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정작 그를 건딜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채찍질을 했던 것은 1988년 형님마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다.

‘정신 차리지’는 비장한 각오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 서른을 넘기면서 주위 친구들과 알뜰하게 비교하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금 깊이 반성하고 더욱 강하게 활 만드는 데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현재는 30년을 같은 공방에서 생활한 준보유자이면서



그의 스승인 김박영씨를 모시고 조카와 함께 공방을 지키고 있다.

1년을 단위로 진행되는 그의 작업은 재료를 준비하는 초봄부터 시작된다. 화학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물소뿔, 소심줄, 민어 부레,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등의 소 3마리분의 동물성과순식물성 재료를 갖춘다. 그런 다음 여름에는 1년 가운데 조금은 한가하게 궁창과 톱·깎기 등의 연장으로 자르고, 불에 굽고, 물에 삶아 모양을 다듬는다. 추석을 지나 첫 서리가 내릴 때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줄을 거는 부분(상고)에는 뽕나무를 끼운다. 손잡이(죤통)는 참나무(대림목)을 댄다. 그 곁에는 물소뿔을 다듬은 수우각을 한 쪽씩 양쪽에 붙이고 안에는 소등심줄을 말리고 두들긴 뒤 실같이 찢어, 물에 빨아 민어부레로 만든 풀로 붙인다. 그리고 바깥쪽에 벗 나무로 화피를 씌우면 비로소 활 모양을 갖춘다.

이러한 공정 가운데 가장 어렵고 그가 아직 자신 없어하는 기술은 도지개치는 작업(해궁). 이 작업은 활이 균형이 잡혔는지, 쏠 때의 감은 어떤지 시위를 걸어놓고 쏠 사람에게 맞게 고치는 작업이다.

손끝으로 활을 만지면서 두께가 일정하게 깎인 것을 확인해 가는, 그야말로 10년 수도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엄숙한 순간이다. 그런 가운데 가장 바쁜 2월 중순경을 보내고 3월쯤에는 어디서 알고 찾아오는 것인지 사려는 사람들을 맞으면서 한 번의 작업기간을 마무리한다.

그는 공장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세와 조건으로 “관심과 손재주, 그리고 인내심”을 든다. 그런 면에서 그는 공장 이외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천직으로 알고 매달려야지”라고 선뜻 말한다. 하지만 그가 공장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나름대로 크다. 한달에 2번 공방일을 쉬고, 그리고 특히 계절에 맞추어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겨울철의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쉴 사이 없이 깎고 붙여야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즐거움과 사명이 없으면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런 육체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부친 김장환 씨가 항상 말씀 하셨듯이 “정신자세가 안된 사람은 활을 만들어 봐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늘 생각하고 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다닌 적이 없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욕될까봐서...”라는 말 속에 그에게서 장인의 고집스러움과 함께 인간적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여 백



## 5. 부천의 죽시(竹矢)와 사정(射亭)

### ㉑ 화살의 제작 및 과정

－ 죽시(竹矢) 제작의 명인 나기완

### ㉒ 부천의 사정(射亭)



여 백

## 5. 부천의 죽시(竹矢)와 사정(射亭)

－ 죽시(竹矢) 제작의 명인 나기완

### 가. 화살의 제작 및 과정

#### (1) 화살 만드는 법

화살에는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동개살, 군전(軍箭), 세전(細箭) 등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유엽전(柳葉箭)이라고 하여 조선 왕조시대 무과시취(武科試取)와 일반 습사(習射)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원래 유엽전은 각궁에 쓰이던 화살이다.

유엽전, 즉 지금의 화살의 길이는 85cm 전후이며, 쏘는 사람의 팔과 활의 장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무게는 7돈꼴이 평균이지만 이것 역시 쏘는 사람의 힘에 따라 가벼운 것은 6돈꼴, 무거운 것은 한냥꼴까지 가는 수도 없지 않다고 한다. 화살의 몸체는 대나무이며 오니(살의 상부)는 짜리나무로 만들어지고, 깃은 꿩깃

으로 한다.

살촉은 과거에는 쇠로 하였으나 현재는 탄피를 씌운다.

다음에 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 (가) 재료

- 1) 대나무: 전라남도 오동도산을 제일로 꼽는다. 대개 제작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입수한다.
- 2) 싸리나무: 오니를 만드는 데 쓰인다. 과거에는 광대싸리로 하였으나 지금은 보통 참싸리를 사용한다. 각 지방의 산중에서 구입한다.
- 3) 도피(桃皮): 오니를 둘러싸는데 쓰인다. 오니를 견고히 하고 습기를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 4) 깃: 꿩의 깃을 사용한다. 좌궁깃과 우궁깃의 두 가지가 있다. 왼손으로 활을 쏘는 사람이 좌궁깃을 택한다.
- 5) 구리쇠: 활촉을 만든다. 요사이는 탄피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선 중기에 쓰인 유엽전(柳葉箭). 축이 버들잎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전투용, 연습용 화살이다. (자료제공: 육군박물관)

나기완씨가 화살대를  
잡는 모습.



- 6) 소심줄: 상부의 오니부분과 하단의 활촉 부분을 감싸는 데 쓰인다.
- 7) 부레풀: 오니부분에 도피(桃皮)를 씌울 때와 하단 촉을 씌우기 위하여 얇은 죽관(竹管)을 입힐 때와 꿇기를 달 때에 쓰인다.

#### (나) 도구의 명칭과 용도

- 1) 화로: 화살을 건조하거나 반듯하게 잡는 데 사용한다.



- 2) 부잡이통: 화살대를 구워서 꾸부러진 마디를 반듯하게 펴는 데 사용하는 화로와 같은 것.
- 3) 툇: 시죽(矢竹)과 오늬목을 절단하는 데 사용.
- 4) 줄대: 화살을 반듯하게 잡는 데 사용.
- 5) 큰칼: 대나무·오늬목·상사깃 등을 재단하는 데 사용.
- 6) 상사칼: 화살 하단부의 상사속을 깎아내는 데 사용.
- 7) 오늬칼: 오늬속을 파내고 다듬는 데 사용.
- 8) 송곳칼: 화살 상단부에 오늬목을 끼우는 자리를 파내는 칼.
- 9) 돌림판: 화살을 돌려서 깎는 데 사용.
- 10) 받침쇠: 축을 만드는데 사용.
- 11) 망치, 집게.
- 12) 뽀치: 축을 끼우고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사용.
- 13) 저울: 화살대와 축의 무게를 다는 데 사용.
- 14) 줄: 시죽(矢竹) 또는 축을 다듬는 데 사용.
- 15) 가위: 꿩깃을 오려내는 데 사용.
- 16) 자(尺): 시죽, 깃간, 상사 등을 재는 데 사용.
- 17) 파끼: 외늬목을 다듬는 데 사용.

#### (다) 제작과정

시누대(2년생 죽)를 무게와 굵기 마디(3절)를 같이하여 3개월 이상 방안에서 말린다. 이렇게 고른 생대나무를 다시 부피, 무게 등을 점검(点檢)한다.

특히 마디에 탈이 있는가에 유의하며 마디눈이 없는 것을 최상

호살죽을 단단히  
조임으로써 비로  
소 전통 죽시(竹  
矢)가 만들어진  
다. 화살죽을 조  
이고 있는 나기  
완씨의 모습.



품으로 삼는다. 그 다음 화덕 위에 중심부에 구멍이 뚫린 쇠뚜껑  
을 덮은 부잡이통에 살대를 올려놓고 화기(火氣)를 쪼이며 줄대  
를 반듯하게 잡는다.

이 때 살대의 빗갈도 동시에 조절한다. 또 부잡이를 하면서 가  
는 송곳으로 침을 주어 열로 팽창할 때 속의 공기를 발산시킨다.  
대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이다.

백청(白靑)의 대를 황갈색으로 만들고 곧게 잡은 다음에 살대  
의 몸을 곧게 닦는다. 특히 마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물모래  
질을 한다. 사포질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상사자로 상사자리를 재고 그곳을 깎는다. 상사는 살대  
의 하단 촉을 끼우는 자리에 씌우는 4cm 가량의 대나무통을 말하

는데 생대를 삶아 속을 도려낸 것이다. 깎아놓은 상사자리에 부레풀을 칠한다. 이것을 풀겨름이라고도 한다. 풀겨름을 하고 소심줄을 감는다. 이것을 심감이라고도 한다. 심감이 끝나면 상사를 끼운다.

다음은 삼대의 상부인 ‘오늬’를 만드는 작업이다.

먼저 오늬자리를 2cm가량 송곳으로 뚫어 파내고 그 자리를 심감을 한다. 참싸리나무로 깎아 만든 오늬를 풀겨름을 하여 심감이한 오늬자리에 끼우고 오늬톱으로 양쪽을 켜고 오늬칼로 파내는 것이다.

이 동안의 작업으로 처음에 곧게 잡은 살대가 조금이라도 휘었을까 염려하여 다시 줄대로 잡고 사포로 다듬은 다음 오늬자리를 도피(桃皮)로 쓴다.

도피로 쓰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습기방지와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살의 미화작업이기도 하다.

이제 깃을 붙이고 축을 만드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깃은 세 곳에 풀로 붙여 세우는데 길이는 12cm 내외이다. 오늬도피 밑에서부터 시작되어 끝의 3cm 정도를 30도 각도로 구부려 놓았다.

화살이 나를 때 회전시켜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함이다. 깃의 시작되는 부분의 가장 높은 곳이 8mm이며 이것이 점차로 낮아져 끝에 가서 없어지게 한다. 이런 모양은 불인두로 지져서 만든다. 깃이 끝나는 곳에 깃간띠를 두른다. 과거에는 도피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대개 세로판지를 대용하고 있다. 폭 1cm 정도의 군청색 또는 빨간색으로 두르는 화살의 장식이다.



화살촉 부분을  
손질하며 마무리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나기완  
씨.



마지막으로 촉을 만든다. 촉은 뽀족하게 만들어 끼운다. 그러나 근래에는 탄피를 둘러싸우기도 한다. 쇠촉에 비하여 탄피는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살과 과녁을 손상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하여 화살은 완성되는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줄대로 줄을 잡고 상어가죽으로 문질러 광을 낸다. 근래에는 상어피 대신 고운 사포질을 하거나 왁스 같은 광택제를 쓰기도 한다.

## (2) 나기완의 외로운 화살제작

열여섯 살 때 전주 형님댁에 놀러갔다가 그 옆집의 화살 만드





나기완씨의 스승 김용훈에게 화살 제작 방법을 가르쳤던 조명제(趙命濟) 선생.

는 김용훈씨를 만난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24년 동안 화살 만  
들기만을 고집해온 나기완(羅寄完)씨.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김용훈씨는 6년전 작고하고, 현재는 자  
신을 포함해 전통 죽시(竹矢)를 전국에서 10여명이 만든다고 한  
다.

그나마 죽시공(竹矢工)들도 본업 따로 부업 따로 연명하고 있  
다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죽시가 1990년 이전만 해도 각종 궁도대회나 사정(射亭)에서  
적지 않게 사용돼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  
만 1992년을 고비로 카본화살(개당 5,000원)이 대량으로 보급되  
어 죽시(개당 7,500원)가 가격 경쟁력에 뒤떨어져 주문량이 폭  
떨어지고 지금은 주문조차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기완씨는 벌써 2년째 일손을 놓고 생활 방편으로  
막노동판에도 나가야 할 형편이다. 이제는 지방문화재라도 지정

되어 죽시의 맥을 잇게 하는 게 자신의 소망이라고 스스로없이  
털어놓는 나기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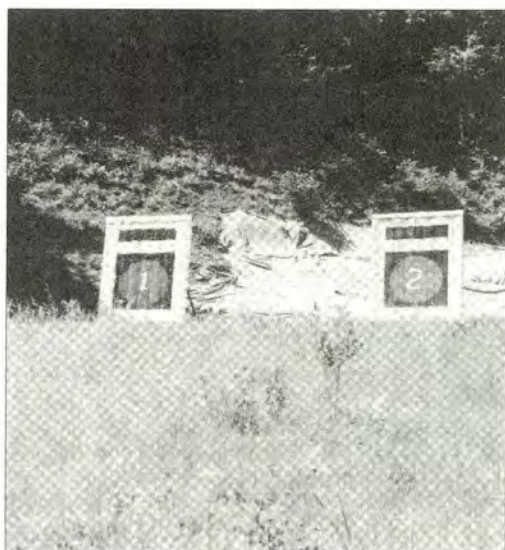
전북 임실이 고향인 나기완씨가 부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9  
년, 지금도 심곡본1동 자택의 한켠에 작업실을 마련하여 틈나는  
대로 제멋대로 휘어진 대나무를 똑바로 곧추 세우고, 신주로 만  
든 화살촉을 끼우고, 꿩털을 깃으로 붙이고, 아교풀로 단단히 부  
착하는 외로운 전통 맥을 잇는 작업에 대해 자긍심이 대단하다.  
다만 생활의 방편으로 죽시고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기가 어려워  
진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 나. 부천의 사정(射亭)

### (1) 과녁과 부속품들

#### (가) 과녁

과녁은 관혁(貫革)의 음변이다. 과녁의 기원은 후(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후(幬)는 설문(說文)에 “본래 후(사포(射布): 활을 쏠  
때 표적으로 거는 베를 말함)로 만들며 사람(人)과 언덕을 본뜨고  
장포(張布)의 평상과 화살이 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  
여 사포(射布)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또한 정사농(鄭司農)은 “사  
방 10척(尺)되는 것이 후이고, 4척(尺)되는 것을 일러 곡(鵠)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고대 중국에서의 활쏘기로써 현인(賢人)



성무정의 과녁, 사대에서 145m 떨어져 세워져 있다.



곰의 머리를 그린 정곡을 붙여 왕이 사용하던 과녁을 웅후(熊候)라고 한다.



을 선발할 때 적중한 사람은 봉작(封爵)을 획득하였으므로 제후(諸侯)라 칭하였다 한다.

원래 우리말에도 사포(射布)를 나타내는 “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훈몽자회(訓蒙字會)에 후(幙)는 “술 후(幙)이며 속칭 토붕(흙을 높이 쌓아 과녁을 걸어 놓는 장소)이라” 함에 의하여 술은 고어(古語)이며 속칭 후(幙)를 “소포”라 함은 ‘술포’의 와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과시(科試)에 사용했던 후(幙)와 관혁(貫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전(片箭)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병전시취조(兵典試取條)에 거리는 130보(步, 약 156cm)이며 후(幙)의 전체 크기는 영조척(營造尺, 목척(木尺)이라고도 하며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이 쓰던 자 약 29.7cm)으로 가로는 8자(尺) 3치(寸)(약 246cm), 세로는 10자(尺) 8치(寸)(약 320cm), 표적의 중심부인 관(貫)의 크기는 가로 2자(尺) 2치(寸), 세로는 2자(尺) 4치(寸)로 기술되어 있다.

관혁(貫革)과 유엽전(柳葉箭)에 대해서는 속대전(續大典)에 나와 있는 바, 표적까지의 거리는 15보(약 180cm)이며 표적 즉 과녁의 크기는 영조척(營造尺)으로 가로 8자(尺) 3치(寸)(약 246cm), 세로 10자(尺) 8치(寸)(약 320cm)이고, 관(貫)은 전체 길이와 넓이의 1/3이었다고 한다.

유엽전(柳葉箭)은 120보(약 144m)의 거리이고, 표적의 크기는 영조척으로 가로 4자(尺) 6치(寸)(약 137cm), 세로 6자(尺) 6치(寸)(약 196cm)로 관혁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의 1/3이었다고 한



다.

이상의 것은 속칭 관소관혁(官所貫革)이라고 불리는 표적이었으며, 민간연사(民間燕射)에 쓰였던 후(侯)는 중포(中布)라고 하여 가로 10자(尺) 세로가 14자(尺)로서 중국고제(中國古制)의 구사도(九射圖)와 같이 후(幟)의 표면에 사슴, 멧돼지, 꿩들을 그렸다.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바탕' 이라고 하는데 후도(幟道)가 이것이다. 연사(燕射)의 고제(古制)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90보(步), 제후(諸侯)는 70보(步), 대부(大夫)와 선비(士)는 50보(步)로 하는 계급적 차별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의 민간연사(民間燕射)의 '솔바탕' 즉, 중포(中布)의 후도(幟道)는 80보(步)로 하였다. 이는 현행곡척(現行曲尺)으로 360자(尺) 8치(寸), 즉 52간(間) 8분(分)에 상당(相當)하고 유엽전의 법정보수(法定步數) 120보(步)는 475자(尺) 2치(寸), 즉 79간(間) 2분(分)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녁 및 거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과녁 및 거리는 1960년대 대한궁도협회(大韓弓道協會)가 통일시킨 것으로 조선시대 무과의 한 과목이었던 유엽전의 표적에 준한 것이다. 즉 현행과녁의 크기는 현행곡척으로 가로 6자(尺) 6치(寸)(약 200cm) 세로 8자(尺) 8치(寸)(약 266.7cm)이며 사대(射臺)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145m로서 15도 경사로 세우고 있다. 또한 요즈음 과녁은 대개 적당한 크기의 육송(陸松)으로 만들며 화살촉이 맞으면 표면이 손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를 입히고 도료를 칠한다.

대나무로 만든  
십장생 무늬의  
전통(箭筒). 조선  
후기 화살을 넣  
어 보관하던 통  
으로 미려한 외  
관이 눈길을 끈  
다.(자료제공:육군  
박물관)



#### (나) 궁시의 부속품

궁시의 부속품으로는 궁대(弓袋), 전통(箭筒), 각지(角指)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궁대는 부린 활을 싸두는 것으로 천을 사용하여 만들며 형태는 전대(錢帶)와 비슷하다. 한쪽은 막히고 끝에 ‘밀피’를 달기도 하는데 밀피 속에는 시위에 입히는 밀을 보관한다.

화살을 넣어두는 전통에는 지제(紙製), 죽제(竹製) 기타 오동 같은 목제(木製)가 있으나 지제를 상품(上品)으로 삼는다. 그 까닭은 습기방지가 잘되고 가볍기 때문이다. 통 표면에는 송죽(松竹) 같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 십장생(十長生), 호랑이 등을 새기기도 하며 무사의 상징을 표현하는 글귀를 써놓기도 한다. 또한 뚜껑머리에 호두(虎頭)를 새겨 장식하는 일도 있으며 화살 10개



화살촉을 뽑거나  
조이는 데 사용  
한 축돌이. 축수  
건에 싸서 가지  
고 다녔다고 한  
다. (자료제공:육군  
발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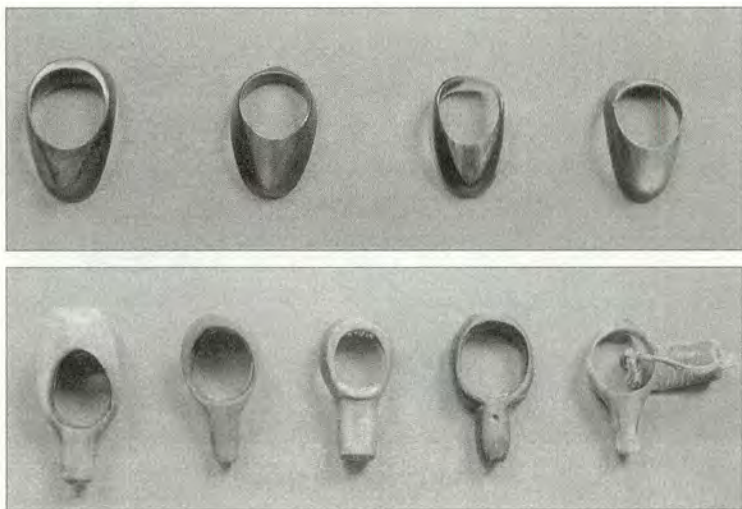
~15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과거에는 각지, 밀, 기타 자질구레한 물건을 넣는 두루주머니와 쇠촉을 박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축돌이’, 화살을 닦기 위한 ‘살수건’ 등을 조승이라는 고리와 함께 꿰어 이것을 전통에 매달아 두었으나 현재 축돌이는 필요가 없어지고 주머니와 수건을 사용하고 있다.

각지는 쇠뿔로 만들며 시위를 당길 때 암이에 낀다. 각지의 종류에는 암각지와 수각지가 있는데 수각지는 수혈각지라고도 불리며, 뾰족한 뿔이 달리고 암각지는 이것이 없다. 편의에 따라 어느 것이나 쓰지만 현재 수각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암각지를 사용한다.

팔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한복의 넓은 소매를 감아 활을 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 ‘팔지’를 두르기도 하나 소매가 넓은 한복

암깅지(위)와 솥 깅지(아래), 활 시  
윗줄을 당길 때  
엄지손가락에 끼  
워 사용하는 도  
구이다.(자료제공:  
육군박물관)



을 입지 않는 요즈음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통 활을 쏘 때는 삼지에 끼며 쏘지 않을 때에는 활이 비뚤어 지거나 어느 한편으로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에 끼는 실가락지가 있는데 이것을 '삼기근'이라 한다.

이외에도 사정(射亭)에는 과녁 주변에서 주운 화살을 사대(射臺)까지 보내는 '운시대' (살날이) 등이 있다.

## (2) 성무정

성무정은 언제 조성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구한말부터 소사읍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활을 많이 쏘았다고 부천 궁도인들의 구전(口傳)으로 전해 올 따름이다.





소사구 심곡본동  
산7번지에 있는  
성무정의 현재  
모습. 심신수련을  
하기에 좋아 많  
은 사람들이 찾  
아오고 있다.

당초 1910년경에는 사정 이름이 소학정(素鶴亭)이었으며, 스무 명 남짓이 회원을 구성해서 활쏘기를 시작했다고 전해 온다. 그 당시 군사들은 오늘날 심곡본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별관 자리에서 동쪽에다 과녁을 놓고 쏘았다고 한다.

이렇게 궁도인들이 터전을 잡아 궁술을 익혀오던 것이 6·25 동란으로 중단됨으로써 한 때 부천궁도 문화가 침체기에 빠지기도 했다. 한동안 뜸하다가 1958년에 소학정을 계무정(桂武亭)으로 사정 이름이 바뀌면서 소사읍, 오정면, 계양면 등 옛 부천군의 군사들이 모여 기량연마를 했다.

부천지역 군사들의 쟁쟁한 궁술실력이 외부에 알려진 시기는 1960년대로, 전국체전을 포함한 전국 규모대회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1960년대가 부천궁도인들이 궁술을 전국에 알렸던 시기

성무정의 보수공사 하기 이전의 모습(1996년도).



이기도 하지만, 사정의 명칭이 오늘날의 성무정이 되기까지 세차례에 걸쳐 개명(改名)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즉, 1962년에는 계무정에서 용호정(龍虎亭)으로, 1966년에는 용호정에서 소성정(蘇聖亭)으로, 1967년에 와서 소성정에서 성무정으로 고쳐지면서 오늘의 부천 궁도문화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성무정은 현재의 활터가 있는 성주산의 성(聖)자와 무(武)라는 무(武)자의 머리를 따서 만든 것이다.

성무정의 초대 사두(射頭)는 고구려 각궁의 세조비법(細造秘法) 소유자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47호인 고(故) 김장환(金章煥)선생이 선임되었다.

1984년 작고하신 김장환선생은 부천시의 협조를 받아내고 아울러 많은 사재(私財)를 들여 오늘날의 성무정을 건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

이다.

김장환선생의 뒤를 이어 1983년에 제2대 사두로 선임된 한성근(韓聖根)옹은 20대에 활쏘기를 익히기 시작해 60여 년의 궁력(弓歷)을 지닌 분으로서, 80대 후반인 현재에도 명궁으로서 궁술 익히기에 여념이 없다.

1985년 제3대 사두로 취임한 최상헌(崔相憲)옹은 많은 사재를 들여 전국대회를 개최, 사정의 증축, 보수, 확장을 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

1988년에 제 4대로 취임한 이정우(李貞雨) 사두는 그동안 성무정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전임 사두들이 남긴 업적을 기려 정기적으로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제1의 사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무정에서 전통적인 궁술을 갖고 닦아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한 사람은 전국대회 규모로 봐서 1990년 이전만 해도 단체 입상이 72회에 이른다. 즉, 단체 우승이 35회, 준우승이 18회, 3위를 19회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이 우승한 것도 총 7회에 이르는 우수한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궁도하면 부천으로 통하던 시절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바로 성무정이다.

### (3) 도당동의 청학정(靑鶴亭)

도당동에는 자랑할 만한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청학정이다.

청학정은 우리 동네 옛 선조들이 무예를 닦고 정신수양을 행하



기 위해 만들어진 활쏘는 곳이다. 지금도 그 후예들이 맥을 이어 각궁(角弓: 쇠뿔이나 양뿔, 물소뿔 등으로 만든 활)으로 활을 쏘며 체력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어 기슴 뿌듯하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궁도는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된다.

도당동에 터를 잡고 있는 청학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청학정은 해방 전 부천군 오정면 당시 원종리에 살던 고(故) 한 경락씨의 주선으로 인근 동네에서 3, 4명씩으로 구성, 30여명의 궁사를 모집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한데 모여 체력을 단련하고 활쏘는 기술을 연마하여 이웃 궁사들과 편사(便射: 지난 날 궁사끼리 편을 갈라 활을 쏘는 재주를 겨루던 일)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 맥은 이어져 왔지만 6·25 이후 점차 생계가 어려워지자 활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그 후 뒤를 잇는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그 맥이 점차 희석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도당동에 생존하는 송세구씨가 그 때 익힌 활 솜씨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활쏘는 사람이 30여명에 이르게 됐다.

여러 궁사들이 송세구씨를 초대 사두(射頭: 회장)로 선발하여 지난 1980년 10월 5일 ‘청학정’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살려 오늘 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81년에는 인천시에 있는 청룡정의 궁사들과 일년에 두 차례씩 활쏘기대회를 하고, 또 1984년부터는 군자면 소



재 군자정 궁사들과 궁도대회를 갖기도 했다.

이렇게 궁술을 익혀 매년 전국 활쏘기대회에 참가, 많은 개인상과 단체전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전으로도 대한궁도협회에서 인정하는 3단의 기술을 연마, 경기도 대표선수로 발탁돼 우수한 선수생활을 한 궁사도 있다. 최근에도 부천시 대표 궁도선수로 2~3명씩 매년 전국대회에 참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청학정을 사랑하는 궁사들의 끊임없는 사습(射習: 활쏘는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록 청학정이 사정(射亭: 활쏘는 집)도 없이 현재 노지에서 궁술을 익히고 있지만, 앞으로 30여명의 사원(射員)은 자체 사정을 단련해 더 열심히 사습에 전념할 것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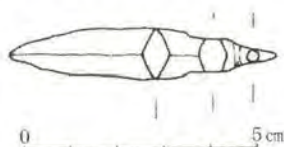
1. 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1
2. 최주석, 《한국 궁도의 발자취》, 《국궁 1번지》, 1994
3. 인천직할시궁도협회, 《인천궁도》, 1994
4. 인천직할시궁도협회, 《조선의 궁술》, 1994
5. 부천시, 《복사골 부천》 통권 24호, 1994
6. 김성태, 《고구려 무기》, 문화재 제27호, 1994
7. 중앙일보사, 《계간 미술》, 제14호, 1980
8. 육군정보학교, 《국궁》, 1991
9. 조선일보사, 《주간 조선》, 1986. 3.
10. 양재연, 《한국의 궁술》, 문화재 관리국, 1970
11. 대한 궁도협회, 《한국의 궁도》, 1986
12. 부천문화원, 《복사골 문화》, 1988
13. 유명기 · 유세현, 《우리나라의 궁도》, 화성문화사, 1991
14. 동아제약주식회사, 《동아약보》, 1985. 5.
15. 육사 유군박물관, 《한국의 활과 화살》, 1994. 10.

• 길이 4.7cm 너비 1.3cm 두께 0.65cm 경부길이 2cm



1997년 여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선사유적 2차 발굴조사 때 6호 주거지에서 나온 돌로 갈아만든 화살촉. 기원전 8~9세기로 추정된다. (자료제공: 한양대학교 박물관)

• 길이 6.6cm 너비 1.3cm 두께 0.7cm 경부길이 2.1cm





## 부록

### 1. 궁시 관련 용어

- ㉠ 궁시의 부속품에 관한 용어
- ㉡ 활을 쏘 때 사용하는 용어
- ㉢ 사정(射亭)에서 사용하는 용어

### 2. 성무정에 세워진 비문 음기(碑文 陰記)

- 3. 궁시장 김박영
- 4. 부천활박물관
- 5. 육군박물관
- 6. 영집궁시박물관
- 7. 주요 도시 국궁장



여 백

## 부록1. 궁시 관련 용어

### 가. 궁시의 부속품에 관한 용어

- (1) 각지(角指): 깍지라고도 하며 주로 쇠뿔로 만든다.  
각지손, 엄지손가락에 끼며 시위를 당길 때 사용한다.
- (2) 고전기(告傳旗): 화상의 적중여부를 알려주는 깃발
- (3) 두루주머니: 과거에 궁시와 부속품을 넣어두는 주머니로써 전통에 매달아 두었음.
- (4) 메뚜기팔찌: 활쓸 때 넓은 옷소매를 잡아매는 메뚜기 장식의 팔찌
- (5) 밀피: 시위에 바르는 밀을 씻는 가죽이나 포속
- (6) 보궁(保弓): 얇은 활이 틀어지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끼워두는 실가락지
- (7) 사정기(射亭旗): 사정을 대표하는 깃발
- (8) 산주(算珠): 활을 쏘 때 순(巡)을 계산하는 구슬

- (9) 살방석: 화살을 닦는 제구
- (10) 살수건: 화살을 닦는 수건
- (11) 살수세미: 활촉을 문질러 닦는 데 쓰는 대수세미
- (12) 살날야: 무겁에서 주운 화살을 사대까지 보내는 기구
- (13) 삼지끈: 보궁(保弓)과 같으며 삼지에 끼는 실가락지라는 데서 삼지끈이라고 부름.
- (14) 암각지: 평각지와 같으나 앞부분이 시위가 걸리도록 약간 파여 있음.
- (15) 운시대: 살날야와 같음.
- (16) 유열각지: 각지손가락으로 당기도록 길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며 숫각지라고 함.
- (17) 온각지: 각지의 뿔안쪽에 흰색의 둥근 테가 있는 것
- (18) 장족(獐足): 과거 나무과녁에 고무판을 입히지 않았을 때 과녁에서 살을 뽑는 노루발 같이 생긴 기구
- (19) 장족마치: 화살 뽑을 때 장족을 두드리는 망치
- (20) 전통주머니: 두루주머니와 같음.
- (21) 점화통: 알맞은 온도를 유지토록 하여 활을 보관하는 통
- (22) 촉도리: 활촉을 뽑거나 박는 기구
- (23) 팔찌: 한복 등 넓은 소매의 옷을 입을 때 활 쥐는 팔소매를 잡아매는 기구
- (24) 평각지: 일반적으로 활을 쏘 때 쓰는 각지를 말함.
- (25) 획득(獲旌): 화살이 과녁에 맞은 것을 알리는 기(旗), 고전기(告傳旗)와 같음.

## 나. 활을 쏘 때 사용하는 용어

- (1) 공현(空弦): 화살이 시위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활을 쏘는 것.
- (2) 더 가는 것: 살이 과녁을 지나가는 것, “크다”라는 말로도 표현함.
- (3) 덜 가는 것: 살이 과녁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작다”라는 말로도 표현함.

부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노력해온 송승영 전 부천문화원장이 구도대회에서 화살을 깎지에 끼워 활쏘기를 준비하고 있다.





- (4) 낙전(落箭): 활을 쏘는 도중 화살이 시위에서 떨어지는 것.
- (5) 물촉: 활을 당길 때에 화살촉이 줄을 지나 들어오는 것.
- (6) 반구비: 화살의 살고가 알맞아 적중할 수 있게 가는 것을 말함.
- (7) 살고: 화살이 뜨는 높이
- (8) 양(楊): 화살이 과녁의 위를 맞힌 것을 이르는 말
- (9) 원구비: 화살이 높이 가는 것을 말함.
- (10) 종따: 과거 편사(便射) 때 마지막으로 활을 쏘는 사람을 말함. 현재에는 막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11) 한량(閑良): 본래 조선시대의 호반(虎班)을 말하며 점차 의미가 변하여 일반적으로 활을 쏘는 사람을 말함.
- (12) 행수(行首): 한량을 영솔하는 사람
- (13) 획창(獲唱):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였을 때 획관(獲貫) 옆에서 “맞췄소” 하고 외치는 사람

## 다. 사정(射亭)에서 사용하는 용어

- (1) 개자리: 과녁 앞에 웅덩이 등을 파고 사람이 들어앉아서 살의 적중여부를 확인하는 장소
- (2) 고전(告傳): 활활터의 과녁 가까운 곳에서 활의 적중여부와 떨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것
- (3) 과녁: 널판으로 만든 술

창덕궁 소재 화살을 유영기씨가 복원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화살들. 위로부터 끈이 달린 화살(주살), 왕이 사용한 전투용 화살(어장전), 검은 옷칠을 한 수렵용 화살(노시), 붉은 옷칠을 한 수렵용 화살(동시)이다. (자료제공:육군박물관)



- (4) 관소 과녁: 과거 볼 때에 150보를 한정하여 쏘던 과녁
- (5) 궁각계(弓角契): 조선시대 때 선혜청(宣惠廳)에 활의 재료를 공물(貢物) 형식으로 바치던 계(契)
- (6) 궁방(弓房): 활을 만드는 곳
- (7) 궁사(弓師): 활 만드는 사람, 궁장(弓匠)과 같음.
- (8) 궁시무(弓矢舞): 과거 군기(軍旗)에 제사를 지낼 때 추는 춤의 한 가지
- (9) 궁전(弓箭): 궁시(弓矢)와 같음.
- (10) 궁정(弓旌): 활과 깃발(旗)
- (11) 궁척(弓尺): 한량(閑良)과 같음, 또는 신라시대의 활 쏘던 병졸
- (12) 대궁승시(大弓乘矢): 예전(禮箭)을 쏘 때 사시(四矢)를 쏘는데 사수(四數)를 승(乘)이라 하므로 예궁(禮弓)과 예전(禮箭)을 칭하는 대궁승시라고 하였음.
- (13) 띠: 대(隊)라고도 하며 활터에서 한 패에 몇 사람씩 나누인 패(그룹), 즉 같은 사대에서 서서 한 과녁을 향해 쏘는 일



단원 김홍도가 그린 활쏘기 모습  
에서 활과 화살을 교정하는 장면  
과 활쏘는 자세를 교정하는 교관  
의 진지함을 살펴볼 수 있다.(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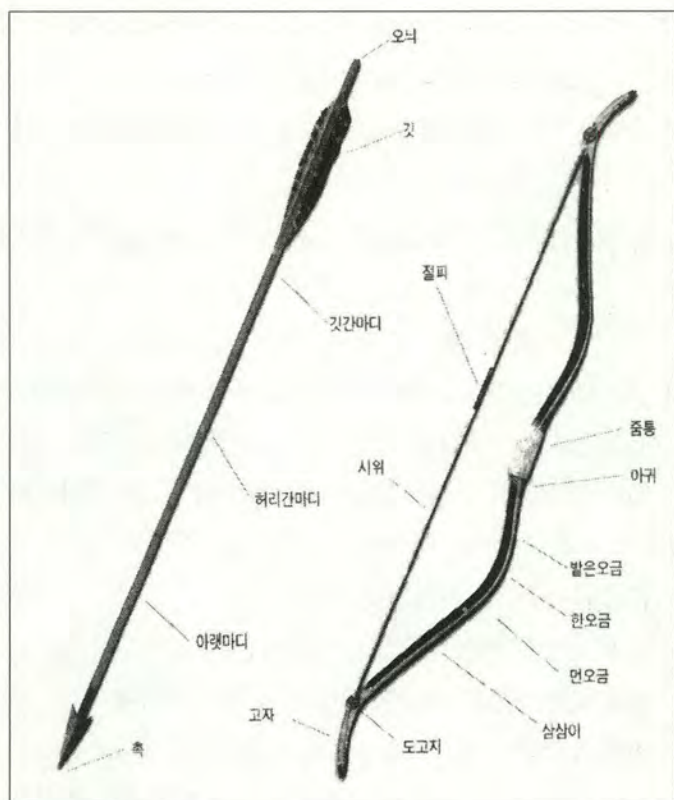
## 개조

- (14) 막순: 종순(終巡)이라고도 하며, 마지막에 쏘는 한 순(巡)
- (15) 물기: 한 순(巡) 쏘 때 다섯 개가 다 맞는 것을 말함.
- (16) 무갑: 개자리와 같은 말
- (17) 바탕: 화살이 가는 거리, 즉 사대(射臺)에서 과녁까지의 거  
리
- (18) 벌이줄: 과거에 과녁을 베로 만들어 걸었을 때 솔대를 잡  
아당기는 줄
- (19) 사계(射契): 사정에서 사원들 끼리 하는 계

- (20) 사대(射臺): 활을 쏘 때의 서는 자리
- (21) 사말(射末): 사원이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
- (22) 사법(射法): 활을 쏘는 법, 사예(射禮)라고도 함.
- (23) 사정(射亭): 활터에 세운 정자
- (24) 사정기(射亭旗): 사정을 대표하는 깃발
- (25) 사풍(射風): 한량 사이의 풍습
- (26) 살밭이: 과녁을 세운 전후좌우의 화살 떨어지는 장소
- (27) 설자리: 사대와 같음
- (28) 소포: 포속으로 만든 술
- (29) 술: 나무와 포속으로 만들어 화살을 맞히는 목표, 사적(射的)이라고도 함.
- (30) 술대: 소포를 버티는 나무
- (31) 순전: 무겁 앞
- (32) 시장(矢匠): 화살을 만드는 사람
- (33) 시지(試紙): 시수(矢數)를 기록하는 종이
- (34) 앙사(仰射): 사대(射臺)의 높이보다 높은 과녁을 향하여 쏘는 것을 말함.
- (35) 연전길: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길
- (36) 연전동: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아이
- (37) 일순(一巡): 한 번에 차례대로 돌아가며 화살 5개를 쏘는 것
- (38) 일획(一劃): 관사 과녁에 10순(巡)을 쏘는 것, 즉 50시(矢)를 말함.



- (39) 장: 활을 쏠 때 쓰는 말
- (40) 전사과녁: 내기할 때 쓴 과녁
- (41) 점화(點火): 각궁 제작시 부레풀을 접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 접착부분이 떨어져 탄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하게 건조 보관하는 것을 말함.
- (42) 정순(正巡): 정식으로 활을 쏘는 것
- (43) 중포: 소포보다 큰 솔
- (44) 초순(初巡): 처음 쏘는 한 순(巡)
- (45) 터과녁: 거리는 120보에 한하고 습사(習射)할 때 쓰는 소포나 과녁
- (46) 토성(土城): 무겁 뒤 흙을 쌓아 화살이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하는 곳
- (47) 편사(便射): 사정과 사정이 평소 닮은 기량을 서로 비교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것
- (48) 평사(平射): 과녁과 높이가 같은 사대(射臺)에서 활을 쏘는 것을 말함.
- (49) 하말(下末): 사말과 같은 말
- (50) 하사(下射): 사대(射臺)의 높이보다 낮은 과녁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것을 말함.
- (51) 해갑순(解甲巡): 종순(終巡)과 같은 말로써 원래 무사가 갑옷을 벗는다는 뜻에서 사용되었음.
- (52) 해궁(解弓): 활을 다 만든 후 양편의 균형을 살피며 빼돌려진 부분을 바로 잡은 후 시위를 걸고 불에 쪼여 가며 다시



바로 잡은 다음 시위를 풀고 2~3일 간 점화 후에 바른가를 확인하는 작업

- (53) 홍심(紅心): 과녁의 빨강게 칠한 둥근 부분, 일관이라고도 함.
- (54) 활터: 활을 쏘는 곳, 사장(射場)이라고도 함.
- (55) 획지(劃記紙): 시지(試紙)와 같음, 과거의 대회에서 참가

선수의 시수(矢數)를 기록하여 우수한 선수에게 준 두루마리 형식의 시지(試紙)를 말하기도 함.

(56) 거기한량(擧旗閑良): 살이 맞는대로 살받이에서 기를 들어 알리는 한량

(57) 계장(契長): 사계(射契)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옛날의 도유사(都有司)와 같은 말

(58) 구사(舊射): 활을 오래 쏜 사람

(59) 대살판: 일획(一劃)에 25시(矢)를 맞히는 사람

(60) 명궁(名弓): 활을 잘 쏘는 사람, 명무(名武)라고도 함.

(61) 무겁한량: 무겁을 간검(看儉)하는 한량, 즉 활터에서 적중 여부를 검사하는 임무를 맡은 한량

(62) 사두(射頭): 사정을 대표하는 사람

(63) 사범: 사원에게 궁도를 가르치는 사람

(64) 살판: 일획(一劃)에 20시(矢)를 맞히는 사람

(65) 소살판: 일획(一劃)에 15시(矢)를 맞히는 사람

(66) 수띠: 편사(便射) 때의 편장으로 맨 처음 활을 쏘았음.

(67) 시수꾼: 일획(一劃)에 25시(矢) 이상을 30시(矢)로 인정하고 30시(矢) 이상을 맞히는 사람을 시수꾼이라고 함.

(68) 신사(新射): 처음 활을 배우는 사람

(69) 여무사: 여자 사원

(70) 장족한량(獐足閑良): 장족(獐足)을 가지고 과녁의 살을 뽑는 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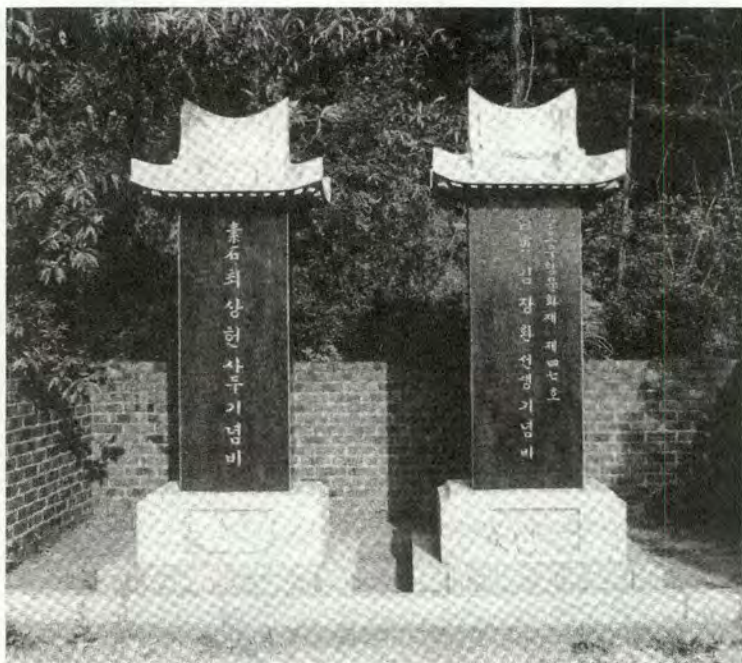
(71) 유(留): 화살이 과녁의 아래를 맞힌 것을 이르는 말

- (72) 줌앞: 화살이 줌손의 앞방향으로 가는 것
- (73) 줌뒤: 화살이 줌손의 뒷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함.
- (74) 총빠지는 것: 화살이 떨어져 가는 것을 말함.
- (75) 평찌: 화살이 평평하고 낮게 가는 것을 말함.
- (76) 한배: 화살이 좌우 편차와는 관계없이 과녁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을 말함.
- (77) 한 살: 한배와 같음.
- (78) 획(獲): 화살이 과녁의 북판을 바로 맞힌 것을 이르는 말



여 백

## 부록2. 성무정에 세워진 비문 음기(碑文 陰記)



성무정에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세워진 김장환 선생과 최정현 사두의 기념비. 부천 궁도 발전을 이끈 지도자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오른쪽이 김장환 선생 기념비, 왼쪽이 최상현 사두 기념비.

## 가. 김장환 선생 기념비

- 전면(前面)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 백인(白寅) 김장환 선생 기념비

- 후면(後面)

복사꽃 향기 그윽한 이 땅으로 하늘이 보내주신  
명인, 가업을 전수하여 일평생을 우리 전통예술인  
각궁 제조에 불태우시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로 지정 받으시고 궁도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  
기셨으니 선생의 분신과도 같은 불후의 명작들은  
천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궁도인들의 아낌을 받  
으며 찬연히 빛났다. 스스로 궁도인이 되어 백발  
백중(백발백중)의 솜씨를 자랑하셨으나 깊은 정성  
과 노력으로 빛은 뛰어난 기예는 천하의 명장이라  
할만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발자  
취는 부천시민의 등불이 되었다.

비록 선생은 가셨지만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청주  
산 기슭 활터에 님의 유덕을 기리고 모든 궁도인  
의 흠모의 뜻을 담아 여기 새기다

1986년 5월 1일

부천시청 사원 일 동

※김장환 선생 약력※

- 1909. 2. 3      부천군 부내면 신대리에서 출생
- 1923            계궁업에 종사시작
- 1954            경기도 궁도협회 이사겸 사범
- 1957            대한궁술 연구원 개설
- 1961            부천시청 사두
- 1964            경기도 문화상 수상
- 1972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지청
- 1982            부천시 궁도협회장
- 전국궁도대회에서 100여회 입상
- 1985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작고
- 슬하에 기원(基源), 기흥(基興)을 둠



## 나. 최상헌 사두 기념비

### • 전면(前面)

## 소석(素石) 최상헌 사두 기념비

### • 후면(後面)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장을 빚내기 위해 오로지  
힘쓰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진데 그 어려운 일을  
항상 앞장서 실천해 오신 장한 분이 최상헌 사두  
이시다.

성무정 발전을 위해 많은 사재를 들여가며 헌신하  
신 그 공은 이 성주산 보다 높으며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봉사하신 업적은 부천벌보다 넓다.

그토록 궁도를 사랑하시고 궁도인을 위한 일이라  
면 발벗고 나서서 성무정을 전국 제일의 사정으로  
키운 크나큰 업적을 기리고자 이 비를 세우다.

1986년 5월 1일

부천성무정 사 원 일 동

※최상헌 사두 약력※

1917. 7. 7	부천시 소사읍 표철리에서 출생
1993	교통부 철도국 근무
1981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1983	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 선임
1984	부천시 궁도협회장 선임
1984	부천시 성무청 사두선임
1985	교통부 장관 표창

슬하에 동혁, 장혁, 기혁(東赫, 璋赫, 起赫)을 둠

여 백

## 부록3. 궁시장 김박영

조귀순

수필가 · 부천문화 편집위원

### 가. 활 맹그는 사람

부천시 소사구 십곡동 성주산에 올라가면 활터 성무정(聖武亭)이 있다. 그 아래 작은 방 하나가 중요무형문화제 47호 궁시장인 김박영 선생의 공방이다. 선생이 활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 그 이전에도 간간이 만들었지만 경기궁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이곳 소사로 올라온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라 하겠다.

그는 1929년 12월 20일,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예천은 활을 만드는 고장으로 유명하다. 예천사람 치고 활 못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할 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활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의 선친도 일제 때부터 활을 만드셨다. 그러니 코흘리개 어렸을 적부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고자란 셈이다.

18세에 가장(家長)이 된 그는 활을 만들기 전엔 메리야스 짜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돈벌이가 되지 않아 농사짓는 일만 빼놓고 갖은 일을 다 했다. 그런데 고종 사촌형이 찾아와 활 만드는 거나 거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주변에서는 이왕이면 새로운 일을 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돈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낫설지도 않을뿐더러 또 무엇보다 재미를 느끼니 저절로 손이 갔다. 어려서부터 눈



활을 만들면서 웃고 있는 김박영 선생.

썰미가 좋아 무엇이고 손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던 터였다.

“소사에서 사람을 쓴다더라. 할 맹그는 사람을 구한다니 한번 가봐라!”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귀뜸을 해주었다. 사실 황은 예천이나 서울보다도 경기 궁을 제일로 쳐주었다. 그런데 소사(지금의 부천)라 하면 바로 그 경기궁을 만드는 곳이니 귀가 솔깃했다. 친구가 다녀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새웠다. ‘그래 기왕이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소사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마음을 다잡고 밤차를 탔다. 1965년이였다. 난생 처음 가족들을 남겨놓고 혼자 상경하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생각이 앞서 결심은 했지만 내심 걱정도 많았다. 좀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떡하든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나를 믿고 시집온 아내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시골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자니 겁도 났다.

“일 배우러 왔습니다.” 소사(당시 소사군)의 김장한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다. 배가 고팠던 차에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데 숟가락을 놓자마자 일을 시켰다.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왔는데, 다만 1시간이라도 쉬라고 하길 바랐다. 야속하다 생각하니 그 무엇이 가슴을 치받아 쳤다. ‘그래 기왕에 맘먹고 올라왔으니 해보자.’

굳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거리를 손에 들었다.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아왔던 것과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차근차근히 해나갔다.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라던가 무엇을 하라던가 알려주시는 것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보고만 계셨다. 머릿속에는 활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활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엇갈리듯 스쳐갔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가리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자네 하는 것을 보니 싹수가 있다”고 받아주었다. 그간 일하는 것을 보고 시킬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다가 그만둘 사람인지를 보신 것이다.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그 길로 내려 보낼 참이었다. 그게 오늘까지의 이곳 부천에 있게 된 시작이다.

그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훌훌단신 올라왔으니 어떻게든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일념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만들어 보았다. 금방 활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이 새삼 신기했다. 재료를 구해오고 옆에서 잔심부름만 해도 좋았다.

공방에서 먹고 자고 눈만 뜨면 재료를 다듬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떨 때는 밤을 새기도 했다. 때때로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 한 가지 일을 몇 번씩 해내도 칭찬을 듣지 못했고, 그렇다고 혼나는 일도 없었다. 스스로 깨우쳐 나가라는 뜻이니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다. 차츰 선생님께 신임을 받기 시작했다. 식구들이 부친으로 이사를 하여 온 가족이 한 집에서 사니 맘 편히 일에 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활 만드는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라 말한다. 겉에서 채찍질이 없으면 한없이 나태하기 짝이 없는 일이란다. 일정하게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본뜨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하나가 수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떤 공식이나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터득하는 바가 없다. 무한한 인내심과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이 일이 재료를 구입해오는 일을 빼고 나면 처음부터 완



성되기까지 정좌의 자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몸을 뒤틀기 시작한다. 수시로 다리가 저러오는 것을 참아내고, 온종일 앉아있다 보면 쥐가 나서 통증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엄하다 못해 늘 무서웠던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다리를 펴고 앉아보질 못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나가 놀라고 할 때까지 앉아있던 것이 이렇게 이 일에 밑거름이 될 줄을 몰랐다고 한다.

## 나. 자신과의 싸움

1971년 9월 국궁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우리의 활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그때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이의 기질도 필요하다고 했다. 험하고 외로운 장인의 길, 활의 몸체를 재단하고 고르게 깎으려면 손이 부르르고 터진 다음엔 굳은살이 박인다. 활 깎기도 힘이 들지만 민어부레로 만드는 풀과 심농이로 쓰는 쇠심줄을 풀어 만드는 일도 참 어려웠다고 한다. 민어부레 풀은 화학접착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아무리 활을 사용해도 균열이나 변성이 오지 않으며 대단히 우수한 접착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공식이나 계량이 따로 없다. 혼합물의 양이 같더라도 그 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묽어지거나 되게 된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넣으려 해도 자연현상에 따라 어긋나는 일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숙련된 감(感, 느낌)으로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풀을 끓여가면서 눈짐작으로 농도를 맞췄다.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된다.

소 심줄은 기름기를 모두 빼내는 일이 어렵다고 했다. 최소한 7~8번은 빨래를 하듯이 비벼 뺀다. 그것을 말려 두드리면 흰 머리카락이나 명주실 같다. 활 한 장을 만드는 데 소등심줄이 두 개, 소뿔도 두 개는 있어야 하니 최소한 세 마리는 있어야 한다.

활 만드는 과정에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가 도지개치는 작업인 해궁이라고 한다. 활의 균형과 쏠 때의 감이 어떤지 판별해주는 해궁은 장이의 경지를 드러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도지개와 밧줄을 이용하여 활에 시위를 처음으로 거는 과정인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

는 것처럼 한 쪽으로 기울거나 뒤틀린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몸을 뒤틀어 장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활이 생명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란다. 잊혀지지 않는 일은 해궁을 할 때 었다. “내 우리 아들한테도 안 가르친 건데 자네는 믿음이 가니 특별히 알려주는 거네.”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웠다. 선생님이 일러준 대로 몇 번이고 했다. 더 해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꼭 활 만드는 것에 미친 사람 같았다.

활을 만들 때 몸과 마음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의 활이 완성되기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만드는 사람의 혼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정신이 올 바라야 화살을 끼워 당기면 곧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활을 만드는 일과 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조금이



활을 만들고 있는 김박영 선생



라도 맘이 흐트러진 채 만들면 균형이 맞지 않고 시위를 당겨 보면 단박에 표가 난다. 때문에 쓰는 사람의 기가 옳고 사용하는 공구가 적합해야 관중이 된다. 그러기에 같은 재료 같은 기법으로 만든 활이지만 좋은 활이 나오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맘에 들 정도로 흡족한 활이 나오면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는 재료를 구하는 일도 각별하다. 큰 시장이나 어느 공장에서 그냥 사오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일일이 산지로 구하러 다녀야 한다. 원재료가 좋아야만 좋은 활이 나온다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른다. 쓸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또 살핀다. 일상적인 것에는 너그럽고 까다롭지 않다.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나 활에 관한 일은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 작은 것이라도 최고로 적합하고 올고른 것을 고른다.

1978년 전수 장학생이 되었다. 전수 장학생은 5년 간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 이수 과정을 거쳐야 조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조교가 되면 제자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검인되는 만큼 선발 기준이 엄격하다. 때문에 이수자라고 해서 쉽게 조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코 짧지 않은 5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절망을 느끼면 집어치우고 싶을 텐데 이 일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꿈에서도 활을 만드니 활과는 운명적인 인연이구나 싶었다. 그리하여 1982년 12월,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수자가 되었다.



그런데 1984년 느닷없이 김장한 선생께서 돌아가셨다. 철몰랐을 당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었다. 이수자는 되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국궁을 위해 후계자들을 키워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방 문을 열었다. 선친과 스승의 뜻을 받들며 활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갔다.

## 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1987년 2월 조교로 인정됐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활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간간이 이 일을 배워보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앉아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보니 답답해서 견디질 못했다. 아침밥 먹고 해 질 때까지 꼬박 앉아 있는 것만 보고도 기가 질려 나자빠진다.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 게다가 사실 전통국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론이나 연구 자료가 없다. 막연하고 생소한 일인 것을 알면서 배우겠다는 사람도 드물지만, 간혹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사나흘이면 제풀에 지쳐서 돌아서고 만다. 벌이도 시원찮으니 잡지도 못한다. 참지 못하고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 허탈해진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책임감은 커지고 이어갈 사람은 없으니 더 일에 매달렸다.

활을 만들고 있는 김박영 선생.



그러던 중 1988년 아내를 잃었다. 평소 혈압이 높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레 쓰러질 줄은 정말 몰랐다. 아내 나이 겨우 쉰 살이니 청천벽력이었다. 사남매 키우며 먹고 살기 급급해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한 달 내 일을 하고 가져다주는 돈은 고작 90만원, 오늘날까지 쌀 한 포대가 얼마인지를 몰랐다. 돌이켜 보건데 남들처럼 외식도 못했다. 생일에조차 그 흔한 자장면 한 그릇 사먹으러 나간 적이 없었으니 변변히 선물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단지 벌은 돈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다 갖다 주었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기원씨가 교통사고를 당했

다. 활 구입처에 물건을 주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갑자기 스승과 집사람과, 같이 일하던 친구까지, 소중한 동반자를 다 잃고 나니 의욕도 없었다. 그러나 실의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선생님택의 손자들이 그만 바라보고 있으니 난감했다. 활을 만들어야 생활이 되었다. 그의 월급으론 그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아주 부족한 때였는데 혼자서 어쩔 것인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돈을 떠나서 면면이 이어온 우리의 전통 문화재인 활을 버릴 수는 없었다.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제 국궁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한동안 정신없었던 마음을 가만히 추스렸다.

그가 만드는 활의 명칭은 맥궁(貌弓)으로 고구려 활이다. 옛날부터 타국의 활로는 명궁 중의 명궁이다. 쏘는 사람의 기력에 따라 강하고 부드러움을 자유자재로 소적할 수 있다. 맥궁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별칭이고 그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각궁(角弓)이라 해야 옳다. 단일재료만 쓰지 않고 몇 가지 재료를 썼다 하여 복합궁이라고도 한다.

1990년 10월 10일, 62살에 준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조궁에 관한 한 달인이다. 여기저기서 취재를 하러 찾아왔다. 경기도내 신문사, 전통공예를 다루는 회사, 지역신문 등 각처에서 왔다. 국방일보의 기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일종의 무기 조공은 하늘이 내린 천직이요, 활은 우리의 역사문화를 보전케 해준 전통병기며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고행의 예술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활을 만들고 있는 김박영 선생



국내외에서도 국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독일 그 전엔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몇 차례 찾아왔다. 양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탄력에 혀를 내둘렀다. 시위를 일러 놓으나마나(일러놓다: 활에 실을 걸어놓는 것) 모양이 변함없는 양궁에 비해 일러놓지 않으면 둥글게 말리는 각궁이 마냥 신기한 것이다. 수천 년을 두고도 제궁 과정이나 재료는 물론,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해준다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난다. 그도 그럴 것이 활은 자신의 눈짐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신기할 정도로 한 치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됐다 싶으면 영락없이 뒤틀려 절망으로 빠트리기도 했다. 하나의 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3천 번의 손길이 가야 한단다. 양궁의 재





부천 활박물관  
개관식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는  
김박영 선생.

료는 광물이며 탄력이 없고 쏘는 맛이 적다. 활을 당겨보면 뻗뻗하고 탁한 소리가 나며 전신이 울린다. 반면 국궁은 동물성과 식물성의 천연재료가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소리를 흡수해 버린다. 당기면 낭창낭창하고 사거리는 145m나 된다니 어디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활 만드는 솜씨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이후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궁도에 대한 인식이 차츰 바뀌어지면서 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 공예대전 등에 출품한 작품들이 수차례에 걸쳐 입상하면서 인식이 바뀐 것도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 그간 대한민국 국궁예 대전에 매년 빠짐없이 입상을 했다. 하지만 국궁은 일러(활에 시위 거는 것) 놓지 않으면 동그마니 볼품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혼

과 정성의 흔적을 알기 어려우므로 큰상을 받지 못한다. 같은 공예전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색채가 화려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을 못 받을 지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정작 바라는 것은 상이나 명성 따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일이다. 누구보다 그는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국궁 보급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마다하지 않고 나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 라.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김박영

1996년 드디어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12월 10일 문화체육부장관(당시)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오직 활 하나에 인생을 걸고 지금 최고 영예의 자리에 올랐다. 비로소 문화재인 기능보유자로 명장이란 칭호를 얻었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세상이 변한다고 현대에 맞는 변형이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의 진수라 생각한다. 오늘 만든 활은 4백년 전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단다. 그가 만든 활은 경복궁 석조전에 3장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또 역대 대통령은 물론 유명인사나 미군 고위 장성들을 비롯하여 외교사절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1998년 6월 부천문화원 주최로 궁시장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부천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를 고양시킴은 물론이고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기능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자리였다.

시장을 비롯해 각계의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의 활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다. 다음해 같은 6월 또 한 차례 문화재를 고취시키자는 이름으로 전통 궁시회를 열었다. 예술제에 궁시대회를 열기도 하고 지금은 활 박물관이 생겨 방학 때는 강의를 한다.

문화공보부에서 한편의 영화를 찍었다. 2002년 4월이다. 우리나라 전통공예를 소개하고 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아직까지 활에 대한 문헌이 없었다. 젊은 사람들이 경기궁을 이해하고 만드는데 제대로 활용할 자료가 되길 바란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한번 활시위의 맛을 알면 무엇보다 매력을 느낄 텐데 아직도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취미 생활로 국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세계화로 가는 길은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생활화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가 성무정으로 오게 된 것은 10여년 쯤 되었다. 그간 가족같이 함께 일 하던 스승의 후손들이 떠나자 오갈 데가 없어졌다. 공방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렇다고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어온 길인데...

고민 끝에 성무정의 사두(射頭)를 찾아가 의논했다. 그곳엔 활터도 있으니 활을 보급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만 같았다.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전



통 활을 만드는 일인데, 이런 훌륭한 일을 문히게 할 수는 없지요” 하면서 흔쾌히 받아주었다. 활을 쏘러오는 사람들도 직접 만날 수 있고 수시로 활을 손 봐 줄 수 있으니 기쁘다.

지금은 그의 막내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지난 IMF 때 실직한 후 몇 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일을 배워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대견하기도 하고 반가워서 손이라도 덥석 잡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라는 말마디만 했다. 인내심을 키울 수 있을지 자못 걱정스러웠다.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활을 만들고 있다 해서 자식들에게도 꼭 하라고는 못한다고 한다.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의욕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활에도 좋지 않단다.

처음엔 어줍은 손놀림으로 따라하던 아들이 5년 전수 장학생을 거쳐 이수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도 단지 아버지만이 아니라 후계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까지 어깨가 더 무겁다. 그가 장인(匠人)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선친의 공은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알려줄 참이다.

한 번 약속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 가족끼리 한 약속이라도 예외는 없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적당히 넘겨도 될 일을 끝이곧대로 하는 그를 보고 융통성이 없다거나 답답하다고도 한다. 요령을 피울 줄을 모르니 “참 속맥이다”라는 말을 가끔씩 듣지만, 그러기에 오늘날 그가 있는 것이리라.

이제 국궁을 위해 기술을 전수할 일만 남았는데..., 미처 다하



지 못한 말미에는 아쉬움이 가득 차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활을 어떻게 만드느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한다. 세월이 더 흐르면 아예 잊혀지거나 앓을까 못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활 하나에 평생을 바치고 살아온 열정, 좌절 속에서도 보람을 찾고 순리를 따를 수 있는 장인정신이 돋보인다.

숲 속의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방 안에서, 의욕에 찬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시끌시끌할 날이 올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무리일까.

아이들의 질문에 그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본다. 봉당 위에 한 걸레였던 하얀 고무신 옆으로 무수한 신발들이 놓여진 공방을 꿈꾸며 성무정 오솔길을 내려왔다.

## 부록4. 부천활박물관

### 염 조 원

한국화가 · 부천문화 편집위원

부천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동쪽에 두고, 서쪽으로는 인천이란 거대한 항구 도시를 인접해 있으면서 별난 유적지 하나 없이 당차게 자립한 문화 도시이다. 옛날 예날 복사꽃이 만발 하던 꽃동네, 아름답고 인심 좋은 복사골의 소박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거듭 발전해 온 도시이다. 인구 삼만 여명의 보잘 것 없는 고을에서 지금은 백만 명을 헤아리는 대도시가 되었으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의 문화 정책 또한 눈부시다. 부천시의 5대 문화사업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축제, 국제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만화

정보센터, 복사골예술제 등이다. 이 다섯 가지의 다양한 문화 사업은 시민들의 삶을 고상하게 해 줌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주는 박물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천교육박물관을 위시해서, 부천수석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자연생태계박물관, 부천유럽자기박물관, 부천물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등 해서 일곱 개나 들 수 있다.

여기서 부천시를 전통 문화 역사로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부천활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 가. 부천활박물관의 특징

우리 민족의 활쏘기는 선사시대부터, 식량과 전쟁에 대비한 수단으로 행해졌으나, 태종 81년(1408년)에 와서는 과거시험 무과 육예(六禮)의 하나로 군자필사호(君子必射乎)라 하여, 활쏘기 솜씨를 겨루어 왔다. 그러자 임진왜란을 맞아 왜병의 조총에 맞서 조선 활의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중국에서는 우리를 동이족(東夷族)이라 칭하며 동쪽의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불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 만 년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남의 나라를 먼저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940여 회나 넘게 침략을 당하고만 살았다고 하니 활쏘기의 명수라 해도

부천활박물관 내  
부 전시 모습.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에 자리한 부천활박물관은 커다란 부천종합운동장 옆 원미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박물관 지붕 위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소나무 숲과 잡목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 더욱 정겹게 보였다.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이곳 김대민 학예사, 전태익 운영부장님이 반가이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다. 전시장은 아늑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주 유익한 전통문화 전시관임에 손색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눈앞에 시커먼 화차 발통이 낫선 방문자의 눈길을 끌며 우리를 쳐다보는 듯 했다.

“전시장이 참 훌륭하네요. 활 박물관 하면 좀 낫선 감이 드는데



요,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2004년 12월 14일에 개관했습니다.”

“부천시에 활 박물관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요?”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또 이 고장에서 활 문화를 빛내고 가신 백인 김장환(白寅 金長煥) 선생이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으로 지정되므로, 선생의 희생어린 업적을 빛내기 위함이겠지요.”

“전시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전시실은 총 160평(53m)이라 한다. 영상실이 76m, 시연 공간 36m, 김장환 선생 유품 기증실 23m, 수장고 18m, 전시물로는 국궁 관련 자료가 338점이고, 백인 김장환 선생 유품이 240점이며 기타 98점이라 한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요?”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총괄로는 김박영(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명예관장님, 운영팀장 전태익, 학예사 김대민 외 직원 2명으로 살림을 한다고 한다.

전시장에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기이한 활과 화살 및 화차, 국궁에 관련된 각종 용품들이 아주 꼼꼼히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또 외국에서 입수된 화려한 모습의 활들도 볼 수 있었다.

“각종 자료들이 준비한데 진품도 있습니까?”

“이곳에는 거의 복제품이라고 봐야죠, 지금도 가끔 진품이 출

토되는 수도 있지만 귀합니다.”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우리들에게는 모두 생소할 뿐이다.  
수 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우리 조상들의 화 문화의 풍습을 한눈  
에 훑어보게 되어 감개무량했다.

## 나. 전시된 활과 화살

### (1) 우리나라 활과 화살

“궁시(弓矢)하면 궁은 활이고 시는 화살”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부터 160여 평의 공간에 짜임새 있게 진열된 전시물을 둘러본다.



부천활박물관 활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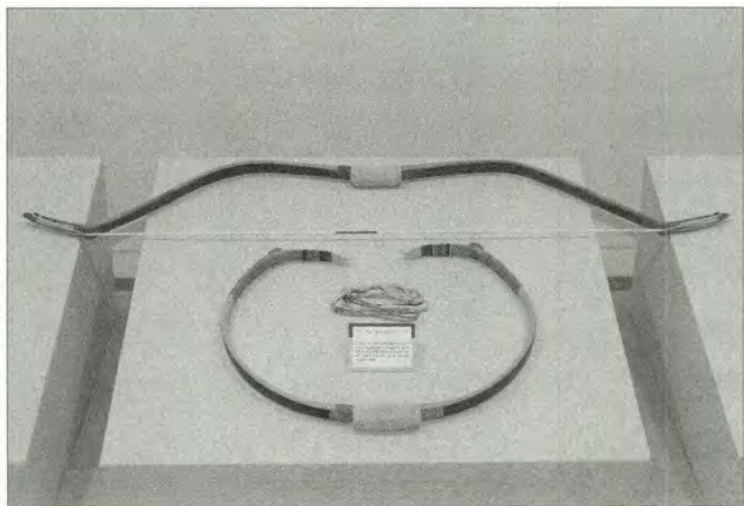
입구에서 눈길을 잡았던 화차다. 커다란 잠자리 눈알 같은 두 바퀴를 가진 무기는 신기전기화차(神機箭器火車)라 한다. 1448년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고에서 제조된 한 번에 100발 쏠 수 있는 이동식 로켓형 화차이고 대신기전(大神機箭), 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 중신기전(中神機箭), 소시기전(小神機箭) 등 종류가 있다. 하얀 바지저고리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바쁘게 화살을 쏘는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영상 세미나실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국궁 관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갖추고 여러 문화 행사와 교육적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세미나실이다.

옆엔 파란 하늘과 푸른 숲을 배경으로 실물 크기의 화랑도의 활쓰기 하는 생생한 모습이 밀랍인형으로 잘 만들어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얼마 전, 삼국사기의 화랑도 사다함과 무관의 우정을 그림으로 그리 적이 있어 더욱 관심 있게 보였다. 힘차고 당당한 모습이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보고 힘찬 기상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다.

옆 대형 유리 진열장에는 활과 화살을 그림으로 그리고 부분 명칭에 대한 해설을 친절히 적어 놓았다. 아래에는 정량궁(正兩弓)과 함께 다섯 개의 활이 전시되어 있다. 먼저 활 종류부터 알아본다. 활 종류는 10 종류가 된다고 한다.

### ○ 정량궁(正兩弓)

길이 160cm로 궁력(弓力)이 강하여 전시(戰時)와 초시(初試)에



사용했다.

○ 예궁(禮弓)

대궁(大弓)으로도 불리며 길이 182cm이며 제작법은 각궁(角弓)과 같으며 궁중에서 연사(燕射)나 향음주례(鄉飲酒禮)에 사용했다.

○ 목궁(木弓)

호(弧)라고도 하며, 제작법이 단순하여 전시와 수렵 공용하였다.

○ 철궁(鐵弓)

순 철제로 제작된 활이며 전쟁 시에만 사용하였다.

○ 동개활(고弓)

활과 화살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돌려메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부천활박물관 활 전시실

쏘았으며 활 중에서 가장 작은 활이다.

#### ○ 철태궁(鐵胎弓)

철로 만들었으며 전시와 수렵에 사용하였다.

#### ○ 포궁(砲弓)

막강한 활로서 진흥왕 19년에 나마신득(奈麻身得)이 발명했으며, 성 위 수레에 장치하여 끌고 다니며 화살도 쏘고 돌덩어리를 쏘기도 하였다.

#### ○ 단궁(檀弓)

박달나무로 만들었고, 수렵용으로 조선 목궁의 원시라고 한다.

#### ○ 구궁노(九宮弩)

순 전쟁용으로 많은 화살을 천보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기관총과 흡사하다.

### ○ 각궁(角弓)

맥궁(貉弓)이라고도 하며 전시 수렵용, 그리고 연악(燕樂)과 습사용이 있으니 현재 부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궁이 바로 이것이다.

활은 하나 만드는 데 무려 3,500여회나 손이 가고, 뽕나무 대나무 외 다양한 재료들을 삶고 구부리는 등의 작업이 필요해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한 개가 나온다고 한다.

다음은 조선시대 활이다. 고풍(古風, 1792년) 정조 유엽전 20순(100발)을 쏘아 98발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글이 붙어 있다. 무예통지(武藝通志)로 정조의 명에 만들어진 무예고법서이다.

아래로 초록색의 시복(矢服, 조선후기)과 조선 전통(화살 넣는 통), 궁대 길이(조선 후기), 어피와 낫쇠로 장식된 것이 있었다. 성시구 백제(5~6세기) 장식품과 조선의 궁술 책자(1922년의 것), 고대로 내려온 전통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 (2) 외국 활과 화살

이번에는 외국에서 입수한 활과 화살을 본다. 우리나라 활은 만궁(彎弓, 활 통을 거꾸로 휘어잡은 궁)이라면 외국 활은 직궁(直弓)인 다른 모습이다.

먼저 중국 활을 보면, 나무로 만든 목궁(木弓, 직궁)으로 대나무 두 개를 서로 붙여 고자(활머리)에는 짐승의 머리를 조각해 붙

였다.

몽골 활은 동궁(銅弓)으로 일 년 거의 기온이 낮은 추운 지방이라 그런지, 활의 오금 부위를 온통 폭신평신했던 짐승의 털로 덮어 씌웠다. 이 또한 활 양 끝 고자에 중국 활의 영향을 받은 듯 짐승 머리로 비슷한 모양으로 조각해 붙였다.

끝으로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지역)의 활을 본다. 알록달록한 색상이 먼저 눈에 띈다. 짙은 피부의 원주민들이 새 깃털을 머리에 두르고, 활과 창을 들고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몰려오는 느낌이다. 거의가 목궁(木弓)이며 활 등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싸고 짐승 털과 새 깃털과 빨강 노랑 파랑 색실과 작은 색 구슬 알갱이들을 엮어 장식해 그들의 정신문화를 금방 읽어볼 수가 있었다.

또 일본인들이 사용했다는 석궁(石弓)이다. 검정색을 띤 흑단 목으로 만들어 활체의 탄성이 매우 강하며 20cm 미만의 화살을 사용했다. 그 외 기이한 부속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3) 화살 전시장

나의 나라의 활을 보니, 우리나라의 활의 얼굴이 뚜렷이 보인다. 우리 활의 더구나 각궁의 단단하고 우아한 멋부터, 다양한 모양 또한 깊이 있는 예술성에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옆으로 송학 무늬를 그려 장식한 지승전통, 머리에 예쁜 전통



매듭과 작은 색동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더욱 고전미를 강조시킨다.

오른쪽 자동센서장치로 아나운서의 해설이 흘러나오며, 임금과 문무관의 활쏘기 장면을 매직 비전(magic vision)으로 관람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예의 음악, 활쏘기, 말 타기 등도 잘해야 한다면, 힘써 잘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다.

신전(信箭)이라는 화살이 여러 개 꽂혀 있다. 곰의 머리 부분을 붙인 옹후(熊侯)를 뒤로 하고 있는 이 화살은 왕명을 전달할 때에 쓰이는 의장용 화살이다. 화살 깃 아래 노란색 삼각 깃발에다 빨강색 글씨 '信(신)' 자를 새겨 두었다.

활쓸 때, 활시위를 당길 때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암



각지, 곳곳 외 소품들이 오밀조밀하게 진열되어 있다. 또 곁으로 커다란 예궁(禮弓)이 단독 전시되어 있으며, 이 활은 이곳의 명예관장이시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인 김박영 선생의 작품이다.

화살 전시장에 들어섰다. 통일신라시대 화살로부터 가야 화살, 백제 화살, 고구려 화살이다.

화살은 가볍고 탄력성이 우수한 피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다고 했다. 질서 있게 진열된 화살촉들 속에 까만색으로 다 보이게 만들어진 화살촉에 내 눈이 멈추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생각에 잠겼다. 우리나라 전통미의 신비스런 멋이 이 화살촉 끝에까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멋을 우선 하는 장식물도 아니고,



부천박물관에 전시된 화살촉.

자신을 방어하고 적을 무찌르는 무시무시한 도구인 화살촉까지  
에도 미묘한 아름다운 곡선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소 나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전통 가옥, 공예, 의상 등)에서  
시대를 뛰어 넘는 우수한 디자인과 색감을 느꼈고, 옛날 우리 조  
상들의 예술 감각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전문 미술대학이나 예술 학교도 없었는데도 참으로 조상들의 예  
술 감각에 말을 잃게 한다.

언뜻 보기에는 각종 화살들이 비슷비슷 하나, 나라마다 모양이  
다르고 새롭다. 특히 가야의 날렵한 보트 형의 활촉과 백제의 양  
나래형, 가오리형 활촉들은 그야말로 섬뜩한 예술의 혼을 느낀  
다. 또 명적(鳴鏑)이라는 촉이 있다. 이것은 전투 시작할 때에 화  
살을 쏘아 나르면서 소리를 내게 호시(嘯矢)한다고 한다. 촉은 세  
갈래로 쪼개져 음통을 넣은 기술이 붙어있는 과학과 예술의 접목  
이었다.

촉 재료로는 골촉(骨鏃), 청동촉(靑銅鏃), 철촉(鐵鏃)이 있다. 또  
조선 시대에 촉이 없는 화살 무촉전(無鏃箭)이 있는데 화살 끝을  
둥근 천으로 싸서 작은 탁구공 같이 생겼고, 또 가름한 성냥개비  
머리 모양의 화살촉은 습사(習射)나 교습(敎習)에 쓰인다.

주살이라고 화살 뒤 끝에 끈이 달린 수렵용이 있는데(지금의  
작살) 전투와 수렵용이라 한다.

아주 큰 어장전(御長箭)은 임금이 전투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통일 시라 시대의 장철촉(長鐵鏃), 고려 화살 쇠뇌용 등 일  
일이 열거하기 너무 많다.



김장환 선생 유  
품 기증실

다음 체험장은 공간 36m. 여기서는 누구나 활을 만들어 보고, 쏘아 보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로서 방학이면 단체 예약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족 단위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유익하다.

#### (4) 김장환 선생 유품 기증실

마지막 김장환 선생의 유품 기증실로 가보았다. 선생은 1909년 2월 3일 경주김씨 동천(東天)과 김해김씨 사이에서 당시 부평군 서면 신대리에서 태어났다. 활 제작 기술이 능했던 조부 김원제의 영향을 받아 선생은 16세 때부터 각궁을 제작했다. 각궁은 곧 국기(國技)라는 조부의 뜻에 따라 집안 대대로 한 사람씩 반드시 제궁 기술을 전수시키라는 유언으로 지금 아들 기홍 손자 흥진 5



대째 160년을 맥을 이어오고 있다. 선생은 단순히 활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인으로 올바른 판단과 사치를 겸허히 역사 앞에서도 시위를 겨누었다.

갑오경장 이후 신식 무기에 밀려 활쏘기의 쇠퇴기를 맞았고 일제의 강점기 한복판에서 한 시절을 보내면서 시대적 수난과 혹독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온 그는 자칫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 전통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활 문화가 사라질 뻔했던 위기를 급히지 않고 굳건히 앞장서 지키므로 궁도의 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시다.

더욱이 왕성한 사회 활동과 참 궁도인으로서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므로, 그는 끝내 문화재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으로 지정, 보호받게 되었다.

그는 1947년부터 부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곳에서 궁술 강의를 했고 대한궁도협회 사범 겸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대한궁술원'을 개설하여 2천여 명의 후배를 양성하면서 많은 발전에 기여했다. 드디어 1964년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하며 활쏘기 전국대회에서 400여 회의 입상 경력과 온갖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984년 여름 75세의 나이로 갑자기 타계하셨다.

생존 시 그는 인정이 넘치는 자상한 인간미를 가진 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에는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을 지녔다고 한다.

그의 유품실 입구, 생전의 모습이 작은 액자에 표구 되어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동안 쌓아온 상패 상품 메달 등 한 보따리가 우



리를 반긴다. 까만 자개상에서는 가는 세월도 모르고 하얀 자개 무늬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벽면에는 그가 생전에 활동하시던 모습이 대형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다. 선생이 쓰시던 책자들, 낫쇠로 만든 풀 그릇, 세월 따라 때가 까맣게 탔다. 누렇게 찌든 베보자기, 실패, 나무주걱, 시위틀, 받침대 등 선생의 땀방울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 것 같았고 손때 묻은 갖가지 공구들이 후손들을 반기는 것 같았다.

선생의 활 문화를 꽃피운 활무대인 성무정(聖武亭)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성무정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성주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활터이다. 이곳은 언제 조성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고 구한말부터 소사읍을 중심으로, 1910년경부터 궁도인들이 활을 많이 쏘았다고 구전한다. 1960년에는 전국 규모 궁도



2004년 12월 부천활박물관 개관 기념식.

대회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의 초대 사두(射頭)로 김장환 선생이 선임되었고, 그는 부천시의 협조를 받고 사재(私財)를 들여 오늘날 성무정을 건립하는 데 큰 공을 하였으며, 뒤를 이어 1983년 제2대 사두는 한성근(韓聖根) 옹, 다음으로 최상헌(崔相憲) 옹, 이정우(李貞雨) 사두, 양주석 사두, 이인노 사두, 화재상 사두, 현재 차수진 사두님들로 이어오면서 서로 서로 사재를 아끼지 않고 활 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헌신 노력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 다. 글을 마치며

궁도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한 상태에서 활을 쏘 때 화살이 과녁에 명중되므로 다른 운동에 비해 유난히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궁도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궁도 구계훈(弓道九戒訓)을 들어 본다.

인애덕행(仁愛德行), 성실겸손(誠實謙遜), 자중절조(自重節操), 예의엄수(禮儀嚴守), 엄직과감(廉直果敢), 습사무언(習射無言), 정심정기(正心正己), 불원승자(不怨勝者), 막만타궁(莫彎他弓).

이상 주옥같은 계훈을 알고 궁도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보니 어릴 적 활 쏘는 사람을 무척대고 한량(閑良, 돈 잘 쓰고 놀러 다니는 남성)이라고 빈정거리며 불량한 사람으로 힐난했던 편견이 무척 부끄럽다.

봄이 오더니 가을이 오고, 세월은 무심히 오가는데, 성주산 기슭 아름다운 활터 성무정에는 그 때와 변함없이 산새 소리 맑게 지저귄다. 한 시절 찬란했던 백발백중 명장의 흔적은 이제 까만 비(碑)로 남아, 오늘도 오고 가는 길손의 발길을 말없이 반기시며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듯 했다.

사진 | 김 창 호

사진작가 · 부천문화 편집위원

## 부록5. 육군박물관

임 창 선

부천문화 편집위원

### 가. 기록의 산실 육군박물관

육군의 중앙박물관으로 전통 및 현대 군사문화자료를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가 주목적이다. 국내 유일의 군사전문박물관인 동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박물관이다.

일반인에게 전시함으로써 전통 국방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이해 및 교육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전시실은 고대실, 현대실이 있다. 그 중 제1전시실(2층)에는 궁시 유물 관련 진열장이 5개 있다. 궁시유물 140점과 화살촉이 약 100점이 시대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육군박물관 활  
부문 전시실 전  
경.

1956년 발족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 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그 후 1980년 초에 군사박물관으로서의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육군박물관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1994년에는 ‘한국의 활과 화살’ 특별전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어서 ‘국궁 문화 대축제 행사’를 주관하여 잊혀져 가는 국궁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

박물관은 연건평 1,815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다. 2개의 전시실과 320석의 좌석이 구비되어 있는 강당, 사무실, 영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평면도는 ‘열쇠모양’으로 ‘조국통일을 염원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 나. 전시되어 있는 궁서류

### (1) 제1진열장

#### 각궁(角弓)

조선후기. 길이 127.5cm 폭 4cm.

운동 습사용으로 줌통에 땀이 차지 않도록 모를 섞어 짠 삼베로 포장한 활이다.

#### 예궁(禮弓)

조선중기. 길이 247cm 폭 8cm.

일명 대궁(大弓)으로써 궁중연사(宮中燕射) 등 각종 의식에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활이다.

그 외 목궁(木弓), 죽궁(竹弓), 철궁(鐵弓)이 전시되어 있다. 활과 화살에 대한 명칭과 그 시대 여성이 활쏘기 하는 사진도 볼 수 있다.

### (2) 제2진열장

#### 노기(弩機)

초기 철기시대. 가로 13.5cm 세로 18cm.

재질은 청동. 노는 활에서 발전된 무기로서 활이 활 틀에 직각으로 끼워지고, 활 틀 뒤끝에 구멍을 파서 청동제의 발사 장치를 설치하였다. 낙랑의 유적지에서 출토.

### 활집(弓袋)

조선후기. 길이 41.5cm 폭 21.5cm.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청적황 자수가 놓아져 있다.

### 완대(腕帶)

조선후기. 길이 170cm.

재질은 소가죽, 상아 고리, 청적색 자수.

### 활 장갑(弓手甲)

조선후기.

통아 받침장갑 재질은 먼 누빔이고, 깍지 골무 재질은 녹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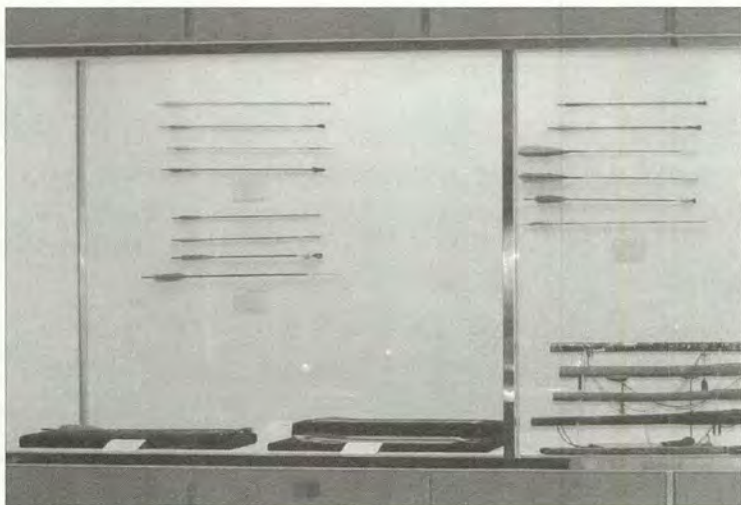
### 습(拾)

조선후기. 크기는 좌(左) 가로 9cm 세로 10cm, 우(右) 가로 12cm 세로 13cm.

가죽과 상아로 되어 있다.

### 편전과 통아(片箭. 桶兒)

조선후기. 길이는 편전 50cm, 통아 86cm.



목제통아에 편전을 넣어 발사하는 화살. 천보이상에 달하며 속도가 빠르고 관통력이 강함. 우리나라 특유의 화살로서 중국인들은 ‘고려전(高麗箭)’이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총통(銃筒), 활과 화살의 변천사가 설명되어 있다.

### (3) 제3진열장

#### 화살통(箭筒)

지승전통(紙繩箭筒), 용머리형 전통(龍頭形 箭筒), 앵두나무 껍질 전통(櫻皮裝箭筒), 죽제십자생문전통(竹製十長生紋箭筒), 어피 전통(魚皮 箭筒).



## 화살

백제화살, 고구려화살, 신라화살, 가야화살, 조선시대화살, 발해화살.

화살은 축과 살대, 깃, 오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의 화살은 그 축만 출토되고 있다. 화살축의 재질 종류는 뼈, 돌, 청동, 철 등이다.

골축은 사슴이나 다른 동물의 뼈나 뿔 또는 이빨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석축은 흑요석, 판석, 벽옥제석, 사암 등으로 만들었고 그 모양도 다양하다.

청동축은 피 흡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야, 낙랑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철축은 살상효과가 커짐에 따라 크기나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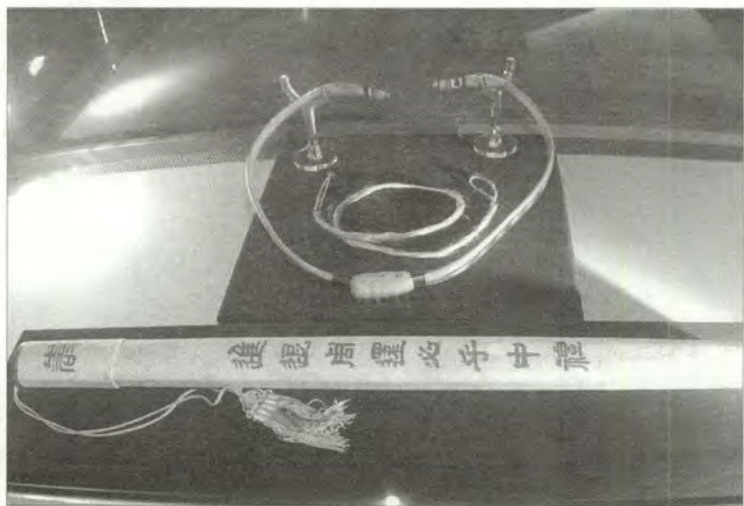
## 시복(矢箆)

조선후기. 길이 11~15cm 폭 16~19cm.

용단으로 만든 화살꽂이. 화살은 기패임. 허리에 차게 되어 있다. 소가죽으로 된 장식이 없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렵용 화살집도 있다.

## 전대함(箭袋函)

조선중기. 길이 100cm 폭 40cm.



많은 화살을 담아 마차로 실어 나르게 한 목제 화살 통 장비이다.

#### 박두(模頭)

조선중기. 길이 82cm.

박두와 대 사이에 나무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 유엽전(柳葉箭)

촉이 버들잎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전투, 습사용 화살이다.

그 밖에 살수건(矢巾)과 제구(諸具)가 전시되어 있다.



육군박물관에 전시된 고풍(古風)과 대사례(大射禮).

#### (4) 제4진열장

##### 문서(文書)

궁술에 관한 저작은 오랜 궁술의 역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조선시대 전기에 간행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의 군례(軍禮)조이다.

가장 종합적인 궁술에 관한 저술은 20세기 초 일제하에서 간행된 《조선의 궁술》이다.

문서류로는 왕이 지방 순시 때 활을 쏘고 상을 내린 《고풍(古風)》을 찾아볼 수 있다.

### 고풍(古風)

1792년, 가로 58cm 세로 43cm.

정조(正祖)가 활을 쏘아 성적이 좋은 것을 기리어 검교제학(담당자) 오재순에게 상을 내렸다는 문서.

### 사례서(射禮書)

조선후기, 가로 63cm 세로 100cm.

정유봉(鄭有鳳)이 신사(新射, 새로 사단에 입단하는 사람)로서 예를 갖추고 오동정(梧桐亭)으로 나오라는 사단 입단허가서. 회원은 '선진(先進)' 아래 성씨(姓氏)를 쓰고 수결로써 승낙을 표시한다.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가로 20.5cm 세로 30.5cm, 1책.

조선조 세조 때부터 성종 조에 완성된 《국조오례서례》 군례 편에 〈병기도설〉, 〈사기도설〉이 실려 있다.

### 조선의 궁술(朝鮮의 弓術)

1922년, 가로 15cm 세로 23cm.

일제치하에 민족 사상의 고취를 위해 이중화(李重華), 성문영(成文永) 등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 활의 모든 것들을 집성하여 저술한 책이다. 주종연이 기증한 것이다.

모구(毛球)와 무촉전, 투호도 볼 수 있다.



## (5) 제5진열장

### 겉장노(蹠長弩)

틀 길이 97cm 활 길이 112cm.

발로 노궁을 밀고 시위 줄을 손으로 당겨 노기에 걸어서 발사한다.

노기 틀은 유영기씨가, 노궁은 김박영씨가 <훈국신조기계도설(訓局新造器械圖說)>을 참조하여 복원한 것이다.

### 노해(弩解)

녹로 노(녹로 弩)에 대한 기록을 한 책으로, 설명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복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녹로 노는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대형의 강한 노이다.

그리고 노기(弩機), 삼시수노기 등도 전시되어 있다.

## 다. 가장 소중한 전시품

### (1) 호미명과 각궁과 전통(虎尾銘角弓 箭筒)

19세기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활과 화살 통.

궁장(弓匠) 장기홍(張基弘)이 호랑이 꼬리 무늬가 있는 물소 뿔



로 제작한 것이다. 활 양끝에 붉은 글씨로 ‘호미(虎尾)와 주연(珠淵 : 고종의 아명)’의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각궁은 명성이 높고 독특한 재료로 만들었다. 글자 글대로 쇠뿔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국의 대나무, 물소뿔, 쇠심, 구지뽕나무, 참나무, 화피의 6가지 재료로 구성된다.

이 각궁은 뱃나무 껍질로 만든 화피 위에 채색한 것이다. 시위 고리를 거는 새코머리는 가죽으로 감싸고 3가지 색의 천으로 발랐다. 그 밑에는 아(亞)자 무늬를 새긴 검정색 종이로 감쌌다. 특히 이 활의 검은색 양 단에 각각 ‘호미(虎尾)’ 및 ‘주연(珠淵)’이라 작은 글씨가 새겨진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고종의 활이라는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말의 고종황제가 친히 사용했던 어궁(御弓)이라

고 전해오는 활이다. 고종은 경희궁에 위치해 있는 황학정에서 가끔 활쏘기를 할 때 이 활을 사용했던 것이다.

호미는 활에 사용된 흑각 복판에 한 줄로 인(人)자 모양의 황백색(黃白色) 얼룩무늬가 마치 호랑이 꼬리 같다는 데서 붙여진 지칭이다.

이것은 물소 뿔의 등술에 간혹 나타나는 미려한 무늬이며, 그런 각재(角材)를 댄 각궁일수록 빼어난 양궁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호미는 최상품으로서 제작된 각궁이란 용어와 뜻을 같이한다.

이 각궁의 전체 길이는 124cm, 오금너비는 3cm로서 일반적인 활의 규격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다. 그리고 활짚의 강도가 사용



육군박물관에 전시된 웅후(熊侯).

인에게 너무 힘겹지 않도록 축소 약화시켜 만든 것이지만, 재료와 형태에 있어서는 한국 전래 각궁의 특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재 이 활은 오랫동안 시위를 쏜 채 보관하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C형으로 굳어져 다시는 시위를 었을 수 없는 실정이다.

화살 통은 두터운 종이로 골재를 만들고, 그 위에 비단으로 장식한 지골견장식 전통으로 호미명 각궁과 함께 사용했다.

## (2) 웅후(熊侯)

조선시대. 가로 세로 517cm. 유영기 출품.

웅후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釋奠)·산천(山川)·묘사(廟社)에 올리던 제사, 또는 학교에서 선성선사(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해 올리던 의식을 지낸 뒤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大射禮)시 사용 되었던 임금님 전용 과녁.

하얀 칠을 한 가죽에 곰의 머리가 덧붙여져 있다. 본 유물은 《대사례 궤》(규장각 소장)에 실린 건륭 8년 대사례시의 것을 실물 크기로 복원한 것으로, 육사 궁시(弓矢) 특별전에 출품한 바 있다.

박물관 1층 계단 올라가는 벽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게 뭐지?’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한다.



### (3) 미후(미侯)

조선시대. 가로 세로 527cm.

조선시대 국가가 주관한 활쏘기 행사는 국왕이 문(文)과 무(武)를 함께 장려하려는 의도로서 문무백관이 공자의 묘를 배향한 후 신하와 함께 거행하였다. 이 때 왕의 종친이나 문무관이 사용했던 과녁.

하얀 가죽에 큰 사슴 머리가 덧붙여져 있다.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있는 청색 포로 실물 크기로 복원한 것이다. 육사 궁시(弓矢) 특별전에 출품했으며, 현재는 2층 박물관 궁시류 전시관 입구 오른쪽 벽에 붙어 있다.

### (4) 화차(火車)와 신기전

조선시대. 높이 100cm.

화차는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신기전 틀을 탑재하고 있다. 신기전 틀은 100발의 신기전을 일시에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신기전에는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의 세 종류가 있다.

화차에 탑재하는 신기전 틀에 사용하는 신기전은 중신기전이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의 화차를 복원한 것이다. 전시장 가운데에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어 잠시 눈길을 끌었다.



## 라. 마치면서

활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만들어진 이래 오랫동안 무기로 사용되었다. 뛰어난 기술과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진 활이 점점 사용하는 범위가 좁아져 가고 있다.

또한 문화의 발달과 선진국의 신무기 발달로 궁시(弓矢)가 전쟁무기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지금은 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로 전략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마저도 미약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육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일이 그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 일을 박물관을 통하여 보존, 연구,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사진 | 김 창 호

사진작가 · 부천문화 편집위원

## 부록6. 영집궁시박물관

유 재 숙

부천문화 편집위원

### 가. 역사를 보존하는 영집궁시박물관

경기도 파주 탄현면 법흥리에 위치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궁시(弓矢) 문화를 곳곳하게 지키며 보존하고 있는 영집궁시박물관(楹集弓矢博物館)을 찾았다.

영집궁시박물관(楹集弓矢博物館)이 위치한 주변에는 임진강(臨津江)과 한강(漢江)이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 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자유로(自由路), 오두산통일전망대(烏頭山統一展望臺), 고려통일대전(高麗統一大展) 헤이리아트벨리,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영어마을 등 각종 문화시설들이





화살을 만들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공시장 영집 유영기 선생 (자료제공: 영집공시박물관)

위치하고 있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한 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영집공시박물관 이정표를 따라 오솔길로 들어서니 요즘 보기 드물게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긴 거리도 아닌데 박물관 주변이 포장도로라니 한마디로 우리문화의 어려운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겹겹이 둘러싸인 조용한 산자락에 소박하고 아담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이 바로 영집공시박물관이다. 박물관을 세우게 된 동기는 근래 경기도 장단과 파주 등지에서 화살을 만들던 시인(矢人, 시인이란 조선시대 화살을 만들던 장인을 부르던 정식명칭(正式

名稱) 유복삼(劉福三, 1897-1968)씨가 부친인 유창원(劉昌元, 1870-1917)씨로부터 가업(家業)을 전수받아 50여 년간 화살을 제작 해오다 아들 유영기(劉楹基, 1935~)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며 유품으로 화로와 도가니, 저울, 벼루, 등등을 유물로 남겼다.

궁시장(弓矢匠) 영집(永集) 유영기(劉永基) 선생이 화살대를 매만지며 산 지 벌써 50년, 철부지 때 아버지를 따라 시작한 길이 칠순(七旬)을 넘긴 지금까지 전국의 수많은 활터(射亭)나 구석진 대나무 밭, 그리고 부레풀 끓는 공방(工房)을 돌아다닌 선생에게 있어 궁시(弓矢)는 평생 떨 수 없는 분신(分身)과도 같은 존재.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47호로 지정받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친의 유지를 이어가고, 우리 전통인 활쏘기 문화를 살려야 했다. 그 각오로 고향인 파주에 사비와 국가지원금을 더해 그동안 모아 둔, 선인(先人)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전통 활쏘기 문화를 지키고자, 박물관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전통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한, 전국에서 유일(唯一)의 활과 화살 전문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박물관 규모를 보면 2000년 12월 30일에 등록하여 2001년 5월 19일 개관한 건물로 1층은 박물관 전시관이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 박물관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 35평 정도의 전시관이 아담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전시관에는 한국의 활과 화살, 쇠뇌



한 데 모아진 화살,  
활, 전통.(자료제공:  
영집궁시박물관)

그리고 활쏘기에 필요한 용품과 함께 활 제작과정 및 화살제작도구와 재료, 화약무기 등 한국자료와 함께 중국, 인도, 영국, 아프리카, 아메리카인디언 등의 활과 화살이 같이 전시되어 있어 한국과 외국 또는 동양과 서양의 활을 비교할 수 있다. 근대 장인과 한량의 유품 등 다양한 궁시관련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여기 전시된 많은 전시물 중에 한국의 활과 세계의 활, 그리고 한국의 화살(矢) 및 세계의 화살, 그리고 궁시보조기구 및 화약

병기와 기타 무기류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나. 영집궁시박물관의 전시품

### (1) 활(弓)

활은 탄성 있는 물체에 줄을 매어 당겨 쏘는 무기를 말한다.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무기는 각 시대에 따라 수렵도구이며, 전쟁무기인 동시에 정신 수양과 심신을 단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종류로는 길이에 따라서 2m를 넘기는 긴 활(長弓)과 그렇지 않은 짧은 활(短弓)로, 형태에 따라서는 곧은 활(直弓)과 굽은 활(彎弓)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제작에 쓰인 재료에 따라서는 주목나무나 대나무 또는 물푸레나무, 야자나무 등의 탄력이 있는 나무의 위와 아래에 줄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단순궁(單純弓)과 활에 끝이나 가죽과 같은 것으로 감거나 소의 힘줄을 덧붙여 활의 탄력을 높인 강화궁(強化弓), 여러 가지 탄력의 요소가 다른 물체들을 결합하여 제작하는 복합궁(複合弓)으로 분류된다. 이 복합궁은 보통 탄력 있는 나무들과 짐승의 뿔, 그리고 동물의 힘줄을 붙여서 제작하며 제작된 형태는 구부러진 모습으로 시위를 걸 때에는 활의 휘어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걸고 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활(弓)은 매우 짧고 여러 가지 탄력의 요소가 다른 물체들을 결합한 복합궁(複合弓)인 각궁(角弓)이다. 이외에 대나무로 제작된 죽궁(竹弓)과 나무(木)나 철(鐵)로 만든 철목궁(鐵木弓), 철궁(鐵弓) 등이 전시되어 있다.

### ① 한국 활

#### 백각궁(白角弓)

길이: 125.5cm

재료는 뽕나무, 대나무, 소 힘줄, 참나무 등과 흰 빛의 물소뿔로 제작되어 뿔의 빛깔에 따라 붙여진 이름의 활.

#### 흑각궁(黑角弓)

길이: 108cm

활의 길이가 다른 각궁에 비하여 짧은 특징이 있다.

(제작: 고 권영록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 흑각궁(黑角弓)

길이: 129.5cm

활의 아귀에 실을 감아 보강하지 않고 화피로 단장하였으며 시위는 목실로 하였다.

(제작, 기증: 박극환)



### 흑각회궁

길이: 125cm

활에 붙인 물소뿔의 길이가 짧은 활로 짧게 붙여진 부분과 나무의 연결부를 투명실과 황색실로 감고 나무부분을 화피로 단장하였다.

(소장: 정진명, 제작: 김박영(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철궁(鐵弓)

길이: 118cm

넛쇠를 방짜기법으로 두드려 제작한 것이다. 한양대학교 소장의 유물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사용은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이 불편하던 각궁 대신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영집궁시박물관  
의 한국 활을 설  
명하는 자료.

다.

(제작: 이봉주(중요무형문화재 77호 유기장), 유영기(중요무형  
문화재 47호 궁시장))

이밖에도 흑각휘궁, 흑각궁 얹은활 모형(黑角弓 模型), 교자죽  
궁, 교자죽궁 얹은 활 모형 (校子竹弓 模型), 죽궁(방태기활) 죽  
궁, 목궁 등 많은 활이 전시되어 있다.

## ② 세계의 활(弓)

청대 기병용 각궁(清代 騎兵用 角弓)

길이: 156cm

중국 청(淸)대에 사용되었던 기병용 활이다 길이가 다른 청대 활에 비하여 짧고 활의 세기도 약하다. 활 손잡이(줄통)의 옆부분(아귀)에는 어피를 싸고 푸른 안료를 물들였으며, 안쪽에는 나비, 박쥐 등의 문양을 채색한 화피(樺皮)를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 청대 북방계 각궁(淸代 北方系 角弓)

길이: 175cm

폭이 좁고 두께가 얇은 편에 속한다. 각궁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세기가 달라지는데 춥고 건조할 경우에 세기가 강해진다. 따라서 추운지방의 활은 덥고 다습한 지방에 사용되는 활보다 얇고 좁게 제작된다. 특히 이 활은 고자부분에 제작자를 표시한 '이양(利央)'이라는 명문이 있다.

#### 청대 각궁(淸代角弓)

길이: 189.5cm

손잡이를 힘줄로 횡으로 감고 화피에는 붉은 안료를 칠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박탈되어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

#### 청대 북방계 각궁(淸代 北方系 角弓)

길이: 180cm

북방계열의 활로 아귀를 어피로 싸고 윗부분에는 상아로 장식한 활이다. 특히 한쪽의 물소뿔에는 인자문(人字紋樣)이 선명하다.



### 청대 각궁(清代 角弓)

길이: 180cm

일반 청대의 활보다 굵은 정도가 심하며, 화피 대신 종이로 싸고 검은색 칠을 하였으며 문양역시 종이로 장식하였다.

### 청대 각궁(清代 角弓)

길이: 183.5cm

매우 강력한 활로, 고자의 한쪽은 훼손되어 없어졌다. 또한 화피를 싸지 않은 부장궁(不莊弓)으로 힘줄을 붙인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밖에도 외국의 활로는 북 티베트 각궁, 몽골 각궁, 동남아 탄궁, 장궁, 북인디안 활, 남미 인디안 활, 아프리카, 탄자니아 민속궁 등등이 전시되어 있다.

## (2) 쇠뇌(弩)

쇠뇌는 활에 기계장치를 부착시킨 쏘는 무기로 화살을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그 앞에는 활을, 뒷부분에는 방아쇠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쇠뇌는 구조상 활시위를 당겨 발사 전까지 소요되는 힘을 대신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 활보다 높은 명중률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활을 장착하거나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연속으로 발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활이 오랜 연습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쇠뇌는 조작법에 긴 훈련기간을 요구하



지 앓을 뿐더러 일부의 쇠뇌는 아동이나 부녀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점으로 발사속도가 활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으로 화약무기가 가진 장점과 비슷하였으므로 화약무기의 출현 이후에는 대형의 쇠뇌는 점차 사라지고 ‘수노’와 같은 가볍고 빠른 발사 속도를 갖춘 쇠뇌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 궐장노(蹶長弩)

쇠뇌길이: 88cm 활길이: 127cm

신헌(申櫓, 1810-1888)이 훈련도감에서 제조한 군기를 실은 병서인 《훈국신조기계도설(訓局新造器械圖說)》에 실린 기록을 참고하여 제작한 쇠뇌로 각궁으로 활을 하고 금속제의 발사 장

치를 갖춘 조준력이 높은 쇠뇌이다.

### 수노기(手努幾)

쇠뇌길이: 82cm 활길이: 127cm

훈군신조기계도설에 실린 기록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활을 당기므로 부녀자나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인노라고도 부른다.

### 용두삼시수노(龍頭三矢手弩)

쇠뇌길이: 98cm 활길이: 127cm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쇠뇌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이 쇠뇌는 한번 발사에 세발의 화살이 발사되도록 고안 되었다.

### 탄노(彈努)

쇠뇌길이: 95cm 활길이: 127cm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쇠뇌를 참고로 제작한 것이다. 이 쇠뇌는 여러 개의 탄환이나 화살을 넣고 발사하는 것으로 수노와 원리가 매우 비슷하다.

### 강노(强弩)를 녹로 위에 얹은 모습

길이: 136cm 노궁길이: 196cm

노해(弩解) 기록을 참고하여 제작된 쇠뇌로 강노(强弩)는 노궁(弩弓)의 세기가 매우 강력하여 사람의 힘으로 당겨 방아쇠에 걸

영집궁시박물관  
에 전시되어 있  
는 한국의 화살.



수 없으므로 녹로판이라는 돌림 장치가 달린 판 위에 쇠뇌를 올리고 판 위의 돌림 장치에 밧줄을 설치하고 줄 끝에는 쇠갈고리를 달아 노궁(弩穹)의 시위에 걸고 돌려 밧줄을 감아 시위를 방아쇠(牙)에 걸고 다시 강노(强弩)와 녹로판을 분리한 다음 강노의 아랫면에 다리를 끼워 사용한다. 이 강노에서는 장전(長箭)과 편전(片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수 또한 조절이 가능한 쇠뇌이다.

이밖에도 녹로판, 강노, 청대 탄노 등이 전시되어 있다.

### (3) 화살(矢, 箭)

화살은 화살대와 축 그리고 시위를 끼울 수 있는 오뇌와 끈계



날아가도록 하는 살것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살대는 곧고 가벼우면서 탄력이 있는 물질로 만들며 지는데 이는 대나무나 갈대처럼 곧고 속이 비어 있는 재료나 버드나무나 자작나무와 같은 가볍고 탄력 있는 나무를 선호하여 제작한다. 또는 나무로 제작되는 화살은 나무의 잔가지로 제작하는 방법과 굵은 나무를 켜서 다듬어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전의 방법은 쉽고 다량으로 제작하기가 용이하나 습기 등에 노출되면 다시 굽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뒤의 방법은 제작과정이 길어서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화살은 전투에 사용되었던 것 이외에도 사냥에 쓰이거나 신호나 통신에 이용되기도 하고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곳에 전시된 화살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삼국화살(原三國矢)

길이: 77cm-79cm

김해 주촌면 양동리에서 출토한 화살촉을 토대로 복제한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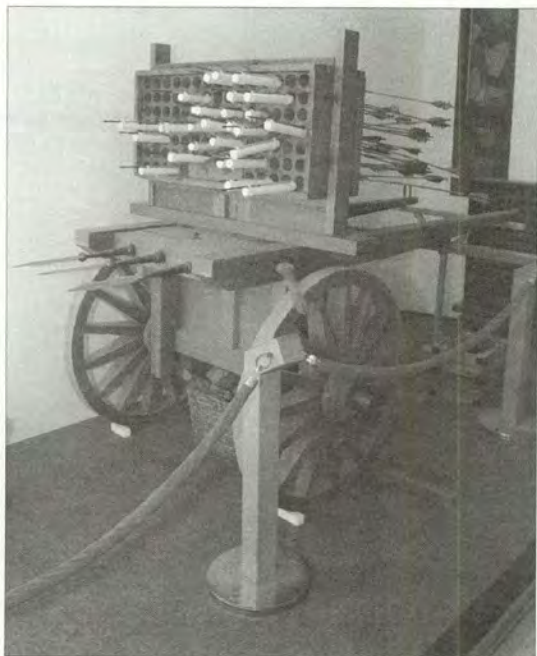
#### 고구려화살(高句麗矢)

길이: 73.5cm-99cm

대성산 벽화무덤, 자성군, 집안 등지에서 출토한 화살촉을 토대로 복제한 화살.

#### 백제화살(百濟箭)

영집궁시박물관에  
전시된 신기전



길이: 83cm-110cm

청주 신봉동에서 출토한 화살촉과 살대 등을 참고하여 복제한 화살.

신라화살(新羅箭)

길이: 86cm-95.5cm

황오리 미추왕릉에서 출토한 화살촉과 명적을 참고로 복제한 화살.

### 발해화살(渤海矢)

길이: 77cm-90cm

청해토성지에서 출토한 촉을 참고로 복제한 화살.

### 안압지화살(雁鴨池箭)

길이: 92cm-97cm

안압지에서 출토한 화살촉을 참고로 복제한 화살로 아래의 두개는 쇠뇌용으로 판단됨.

### 가야화살(伽倻箭)

길이: 84.5cm-97cm

대성동 부부총에서 출토한 화살촉과 명적을 참고로 복제한 화살.

### 몽촌토성살(夢村土城箭)

길이: 82cm-96.5cm

몽촌토성에서 출토한 촉을 참고로 복제한 화살.

### 조선화살(朝鮮箭)

길이: 84.5cm-90cm

화전(火箭, 불화살), 화자류전(火?榴箭, 불화살), 세전(細箭, 연락용), 장전(長箭, 연락용), 어장전(御長箭, 임금용)을 복제함.



이외에도 대형쇠뇌살, 양주산성살, 부소산성살, 유엽전, 신전, 편전, 수수깡화살, 죽궁살, 목궁살, 청대목전, 몽골목전, 필리핀, 일본 화살, 인도-페르시아 화살, 영국 화살, 북미인디언 화살, 남미인디언 화살, 아프리카 화살, 돌촉, 동촉, 철촉 등등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4) 활쏘는 도구(各種射具)

활쏘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射具)들이 필요하다. 활을 쏘 때 시위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는 각지(角指)로부터, 활 잡은 손(쥔손)의 팔목에 매어 소맷자락을 감싸주는 팔찌나 완대, 그리고 박힌 화살을 뽑아낼 때에 사용되는 노루발(獐足)과 쓴살을 주



위서 닦아내는 살수건(失巾), 화살촉을 빼거나 꽃을 때에 필요한 축도리, 등등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야 순조로운 활쏘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활을 넣어 다니던 궁대(弓袋), 화살을 넣는 살통(箭筒)과 시위에 먹여 보호하는 밀납 등의 도구들도 사용된다.

### (5) 제작 도구(製作道具) 및 장인(匠人), 한량유품(閑良遺品)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다양하게 각종 칼, 및 송곳, 톱, 저울, 대나무와 재료를 재는 상사자, 도피자, 줄대, 가위, 인두, 화로, 등 많은 도구들과 활쏘는 사람(“활량” 또는 “한량”) 또는 “궁사”라고 한다.

유품으로는 근래 활쏘는 사람 중에 최초로 그 기예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궁사(弓士) 장석후(張錫厚)씨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였다. 십대 소년시절부터 90살을 넘겨 활을 쏘아 활 쏜 기간이 80년이 넘는 (집궁 80년) 대업을 이루기도 하였다. 말년에 황학정에 소속되어 활을 쏘다 별세하였고 그의 유품으로 각궁(角弓)과 죽시 그리고 궁대 살수건 등의 유품이 있다.

이밖에도 박물관에는 몇 가지 문서들도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오래된 궁술의 역사에 비하여 매우 적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문서로는 《조선의 궁술(朝鮮의 弓術)》과 《망암선생문집(望菴先生文集)》, 《병학지남(兵學指南)》, 《연기신편

(演機訊編》등이 전시되어 있고 <격구도(擊毬圖)>란 그림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

## (6) 화약병기(火藥兵器)

한 번에 많은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화약병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도 신기전기화차(神機箭機火車)는 길이가 231cm 폭 101cm 높이 168cm로 수레 위에서 신기전을 발사하도록 고안된 화차로 이것은 조선시대 문종(文宗)이 설계한 것으로 수레의 축을 높이므로 화차의 높낮이의 폭을 40°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앞에는 창과 옆에는 칼을 꽂아 사용하게 하였으며 100발의 신기전을 동시에 발사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 외에도 총통기(銃筒機)를 비롯해 많은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다.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집궁시박물관

박물관 터 주변에는 직접 활을 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약 300여 평 규모의 약식활터로 어른이나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활쏘기와 쇄뇌 쏘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전통의 대나무 활



영집공시박물관  
의 활쏘기 체험  
장.

을 사용하여 한국 고유의 활쏘기 교육을 받고 체험도 하며 휴식 공간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활쏘기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심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450여 평 잔디밭 우측에 정원을 꾸며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토종 꽃인 매발톱, 할미꽃, 금낭화, 초롱꽃, 솔붓꽃 등의 야생화와, 벚나무, 단풍나무 등으로 꾸며 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장승과, 약식의 고인들이 곁들여져 최대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려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차게 박물관에 유물과 자료들을 잘 모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 우리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에 가슴 벅차고 우리 문화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한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약 8,000명 정도라 한다. 우리문화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관람객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전통을 알려고 하는 인식이 부족해서란 생각이 든다.

파주만 해도 ‘울곡제’란 커다란 축제가 있음에도 우리전통 활쏘기 대회는 축제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무사들이나 하는 활쏘기를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인 울곡선생의 축제에서 활쏘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사에서 제외되었단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살려 널리 보급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기적인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전통 문화를 지키고 살려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영집궁시박물관 관장인 유영기(劉楹基) 선생은 칠순(七旬)이 넘은 지금도 우리전통화살 만들기에 열심이다.

또 선생의 아들인 유세현(劉世鉉)씨가 5대째 가업(家業)을 이어 전수받고 있으며, 박물관 및 궁시장(弓矢匠) 조교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관람객들을 위해 친절하게 자료들을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활쏘기는 체력은 물론 정신 및 심신수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금은 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학기나 방학 중에 학생들이 단체로 활쏘기 체험하러 오기도 하고, 사극에 필요한 활이나 화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고증을 해주며 화살을 만들어 전국의 궁사들이 활쏘기에 필요한 화살들을 제



작해 제공하기도 하고 공예전에 출품도 하지만 큰 수입은 못된다고 한다.

5대째 가업(家業)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유세현(劉世鉉) 공시장 조교는 젊은이로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전통문화를 지키고 보급한다는 자부심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운 게 계기가 되어 가족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전통의 활쏘기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누구나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요구하는, 조언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 길잡이로 삼는 그런 박물관이 되길 꿈꾸며 열심히 할 거란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전통문화를 지키고 가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 전통 활쏘기 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 | 김 창 호

사진작가 · 부천문화 편집위원

## 부록7. 전국 국공장 소개

한 상 현

시인 · 부천문화 편집위원

### 1. 서울특별시

#### (1) 화랑정

- 주소: 노원구 공능동(육군사관학교 내)
- 연락처: 02-970-2744
- 대표자명: 이혁섭

#### (2) 살곶이정

- 주소: 성동구 행당동 81-1
- 연락처: 02-2294-3245



- 대표자명: 김용철

### (3) 수락정

- 주소: 노원구 상계4동 산155-1
- 연락처: 02-939-5154
- 대표자명: 오세제
- 연혁

수락정 수락산 동막골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인 국궁 동호인들에 의해 세워진 궁도장이 있다. 이 궁도장은 국궁 동호인들이 1977년 5월 궁도회를 조직하여 상계동 639번지에 수락정을 건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80년대 상계택지개발 공사로 인해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1986년 궁도장을 현 위치인 동막골에 옮겨왔다. 당시에는 임시로 궁도장을 만들어 사용

하였는데 1944년 1월 9일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고 전통무예의 의리와 맥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의 궁도장을 철거하고 현재의 위치에 1994년 5월 9일 수락정을 건립하였다. 수락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오정자로 면적은 15평이다. 정면 3칸은 모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1단의 장대석을 놓았고 4쪽의 분합을 달았다. 현재 많은 궁도인들이 수락정을 이용하고 있다. 궁도장에는 3개의 표적이 있으며 사선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145m이다.

#### (4) 공향정

- 주소: 강서구 화곡5동
- 연락처: 02-698-0507
- 대표자명: 장이섭



공향정



#### (5) 영학정

- 주소: 양천구 목1동 409-74
- 연락처: 02-2646-7754
- 대표자명: 이규원

#### (6) 관학정

- 주소: 관악구 신림10동 산73(23/6)
- 연락처: 02-887-7971
- 대표자명: 이규홍

#### (7) 백운정

- 주소: 성북구 정능2동 87-16
- 연락처: 02-914-5418
- 대표자명: 이장재

#### (8) 석호정

- 주소: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 연락처: 02-2273-2061
- 대표자명: 김환태

#### (9) 황학정

- 주소: 종로구 사직동 산1
- 연락처: 02-738-5784

조선 말기의  
황학정



• 대표자명: 이동희

• 연혁

서울 황학정은 경희궁 안에 있던 활터로 옛날부터 역대 임금이 쏘던 활터이다.

위의 흑백사진은 바로 경희궁 안에 있던 시절의 활쏘기 장면이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1922년에 일제가 경성중학교와 총독부 관사를 짓는다며 이 활터를 철거하자 인왕산(仁王山) 자락의 필운동(弼雲洞)에 있던 등과정(登科亭) 터로 옮겼다. 그곳이 현재의 황학정이 있는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이다.

황학정은 고종황제가 친히 쏘던 활터이다. 나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분에 싸인 고종은 그 울분을 달래고 세상 일을 잠시라도 잊고자 황학정에 나와서 활을 쏘았다. 그래서 지금도 사정 건물에 고종황제의 어진을 모셔놓았다. 현재 황학정의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것이다.

황학정에는 정간이 없다. 정간이라는 것이 1960년대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학정을 찾는 처음 한량들은 의례히 고종황제의 어진 앞에 가서 예를 드린다. 황학정이란 말은 왕이 활을 쏘는 모습을 표현한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즉 “황의만궁 방불학지서익(黃衣挽弓 彷彿鶴之舒翼)”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황학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궁계의 수사정 노릇을 하고 있다.

우선 근대 국궁의 모체인 조선궁술연구회가 황학정의 성문영사두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1960년대 대한궁도협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실제로 국궁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양궁도 이곳에서 궁도협회의 주관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궁도교실로 쓰는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또 황학정은 1990년대 들어 국궁의 이론화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 《국궁1번지》를 매년 출간함으로써 기록의 전혀 없는 국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 황학정 궁도교실을 열어서 일반인들에게 활쏘기를 잘 전하고 있다.

## 2. 부산광역시

### (1) 구포정

• 주소: 북구 구포3동 1238-9

• 연락처: 051-336-0337 / 011-9319-0337

•대표지명: 서복운

•연혁

1990년 10월 10일 개정

2001년 11월 16일 등록

## (2) 오륙도정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1동 487-52

•대표지명: 윤준혁

•연혁

부산 오륙도정은 2001년에 생긴 정이다.

수영정에서 활을 쏘던 윤준혁 고문이 남구청의 체육공원 설립 계획이 추진 중인 것을 알고 활터를 세울 것을 권유하여 체육공원 단지 내에 활터를 세웠다. 체육공원은 남구의 바닷가 백운포에 있다. 백운포는 양쪽으로 뻗어나간 두 산줄기 사이에 아늑히 안긴 포구이다. 바다 앞쪽에 오륙도가 떠있고 오른편 건너 쪽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보인다. 바다와 섬 그리고 산이 어울린



오륙도정



훌륭한 자연경관 속에 과녁이 있어서 운치를 더해준다.

### (3) 사직정

• 주소: 동래구 사직동 903번지(사직운동장 내)

• 연락처: 051-506-2716 / 011-551-3071

• 대표자명: 박운봉

• 연혁

1993년 1월 1일 이기태 협회장, 강호준 전무이사 새해 사업으로 협회 직할정 건립계획

1993년 3월 28일 가칭 사직정을 아래 주소지에 전액 부산광역시 시비로 건립을 건의.

1993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30번지 사유지대 착공

1993년 8월 28일 준공(만4개월20여일) 부지 2000평, 건평 40평, 사대 60평

1993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궁도협회 구덕정에서 새 새무실로 이전 입주

1993년 9월 1일 정식명칭 사직정으로 대공에 등록

1993년 9월 개정기념 전부산 궁도대회 주최, 주관, 성료(참석회원 130여명, 내빈 포함)

1993년 11월 13일 제1회 부산시장기 전부산궁도대회 개최 성료

1994년 6월 대한궁도협회주최 입·승단대회 및 전국

	정대향전 주관 성료
1994년 9월 10일	부산궁도협회소속 4개정 연합 주최 제1회 부산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성료
1995년 5월 1일	진해 벽해정 김봉원 제공사 가족 사직정 관리인으로 입주
1996년	97회 동해지구 친선궁도대회 주최
1998년 12월	부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에서 81회 전국 체전 도경기장으로 사직정 지정
2000년 2월 13일	구사대 철거, 신정사 착공
2000년 10월 15일	전국체전 궁도경기 성료(단체전 우승, 중 합 준우승)
2000년 11월 5일	김종대부산협회장배 부산궁도대회 개최
2000년 11월 26일	제124회 동해지구 친선궁도대회 개최

#### (4) 수영정

- 주소: 수영구 관안4동 산56(활터)
- 연락처: 051-761-3269
- 대표자명: 박정식

#### (5) 낙동정

- 주소: 사상구 삼락동 500-1(활터)
- 연락처: 051-301-2500
- 대표자명: 김철수

• 연혁

1979년 6월 1일 발기인 대회에서 1939년 육원정을 재건키로  
합의하고 덕포동 산21번지에서 1979년 6월 29일 개정

(6) 구덕정

• 주소: 서구 서대신동 3가 산 2-1

• 연락처: 051-255-0254

• 대표자명: 박판곤



구덕정

### 3. 대구광역시

#### (1) 팔공정

- 주소: 수성구 범어동 산173
- 연락처: 053-752-6904
- 대표자명: 배기운

#### (2) 관덕정

- 주소: 남구 대명 11동 산306(궁도장)
- 연락처: 053-656-4664
- 대표자명: 장창선

### 4. 인천광역시

#### (1) 현무정

- 주소: 서구 마전동 108-6
- 연락처: 032-563-5443
- 대표자명: 양태섭

#### (2) 구월정

- 주소: 남동구 구월4동 654-2



- 연락처: 032-469-0188

- 대표자명: 김철기

### (3) 청룡정

- 주소: 계양구 다남동 산42번지

- 대표자명: 김완산

### (4) 연수정

- 주소: 연수구 연수 2동 636번지(체육공원 내)

- 연락처: 032-818-5644

- 대표자명: 김홍순

### (5) 남호정

- 주소: 남동구 수산동 산 47번지

- 연락처: 032-467-6166

- 대표자명: 김진호

### (6) 서무정

- 주소: 서구 검안동 산71-1

- 연락처: 032-561-0382

- 대표자명: 류완규

### (7) 남수정

- 주소: 남동구 장수동577-1(인천대공원 내)
- 연락처: 032-465-2644
- 대표자명: 서진하

### (8) 연무정

- 주소: 계양구 계산2동 산11
- 연락처: 032-543-2630
- 대표자명: 이웅진

### (9) 무덕정

- 주소: 남구 송의4동 산8
- 연락처: 032-875-3921
- 대표자명: 손창선

## 5. 광주광역시

### (1) 용진정

- 주소: 광산구 지산동 449번지
- 연락처: 062-943-6130
- 대표자명: 임동규

## (2) 송무정

- 주소: 광산구 소촌동 산12-7
- 연락처: 062-941-0098
- 대표자명: 유우중

## (3) 무등정

- 주소: 북구 운암동 58-8(체육공원 내)
- 연락처: 062-525-2617
- 대표자명: 이승묵

## (4) 관덕정

- 주소: 남구 사동 177(사직공원 내)
- 연혁

관덕정은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앞 영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자를 '영수정(潁水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정자는 영파정(潁波亭) 이안(李岸)이 세웠다고 전하며 처음에는 그의 아호(雅號)인 영파정을 정자 이름으로 썼다. 원래 이 정자가 건립된 단초는 1454년(단종2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보위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당시 정계에 몸을 담고 있던 함평출신 이안(1414년-?)이 이에 반대하고 함평으로 낙향하여 살게 되었다. 그 후 현재의 건물 규모로 현재의 위치에 다시 건립된 것은 이로부터 200년이 경과한 뒤의 일이었다. 1807년(순조7년) 7월 권재우(權在禹)등 몇몇 유지들과 후손들이

관덕정



뜻을 모아 함평공원 뒷산에 유허비를 세웠고 1820-1821년 사이에는 군수 권복(權馥)과 김상직(金湘稷)에 의해 중건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 정자는 1843년 궁도무예를 위한 건물로 중수(重修) 활용되었다(〈영수정 중수기〉(1881년 권재우), 〈영수정 중수계판〉(1883년 참조)). 현재 이 정자의 상량에 1843년의 기명(記名)이 보이는 것으로도 이러한 사정은 확실하며 이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정자가 퇴락하자 함평군수를 비롯한 관내 향품(鄕品) 이교(吏校)들에 의해 1881-1883년 사이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다. 당시 정자의 명칭은 영수정 관덕정이라고 불리지고 있었으며 점차 함평 이씨의 함평 입향조 이안의 유적에서 강무(講武)와 사례(射禮)의 유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후 영파정은 영수정, 관덕정으로 자칭되면서 함평군의 사정으로 성격을 확립하여 갔고(〈이동선(李東瑄), 이영헌(李瑛憲) 중수기〉 참조) 그리고 1933년과 1966년 담장 등을 보수하여 향리인들의 궁도



무예의 도장으로 활용하게 하였으나 1960년 말 영수천의 직강공사로 인해 궁도장의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30여 년간 궁도의 맥이 끊겼던 중 1998년 정원장 군수의 지원과 평소 궁도에 관심이 많은 김문호 씨의 노력으로 영수천변에 슬레이트조로 간이정(間移亭)과 과녁 2개를 세우고 그해 4월 1일 김형중 손영길 안병호 김문호 권영 이종연 등 15인의 발기로 창립총회를 열어 정명을 영수정으로 하여 함평궁도의 맥을 잇게 되었다. 1998년 12월 정기총회 때 정명 영수정을 영무정으로 고쳤으며 고수부지에 위치한 정의 규모가 열악하여 활터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독지가 이일한 씨께서 함평읍 함평리 산성마을 임야 388평을 함평군에 기부하였으나 주변여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중 이석형 함평군수의 배려와 김녕호 전남 도의원의 열성어린 활동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 건평 60평의 영무정을 2001년 2월에 기공하여 같은 해 7월 21일에 완공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정명을 다시 관덕정으로 바꾸고 궁도장이 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사대와 분리되어 취약성이 많아 궁도장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므로 이설이 불가피하다는 중론에 의해 이설신축을 건의한 바 이석형 함평군수의 특별한 배려와 김성호 전남도위원의 성심찬 노력으로 도·군비 5억을 지원받아 약마등(躍馬嶺) 아래 길승지(吉勝地)인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함평공설운동장 내 2500평 군 부지에 팔작한옥 70평을 관덕정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아름다움과 최고의 시설로 2004년 11월 기공하여 2005년 5월에 완공했다.

## 6. 대전광역시

### (1) 대덕정

- 주소: 서구 내동 산220-8(월평공원내)
- 연락처:
- 대표자명: 송인봉
- 연혁

대전 대덕정은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대전천이 목척교 옆에서 1946년 경에 출범하였다. 강경 덕유정에서 집궁한 백남진이 대전으로 오면서 전주에서 집궁한 김용순과 함께 개천 가에서 술포를 세우고 활을 쓴 것이 대전 대덕정의 출범이다. 이후에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월평공원 내의 체육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사했다.



대덕정

## (2) 무덕정

- 주소: 유성구 봉명동 하천 1013
- 연락처: 042-527-3876
- 대표자명: 김의길

## (3) 대동정

- 주소: 동구 판암동 202 주공@ 202-807
- 연락처: 042-825-1130
- 대표자명: 이기운

## (4) 회덕정

- 주소: 대덕구 법2동 한마음@ 101-304
- 연락처: 042-626-4676
- 대표자명: 신남우

## (5) 안영정

- 주소: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내
- 연락처:
- 대표자명: 최종익

## 7. 울산광역시

### (1) 만하정

- 주소: 중구 북정동 44번지
- 연락처: 052-246-0787
- 대표자명: 심영섭

### (2) 삼양사정

- 주소: 남구 매암동 360
- 연락처: 052-279-4667
- 대표자명: 김영광

### (3) 원학정

- 주소: 중구 학성동 174
- 연락처: 052-296-9360
- 대표자명: 오영수

### (4) 청학정

- 주소: 동구 화정동 산 165-5번지
- 연락처: 052-233-3778
- 대표자명: 기문걸



#### (5) 백양정

- 주소: 중구 교동 35
- 연락처: 052-246-3730
- 대표자명: 박신균

#### (6) 고현정

- 주소: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1041
- 연락처: 052-211-8150
- 대표자명: 천실근

#### (7) 락희정

- 주소: 울주군 온양면 망향리 388
- 연락처: 052-231-4081
- 대표자명: 천정기

#### (8) 무룡정

- 주소: 북구 창평동 725-5
- 연락처: 052-298-5050
- 대표자명: 이규현

#### (9) 문수정

- 주소: 남구 신정2동 993-1
- 연락처: 052-276-5550

## 8. 경기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연무정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3-32	031-255-8910
성무정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7	032-662-7755
송학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0-70	031-906-2841
금능정	김포시 걸포동 281	031-982-0257
대호정	김포시 대곶면 율생4리 산136	031-987-5945
군자정	시흥시 거모동 794	031-499-4724
관무정	시흥시 월곶동 산8-9	031-498-6788
소래정	시흥시 방산동 산104-1	031-313-3006
설봉정	이천시 관고동 361(설봉공원내)	031-635-2505
반월정	안산시 본오동 330블럭(각골공원내)	031-409-2384
화곡정	평택시 신대동 574-2(체육공원내)	031-653-8920
금호정	파주시 금능동 산18-1(공설운동장내)	031-944-5750
근무정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195	031-942-8510
임월정	파주시 문산읍 운천1리 20-48	031-952-7443
학소정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체육공원내)	032-832-2101
청심정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산13(공설운동장내)	031-885-2595
홍인정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산38-2	031-883-0938
천양정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031-882-9479
분양정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산16	031-988-7191
비호정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12	031-964-5868
덕양정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66	031-972-8535
송호정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279	031-914-2112
선무정	파주시 교하면 오도1리 143-1	031-941-8858
운학정	광명시 하안동 산53-2 (하안배수지)	02-898-9930
동호정	동두천시 생연동 213(활쏘는곳)	031-862-1501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통진정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82	032-988-5220
한성정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24	031-734-2642
송무정	평택시 자산동 산177	031-663-9999
광덕정	안산시 초지동 44 산7	031-482-9911
용무정	용인시 유방동 산154-1(유림배수지내)	031-335-0992
공릉정	파주시 조리면 죽원1리 700	031-941-3442
고봉정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94	031-977-5986
가야정	여주군 강천면 가야2리 395	031-882-6100
광무정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27-4	031-942-7363
동부정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874	031-531-5583
시흥정	시흥시 정왕동 876-21	031-498-6888
물왕정	시흥시 물왕동 산48	031-403-6425
군포정	군포시 둔대동 245-6번지내	031-502-2117
백운정	의왕시 고촌동 275-1	031-429-5207
대군정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 산151	031-535-3993
울곡정	파주시 법원읍 법원2리 219	031-959-5515
금당정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317-5	031-886-5883
황현정	시흥시 장곡동 산9	031-317-2511
국사정	포천군 신북면 계류1리 310-1	031-533-2227
오갑정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산11-4	031-884-5249
태산정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491	031-988-4050
용호정	포천군 신북면 계류2리 579	031-533-0432
무호정	양주군 남면 상수1리 산81-7	031-864-0804
수심정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산108	031-832-9747
양강정	파주시 교하읍 와동3리 583	031-944-9789
수양정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641-26	031-334-3455
발안정	화성군 향남면 도이리 산32	
평택정	평택시 오성면 죽리 산35-3	031-683-7888
양평정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415(공설운동장내)	031-882-6100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안양정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2-1(평촌배수지내)	031-456-6467
고대정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031-834-3352
분당정	성남시 분당구 율동 92	031-701-1911
수리정	군포시 속달동 산1번지	031-437-5663
화석정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1067번지	
감악정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1	031-959-7067
왕곡정	의왕시 왕곡동 68번지	031-452-4578
양지정	시흥시 안현동 53-3	031-404-5315
임진정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475	
무림정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37-8	031-527-7748
부천정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032-665-1070
율목정	과천시 주암동 470	
맞춤정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410	
산하정	평택시 평택동 33-2(비엔나악기사)	
용현정	의정부시 용현동 399-24 용현동배수장 내	
대룡정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136	
법화정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9	

## 9. 강원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학봉정	원주시 명륜동 205	033-764-4096
경포정	강릉시 교2동 2-4(종합운동장내)	033-648-6778
동덕정	동해시 천곡동 363-1(종합경기장내)	033-532-5556
초록정	동해시 북평동 481-1	033-521-5444
연무정	태백시 상장동 1-8	033-553-1444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설악정	속초시 노학동 322(종합경기장내)	033-633-5565
태풍정	횡성군 횡성읍 하1리 40(삼일공원내)	033-743-2438
죽서정	삼척시 정노동 336번지(활쓰는곳)	033-574-4739
석화정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150-8(행정타운내)	033-434-2919
화림정	화천군 화남면 위라리	033-442-2859
금호정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033-374-2281
금학정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궁도장)	033-455-6247
삼구정	정선군 정선읍 애산1리	033-563-1778
해망정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196-2	033-573-6561
대관정	평창군 도암면 차항2리 295	033-335-1223
노성정	평창군 평창읍 하3리 산10번지	033-334-1998
미석정	정선군 신동읍 조동6리 239	033-578-7476
백운정	정선군 고한읍 고한14리	033-591-0944
양록정	양구군 양구읍 하리	033-482-0111
울곡정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8리(농공단지앞)	033-662-7875
현산정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033-672-4640
청옥정	평창군 미탄면 창리	033-332-3723
이목정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033-333-0222
수성정	고성군 간성읍 상1리	033-681-2368
오대정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2리	033-335-2750
두타정	동해시 삼화동 265-4	033-532-8257
태화정	평창군 대화면 대화9리	033-333-2604
호반정	춘천시 삼천동 392-3	
용비정	원주시 소초면 익관리 공군부대내	
태봉정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22	

## 10. 충청북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우암정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4-56	043-221-1500
의림정	제천시 모산동 110	043-643-3100
약수정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043-211-9997
충열정	충주시 호암동 680(충주문화방송㈜)	043-841-8123
사호정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816-18	043-832-3678
가섭정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730-1	043-873-0207
화랑정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산9-1	043-533-9464
대성정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043-423-3633
영무정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4	043-744-1684
관성정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9-7	043-732-4801
삼보정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86	043-836-7877
탄금정	충주시 칠금동 산1-1	043-848-9859
보은정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5	043-543-3323
단재정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4-23	
청풍명월정	제천시 의림동 23-27 9/2	043-642-7679
무심정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91	043-272-0958
청산정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424	043-732-5202
옥순정	제천시 수산면 계란리 206	043-648-1058

## 11. 충청남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관풍정	공주시 웅진동 332-7	041-855-3130
홍관정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13-1	041-754-2767
육일정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47	041-835-2982
덕유정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47	041-745-4337
연무정	논산시 연무읍 안심5동 388-6	041-742-0204
관운정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91	041-863-2513
학유정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40	041-355-2779
홍무정	홍성군 홍성읍 소항리 산7번지(공설운동장)	041-632-2333
서령정	서산시 갈산동 61-8	041-665-2073
보령정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31-7	041-931-3630
예덕정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4-2	041-334-7049
금덕정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339-1	041-866-9271
충무정	아산시 방축동 산24-4	041-542-3550
천안정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64-59	041-557-7872
청무정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5-1	041-943-3536
금수정	서천군 장항읍 원수3리 673	041-956-0270
국수정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63-1	041-355-0018
아산정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28	041-543-8399
웅무정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39	041-934-6093
광무정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산17-13	041-641-3588
지성정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53-1	041-688-4903
서림정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산10-2	041-953-3709
충장정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377	041-353-3220
망객정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47-1	041-363-0627
신도정	계룡시 남선면 정장리 940	041-551-5511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천궁정	천안시 백석동 산67-5	041-555-5598
소성정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2-10	041-675-2276
계백정	논산시 취암동 13-13(공설운동장내)	041-736-4531

## 12. 전라북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천양정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96	063-284-4853
진남정	군산시 월명동 35-2	063-462-2725
송백정	익산시 현명동 168-1	063-855-5841
필야정	정읍시 수성동 434-22	063-535-4370
관덕정	남원시 어현동 178(관광단지내)	063-625-3126
군자정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산1	063-642-2345
건덕정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산38-1	063-856-4791
홍심정	김제시 교동 279	063-547-2345
득가정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680-5	063-642-5121
심고정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산1	063-584-2652
육일정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04	063-653-3137
벽계정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80(운동장내)	063-351-2927
초파정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각동 808	063-563-6611
함벽정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38-2	063-534-4174
모양정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40(공설운동장내)	063-560-2756



### 13. 전라남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군자정	여수시 오림동 123(진남체육공원내)	061-652-6065
충무정	여수시 종화동 677(자산공원)	061-662-5988
창랑정	나주시 삼영동 359-3	061-334-3405
환선정	순천시 조곡동 278-25(죽두공원)	061-744-3927
봉황정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1-9	061-832-2157
홍덕정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산5-1(남산공원)	061-863-5178
양무정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50	061-434-2402
청해정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180-1	061-554-3376
충무정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1	061-383-3524
경호정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40	061-842-2644
군자정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1047-23	061-372-2305
영덕정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7	061-372-1227
봉덕정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산1	061-782-2405
열무정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2	061-473-2160
반구정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417	061-363-2279
연무정	목포시 상동 산34 실내체육관옆(활쏘는 곳)	061-274-5559
서양정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063(활쏘는 곳)	061-374-3255
육일정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50-2	061-351-3349
관덕정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산17	061-857-0441
인덕정	나주시 남내동 21	061-334-2324
문무정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9-1	061-835-4547
유림정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35	061-763-0573
청학정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부평동 500-4	061-852-2479
백학정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3	061-393-2883
만수정	해남군 해남읍 해리 산1	061-536-2164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용향정	신안군 도초면 나박포리	061-275-2150
무선정	여수시 시전동 147-4(망마경기장내)	061-684-1211
인향정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30-1	061-755-5721
망덕정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61-1	061-772-4520
마로정	광양시 중동 1087	061-792-1630
송덕정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산4번지	061-452-8117
자산정	구례군 산동면 내산리 천 833-1	061-781-6388
돈대정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061-542-5300
백운정	광양시 광영동 산61번지	061-792-3234
봉대정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422 한전? 2-204	061-357-2320
관덕정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47	061-323-8494
모후정	화순군 남면 절산리 산27-1	
옥당정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00-3	061-353-8677
영주정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39-2	061-834-5005
비봉정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65	
홍무정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산87-8	061-833-1777
옥실정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245	
오성정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고수부지	
창덕정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6-16	
심청정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691	

## 14. 경상북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호림정	경주시 황성동 416(황성공원내)	054-743-5933
영락정	안동시 천리동 227-33	054-854-0622
충무정	영주시 휴천1동 1109	054-631-2700
송학정	포항시 남구 상도동 313-1(공설운동장내)	054-277-1415
영무정	영천시 교촌동 330(시민운동장내)	054-334-3161
무학정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남산공원내)	054-654-2201
상무정	상주시 낙양동 산31-1	054-533-3132
경무정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1307	054-555-6344
의무정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20	054-832-1138
일출정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태리 산6-1	054-276-2543
무릉정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57-28	054-791-2817
권무정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147	054-261-0253
경조정	경산시 갑제동 124(경산조폐창내)	053-810-0459
송호정	포항시 북구 학산동 산53-1	054-247-7642
호국정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산45-5	054-973-2802
김산정	김천시 삼락동 488-1(종합운동장내공도장)	054-434-1211
금무정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고수부지내)	054-332-2830
성무정	울릉군 서면 남양1리 575	054-791-1365
칠보정	울진군 북면 부구리 218(고수부지내)	054-780-2356
금오정	구미시 진평동 913(동락체육공원내)	054-472-5335
가야정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67-2(체육공원내)	054-933-3916
청송정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21-1(부곡휴양단지내)	054-873-1500
화림정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17	054-734-4443
상산정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265	054-534-9836
청량정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1214-9	054-672-6825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운강정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 15. 경상남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용마정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산42-5	055-255-1230
람덕정	진주시 옥봉남동 산16-1	055-741-3095
남강정	진주시 옥봉남동 산13-1	055-745-2263
강무정	창원시 대원동 182(창원전문대학앞)	055-261-3890
벽해정	진해시 여좌1가 산98-1	055-546-3140
열무정	통영시 동호동 230-1 남망산공원내	055-645-3555
대덕정	사천시 선구동 26-1	055-833-4091
금병정	김해시 진영동 214	055-343-2454
덕수정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산80-7	055-754-5071
홍의정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85-2	055-573-3156
정심정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공원내	055-572-2988
가야정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35	055-583-3385
와룡정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631-7	055-582-7496
백이정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207	055-585-5085
용산정	창녕군 영산면 서리 116-10	
강남정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55-4(남지읍체육공원내)	055-526-5581
추화정	밀양시 내일동 431(아복산내)	055-352-5994
관락정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체육공원내)	055-391-0148
금무정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11	055-635-0555
벽파정	거제시 능포동 산66-2	055-681-3456
계룡정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59-10	055-632-6494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철성정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10-1	055-673-5955
관덕정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277	055-852-2536
금해정	남해군 남해읍 서변동 산1	055-864-2635
옥산정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산9	055-882-8510
금오정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189-3	055-884-6235
하상정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27	055-884-2204
청호정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내	055-972-7841
죽죽정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2	055-931-4400
남산정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산3-2	055-532-9222
창림정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52-2	055-754-6155
영봉정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378	055-754-7728
무광정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35-3	055-587-5977
화개정	하동군 하개면 탑리 625	055-884-3852
봉화정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894	055-342-6811
박월정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055-533-6476
부곡정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055-521-0560
아림정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63	055-942-8810
봉성정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92-1	
호연정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산18	055-963-8188
횡강정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19-1	055-883-7251
생림정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168-1	055-323-9229
수양정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215-1	055-852-6756
낙홍정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79	055-854-0450
이명정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560-1	055-882-3011
금성정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4-112	055-882-2322
연무정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201(동산체육공원내)	055-632-9504
청학정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247	055-884-5970
관덕정	함양군 안의면 이천리	
성심정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 1062-6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진해정	진해시 경화동 1138-56	055-551-1438
고현정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411	055-882-3799
초팔정	합천군 적중면 양림리 887-32	
용산정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53-4	
승진정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 16. 제주도

단체명	주소	전화 번호
한라정	제주시 화북1동 4504-2	064-755-4404
천지정	서귀포시 강정동 1475(강창학공원내)	064-739-5444
삼다정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13	064-764-1273
백록정	서귀포시 보목동 1443	064-732-7324
탐라정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2리 1832-1	
산방정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산27번지	064-794-4131

## 17. 궁도협회 주소록

협회명	주 소	전화번호
대한궁도협회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올림픽회관 509	02-420-4261
서울궁도협회	서울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잠실주경기장내)	02-416-6084
부산궁도협회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양정모체육관옆) 사직정내	051-506-2716
대구궁도협회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산173	053-752-6904
인천궁도협회	인천 남구 송의4동 산8	032-875-3921
광주궁도협회	광주 서구 화정 3동 407-8	062-373-6293
대전궁도협회	대전 서구 내동 220-8	042-527-7522
울산궁도협회	울산 중구 학성동 174	052-296-4531
경기궁도협회	경기 수원시 매향동 3-32	031-245-7588
강원궁도협회	강원 강릉시 임당동 146	033-643-4477
충북궁도협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4-56	043-221-1500
충남궁도협회	충남 보령시 동대동 1323	041-934-3367
전북궁도협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96 천양정내	063-284-9672
전남궁도협회	전남 목포시 죽교동 334	061-244-3403
경북궁도협회	경북 영천시 완산동 987-4	054-337-0908
경남궁도협회	경남 창원시 대원동 182	055-267-0657
제주궁도협회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011-6	064-725-1231

문화는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귀한 문화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문화를 서로 알리고 권하여  
21세기 문화시민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한 공간  
부천문화원 · 부천문화의집에서  
다양한 문화정보가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커다란 빈 그릇만 지니고  
부천문화원 · 부천문화의집에  
오십시오.  
풍요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부천문화원**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87-5  
tel.032-651-3739  
fax.032-656-9200  
E-mail: chpuchon@hanmail.net



